

기본연구  
2010-12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송두범 · 유정규 · 정환영

기본연구  
2010-12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2010·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46-5 03350

기본연구 2010 - 12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송두범 · 유정규 · 정환영



# 발 간 사

내발적 지역발전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활성화를 위해 가장 긴요한 과제중 하나가 경제활동의 다각화와 복합화를 통한 고용기회 유지·창출과 소득원 창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농촌 지역사회에서 도농교류와 그 주요 내용인 농촌관광은 특별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부존자원과 특산물의 활용, 부녀자와 고령자의 경험과 유희노동력을 이용한 지연(地緣)사업화, 지역자본과 아이디어, 전통기술의 활용, 지역인재의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자원 활용형 경제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산물 판매 촉진과 소득 및 취업기회 창출도 가능하다.

도농교류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교류관련 사업이 민간 자율에 맡겨져야 하지만 주체역량 취약으로 행정의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개입이 민간의 자립역량 강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농교류사업은 특히 지역의 독자성, 특성, 고유성을 살려 사업화한다는 관점에서 지역고유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틈새시장 전략에 입각해야 한다.

이러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지역주체의 계획적 접근, 지역경영관리기능을 담당할 추진조직 확립, 도농교류 지원조직의 설립운영, 정보화 전략-교류 기반 강화전략-도농간 연계 강화전략 등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사례로 도농교류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과 시각으로 접근하면서도 실제 농촌체험마을 대표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농교류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를 바라며 연구를 수행한 송두범 박사를 비롯하여, 지역재단 유정규 박사,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 연구요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농촌은 인구 감소화·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세계시장 개방화로 인해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정주에 필요한 기초시설 및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국가경제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축소되면서, 농촌에서는 비농업부문의 경제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 농업중심에서 소득원 다각화를 위한 도농교류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도농교류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농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농교류의 내용, 도농교류의 형태, 도농교류의 체계성, 도농교류의 지속성·쌍방향성 등이 담보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도농교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 역시 2010년 현재 165개 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어 도농교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입지적 장점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어촌교류촉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남도내 농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도농교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도시-농촌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도농교류정책의 정책방향과 발전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주요 연구내용

충청남도 도농교류정책의 방향과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도농교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통해 7개 주요변인을 선정한 다음 분석

을 틀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도농교류 정책과 제도적 기반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시군의 도농교류 시책은 공주시 “5도2촌주말도시”를 사례로 분석한 다음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실태·문제점·성과 분석과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충청남도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90개 마을, 도시 및 농촌주민 각 90명을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한 다음,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를 대상으로 5명의 마을대표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의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정비, 농촌체험마을의 사회기반, 농업농촌경관정비, 체험중핵시설, 지역경영거점시설 농촌체험마을 정비, 농특산물 판매소, 구판장, 인터넷쇼핑몰 등 도농교류기반 확충, 1사1촌, 1교 1촌 등 자매결연제도의 실질적 운용, 농촌체험마을 규약 제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소득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변관광지나 상권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 농협의 요일장터 등과 연계한 마을특산물 직거래 장터 정례화, 차별화된 마을축제를 통한 소득증대방안 모색, 농촌체험마을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도농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육성 아카데미 개설, 도농교류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사무장제 확대 운용, 농촌체험마을 주민 개개인의 교류역량 배양, 농업농촌의 이해를 위한 도시민 교육 등이 필요하다.

넷째,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가 및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의 개최,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교육의 확대, 농촌유학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원인의 명확한 파악, 사업수입 및 혜택의 고른 배분, 권한견제를 위한 조직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확립,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리더십 정리, 실효성 있는 마을규약 및 정관제정,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강화,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마을여건을 고려한 사업운영 방식 채택, 갈등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이 강화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강화, 마을브랜드의 개발 및 운영, 지속적인 도시방문객 관리, 도시소비자 및 각종단체, 자매결연, 회원제사업, 이벤트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농교류 담당 행정관리조직의 단순화, 진안군의 도농교류센터, 평창군 그린투어 사업단, 장수군의 도농교류협의회 등과 같은 지원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통합계획 수립도 요구된다.

### 3. 결론 및 정책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내에 산업단지나 주거단지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내 종사자 및 거주민의 증가를 통한 지역활성화도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매력물을 발굴,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자를 유치하는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도농교류는 교류자의 증가를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일 뿐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간 협력 및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예비사업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농교류를 바라보는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농교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10~14)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도농교류시책 추진이 요구된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도농교류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단위의 도농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도농교류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조례 제정 및 도농교류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도농교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도시-농어촌교류촉진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각 시군에도 “(가칭)도농교류촉진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질적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농교류관련 기관간의 협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주시의 ‘5도2촌주말도시탐’과 같이 행정기관에도 도농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도농교류시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농교류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코칭 강화가 시급하다. 농촌주민들은 도농교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단계마다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코칭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연스러운 학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주시 5도 2촌 주말도시 사례와 같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여섯째, 도농교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우수마을에 대한 견학, 현장방문 등은 도농교류에 대한 확신 및 창의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국내에 머물지 말고 해외의 성공사례를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도농교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도시-농어촌교류 촉진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도농교류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등에서는 한시적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평생교육원내 상시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농교류가 상당한 성과를 내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시작단계에 있는 마을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를 추진하면서 마을내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중단된 마을도 있다. 따라서 마을이 처한 여건과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평가된 마을수준에 적합한 코칭, 컨설팅 등의 지원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차 례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1. 연구범위 .....	4
2. 연구방법 .....	5
제3절 용어정리 .....	6
제4절 연구추진 과정 .....	8
 <b>제2장 선행연구 고찰과 분석 틀 설정</b> .....	9
제1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1. 최근의 연구동향과 주요 선행연구 .....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제2절 분석 틀 설정 .....	12
 <b>제3장 도농교류의 의의 및 정책추진 현황</b> .....	16
제1절 도농교류의 의의 .....	16
1. 유사용어의 정의 .....	16
2. 도농교류의 등장배경 .....	18
3. 도농교류의 개념 .....	19
4.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및 유형 .....	20
제2절 도농교류의 법률 · 계획 검토 .....	24
1. 도농교류 법률 검토 .....	24
2. 도농교류 계획 검토 .....	29
제3절 국내외 도농교류 정책현황 .....	35

1. 국외 도농교류 정책 .....	35
2. 국내 도농교류 정책 .....	36
제4절 충청남도 도농교류 정책현황 .....	64
1. 도농교류 지원제도 .....	64
2. 도 및 시군 도농교류 추진현황 .....	64
3. 농협 충남지역본부의 도농교류현황 .....	70
4. 농업기술센터 도농교류현황 .....	73
제5절 시군도농교류 정책현황 :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사례 .....	75
1. 추진개요 .....	75
2. 5도2촌 마을 현황 .....	77
3. 추진단계 및 사업내용 .....	80
4. 사업성과와 문제점 .....	88
5. 5도2촌 주말도시 활성화 방안 .....	91
제6절 소 결 .....	92

## 제4장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실태분석 및 의식조사 .....

제1절 조사개요 .....	95
1. 조사목적 .....	95
2. 조사대상 .....	95
3. 조사방법 .....	95
4. 조사항목 .....	96
제2절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조사 .....	97
1. 일반사항 .....	97
2.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 .....	98
3. 주민소득증대 방안 .....	99
4.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	101
5.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05
6. 갈등의 효율적 관리 .....	107
7.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	108
8.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	110
제3절 농촌 및 도시주민 조사 .....	112
1. 일반사항 .....	112

2.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	113
3. 도농교류 실태 및 문제점 .....	116
4.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	119
제4절 조사결과 요약 및 쟁점사항 도출 .....	121
1. 조사결과 요약 .....	121
2. 쟁점사항 도출 .....	126
<b>제5장 충남도 도농교류 정책의 발전방안 .....</b>	<b>128</b>
제1절 기본방향 .....	128
1. 도시와 농촌의 공생 .....	128
2. 사회적 자본의 형성 .....	129
3. 도농의 균형발전 .....	129
4. 마을독자적 문화구축 .....	130
5. 도농교류의 주체별 역할 .....	130
제2절 주요변인별 발전방안 .....	132
1.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 .....	132
2. 주민소득증대 방안 .....	139
3.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	141
4.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46
5. 갈등의 효율적 관리 .....	155
6.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	160
7.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	163
<b>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b>166</b>
제1절 요약 및 결론 .....	166
1. 요약 .....	166
2. 결론 .....	170
제2절 정책제언 .....	171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73
<b>참고문헌 .....</b>	<b>174</b>
<b>부     록 .....</b>	<b>179</b>



# 표 차 례

<표 1-1> 마을현황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설계 내용 .....	5
<표 1-2> 연구방법과 주요연구 내용 .....	6
<표 2-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1
<표 2-2> 농촌체험마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2
<표 2-3>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종합정리 .....	14
<표 3-1> 도농교류의 주체와 대상 .....	22
<표 3-2> 도농교류 유형 .....	23
<표 3-3> 삶의 질 특별법의 도농교류 관련내용 .....	25
<표 3-4> 도농교류촉진법의 기본체계 .....	26
<표 3-5> 법률의 주요 골자 .....	27
<표 3-6>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29
<표 3-7> 선진국과 우리 나라 도농교류 정책 비교 .....	35
<표 3-8> 농어촌체험마을 현황 .....	39
<표 3-9> 농소정협력사업의 유형 .....	43
<표 3-10> 농소정협력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 .....	45
<표 3-11> 최근 5년간 농소정협력사업 참여 현황 .....	46
<표 3-12> 마을단위 농(산)촌개발사업의 현황 .....	49
<표 3-13> 농어촌관광마을 현황(2009년말 현재) .....	49
<표 3-14> 농촌사랑운동의 참여기관별 역할 .....	55
<표 3-15> 1사1촌 자매결연 체결현황 .....	57
<표 3-16> 시도별 1사1촌 자매결연 체결현황 .....	58
<표 3-17>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내용과 사업 지역 .....	59
<표 3-18> 도농교류사업 현황 .....	61
<표 3-19> 농촌체험마을 현황 .....	65
<표 3-20> 시군별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	66
<표 3-21>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시기 .....	67
<표 3-22> 농어체험마을 체험시설 현황 .....	68

<표 3-23> 충남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현황 .....	69
<표 3-24> 충남 팜스테이 마을현황('10년 3월말기준) .....	70
<표 3-25> 충남관내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	70
<표 3-26> 2009년도 자매결연 교류실적 .....	71
<표 3-27> 충남시군별 1사 1촌 자매결연 현황(2010년 7월 현재) .....	71
<표 3-28> 자매결연 교류실적(2009년) .....	72
<표 3-29> 충남농촌교육농장 현황 .....	74
<표 3-30> 5도2촌마을 현황 .....	78
<표 3-31> 5도2촌 주말도시육성사업 내용 .....	85
<표 3-32> 5도 2촌주망도시 시범마을 제공서비스 현황 .....	86
<표 3-33> 도농교류 공급수요 특성분석 .....	88
<표 4-1> 설문항목의 구성 .....	96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7
<표 4-3> 도농교류시설의 존재 및 활용여부 .....	98
<표 4-4> 자매결연 체결여부 .....	98
<표 4-5> 축제개최 시기 .....	99
<표 4-6> 축제 최초개최연도 .....	99
<표 4-7> 축제참여한 도시방문객수 .....	100
<표 4-8> 마을방문한 도시방문객수 .....	100
<표 4-9> 도농교류이후 변화 .....	101
<표 4-10> 사무장 채용 .....	101
<표 4-11> 교육 및 연수기간 .....	102
<표 4-12> 이수연도 .....	103
<표 4-13> 교육횟수 .....	103
<표 4-14> 교육에 대한 만족도 .....	103
<표 4-15>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	104
<표 4-16> 선진마을 견학경험 .....	104
<표 4-17> 선진마을 견학횟수(2009년) .....	104
<표 4-18> 도농교류프로그램 .....	105
<표 4-19>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여부 .....	107
<표 4-20> 마을주민간 갈등 .....	107
<표 4-21> 도농교류사업 운영과정상 장애요인 .....	108
<표 4-22> 도농교류 홍보수단 .....	109

<표 4-23> 마을홈페이지 보유여부 .....	109
<표 4-24> 마을홈페이지 만족도 .....	110
<표 4-25>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여부 .....	110
<표 4-26>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 인지여부 .....	110
<표 4-27>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신청여부 .....	111
<표 4-28>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 .....	111
<표 4-29> 일반사항 .....	112
<표 4-30>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	113
<표 4-31> 도시와 농촌교류 필요성 .....	113
<표 4-32> 도시와 농촌교류 필요정도 .....	114
<표 4-33>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	115
<표 4-34>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 .....	115
<표 4-35> 도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 .....	116
<표 4-36> 도농교류 유형 .....	117
<표 4-37> 도농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관 .....	117
<표 4-38>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평가 .....	118
<표 4-39> 도농교류에 대한 문제점 .....	118
<표 4-40>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주체의 역할 .....	119
<표 4-41> 향후 도농교류프로그램중 활성화 할 유형 .....	120
<표 4-42>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강조되어야 할 분야 .....	120
<표 5-1> 공간적 범위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관련 시설 .....	135
<표 5-2> 태안 뱃가리마을 규약 .....	138
<표 5-3> 공주시 마을축제 개최현황 .....	151
<표 5-4> 농촌관광마을의 갈등원인 .....	156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추진 과정 .....	8
[그림 2-1]	분석의 틀 .....	15
[그림 3-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	21
[그림 3-2]	법률의 구성 .....	28
[그림 3-3]	도농교류협력사업 구성요소 .....	42
[그림 3-4]	농어촌공사 도농교류 조직도 .....	60
[그림 3-5]	도농교류사업 .....	60
[그림 3-6]	시군별 조성현황 .....	65
[그림 3-7]	농촌체험마을 조성시기 .....	68
[그림 3-8]	충남 농촌체험마을 분포도 .....	69
[그림 3-9]	농촌체험교육농장 사업 .....	73
[그림 3-10]	충남농촌교육농장 현황 .....	75
[그림 3-11]	공주시 5도2촌팀 담당업무 .....	77
[그림 3-12]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추진 체계 .....	77
[그림 3-13]	공주시 5도2촌 마을현황 .....	79
[그림 3-14]	공주시 5도2촌사업의 추진단계 .....	80
[그림 3-15]	공주시 5도2촌사업의 추진단계 .....	83
[그림 3-16]	특성화사업 지원 .....	84
[그림 3-17]	마을축제 .....	84
[그림 3-18]	5도2촌 주말도시 네트워크 구축안 .....	91
[그림 5-1]	공주 선학리 지게마을 정비 .....	133
[그림 5-2]	농촌체험마을 공간정비 기본방향 .....	134
[그림 5-3]	마을체험관 .....	136
[그림 5-4]	마을회관 .....	136
[그림 5-5]	마을숙박시설 .....	136
[그림 5-6]	체험장 .....	136
[그림 5-7]	공주시 농촌체험마을과 자매결연 .....	137

[그림 5-8] 농가단위 축제 .....	150
[그림 5-9] 아산거산초등학교 체험학습 .....	154
[그림 5-10] 공주 도령서당 대안학교 .....	155
[그림 5-11]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마을홈페이지 .....	160
[그림 5-12]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마을브랜드 .....	161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 농촌소득원 다각화를 위한 도농교류 활동 확대 추세

농촌은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화<sup>1)</sup>·고령화<sup>2)</sup>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대외적으로는 WTO, FTA, DDA 등의 세계시장 개방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시장이 공격대상이 되면서 경제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sup>3)</sup> 또한, 농촌은 정주에 필요한 기초 시설 및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도시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시장 개방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던 농림어업의 GDP 비중이 1995년 7%에서 2005년 3.4%로 절반정도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전반적으로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 변화 추이에 비교하여 농촌의 일자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sup>4)</sup>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농업중심의 농촌에서 농촌의 소득원 다각화를 위한 농촌관광과 같은 도농교류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도농교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농교류활동이나 농촌관광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개선이거나 농촌의 산업구조 변화까지 충분히 기여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

1) 농촌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미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2005년 현재 인구 2천명 미만인 면 지역은 287개로 전체 면의 23.9%에 달하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558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면 지역의 46.5%에 해당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농업 비전과 전략, 2009, p.363),

2)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전체의 트렌드 속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면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농업 비전과 전략, 2009, p.364),

3) 농촌진흥청,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기본이념과 실천방안 : 새로운 농촌 정신문화 운동의 전개, 2009, p.69.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농업 비전과 전략, 2009, p.391.

농촌의 지역경제 다각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농교류나 농촌관광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08년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의 93.8%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농교류 활동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식품부의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대책(2002)',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 및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 가꾸기 종합대책(200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5개년 기본계획(2005)' 등에서는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 창출, 농촌주민 인적역량 강화, 농산어촌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활성화, 도농교류센터 설치<sup>5)</sup>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고 상생토록 하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해 온 '농촌 관광마을 육성정책(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과 '1사 1촌 운동' 등의 도농교류활성화 정책을 통해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농촌마을과 기업의 실질적 교류촉진을 유도해왔다.

지금까지 도농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농교류의 내용, 도농교류의 형태, 도농교류의 체계성, 도농교류의 지속성·쌍방향성 등이 담보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도농교류 관련법이 여러 부처 10여개 이상 법률에 산재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앙부처의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각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차별화된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민의 농촌투자 활성화, 도농교류 인적자원개발,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법률이 부재했다.

---

5) 도농교류센터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산어촌 관광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농산어촌지역 활력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설립목적은 두고 농촌공사내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농촌의 소득증대 및 사회적 활력증진과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휴양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기존법률에 산재된 도농교류 조항들로 도농교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일법률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농촌체험·휴양, 자매결연 뿐만 아니라 농촌정주지원과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도농교류와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7)’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육성,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도농교류활성화를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도농교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필요

2010년 현재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 수는 총 165개<sup>6)</sup> 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은 양적인 측면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뿐 아니라 최근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과 대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입지적 장점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도농교류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경험하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롭게 마련된 ‘도농교류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도농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청남도 및 시군 차원의 도농교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과 도시의 상생발전에 필요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

6) 녹색농촌체험마을 81개, 어촌체험마을 11개소, 산촌생태마을 24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39개 마을 등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어촌교류촉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남도내 농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도농교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도시-농촌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도농교류정책의 정책방향과 발전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좀 더 구체화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실태·문제점·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이를 조사한다.

넷째, 충청남도 도농교류 정책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한다.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내의 농촌체험마을 즉, 녹색농촌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및 주민의견조사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의 추진위원장, 이장 등으로 하고, 주민의견조사는 공주시 5도 2촌 체험마을 주민과 이들 마을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대전거주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자는 농촌체험마을 대표 90명, 농촌체험마을 주민과 도시지역주민 각90명 등 총270명을 선정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어촌공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추진하는 도농교류 여건, 도농교류프로그램, 홍보, 운영성과, 추진기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도농교류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둔다.

## 2. 연구방법

### 1) 문헌조사

도농교류와 관련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확보, 도농교류와 관련한 법 제도, 도농교류 정책, 국내외 도농교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도농교류에 대한 국내외 논문과 정책보고서에 대한 문헌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는 도농교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헌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농촌관광, 녹색관광(그린투어리즘), 관광농원, 농촌체험관광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의 틀과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도농교류와 관련한 법 제도는 최근 제정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도농교류정책은 농림수산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2) 마을대표 및 주민조사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조사는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반면, 도시-농촌주민조사는 농촌체험마을 주민과 이 마을과 교류하는 도시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조사의 설계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설계하였다.

〈표 1-1〉 마을현황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설계 내용

구 분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조사	도시-농촌주민 조사
조사목적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문제점, 성과분석	도시 및 농촌주민들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이 분석
조사대상	농촌체험마을 마을대표자	농촌체험마을 주민과 도시지역주민
조사규모	농촌체험마을당 1인	농촌 및 도시주민 각90명
조사방법	대표자 면접조사	주민 면접조사
주요 조사내용	분석틀에서 제시한 7개변인 - 도농교류 기반확충 - 주민소득향상 - 전문인력육성 및 주민역량강화 -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 갈등관리 - 지원시스템 구축	-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 도농교류의 문제점 -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조사절차	조사표 초안작성→조사표수정 및 본조사→자료입력 및 분석, 해석	

### 3) 자문위원 위촉 및 도농교류 연구회 운영

도농교류에 대한 연구는 기존 농촌관광, 녹색관광, 농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진행되고 있어 도농교류에 대한 개념 규정, 현장에서의 도농교류 사례 및 애로점,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농교류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마을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설치된 ‘도농교류연구회’를 활용코자 한다.

### 4) 공동연구 수행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했거나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일부내용의 작성을 의뢰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의뢰할 내용은 ‘국내외 도농교류 정책 및 사례’와 ‘기초자치단체(공주시) 도농교류시책 사례’이다.

〈표 1-2〉 연구방법과 주요연구 내용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문헌조사	선행연구, 국내외 도농교류 정책, 도농교류 법제도, 국내외 도농교류사례
마을대표 및 주민조사	마을대표자 : 도농교류 실태, 문제점, 성과분석 농촌 및 도시주민 :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이
자문위원, 도농교류연구회	도농교류개념규정,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정책, 현장에서의 교류사례 및 애로점 등
공동연구	국내외 도농교류 정책 및 사례 기초자치단체(공주시) 도농교류시책 사례

## 제3절 용어정의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 도시

도시의 개념은 학자나 나라마다 다양하여 한 마디로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인구·시설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과 교류하는 주체들인 도시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정의한다.

## □ 농어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항에서는 농어촌을 읍·면지역, 읍·면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부에서 정의한 용어로 정의한다.

## □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관광, 농업관광, 팜스테이, 그린투어리즘 시책을 추진하는 마을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농촌체험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에 한정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 □ 도농교류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농교류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식품부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체험관광 등 교류정책을 비롯하여 개인 혹은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활동과 2003년부터 시작된 농촌사랑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 제4절 연구추진 과정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농교류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현황을 통해 분석하고, 도농교류의 주요정책 및 주요사례를 분석한 다음, 충청남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개선과제 도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관련연구의 동향 및 분석틀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도농교류의 개념정립과 국내외 도농교류 정책현황, 충남도와 시군의 도농교류 시책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추진실태와 주민들의 요구분석, ‘도농교류촉진법’의 주요내용 수용여부 분석 등을 통해 도농교류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충남도 도농교류 정책의 방향과 과제, 추진사업을 제시코자 한다. 제6장에서는 앞장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제언을 한 다음,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상의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단계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
관련연구동향 분석틀 설정	<b>선행연구 차별성 및 분석틀 설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시</li> <li>• 분석틀의 설정</li> </ul>	문헌조사
정책현황 분석	<b>국내외 도농교류 정책현황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 개념 및 필요성</li> <li>• 국내외 도농교류 정책현황</li> <li>• 충남의 도농교류 정책 분석</li> <li>• 공주시 도농교류시책 사례 분석</li> </ul>	문헌조사 공동연구 도농교류연구회
실태 및 의식조사	<b>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의식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분석</li> <li>•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조사</li> <li>• 농촌·도시주민 의식 조사</li> <li>• 문제점 및 시사점</li> </ul>	마을대표 및 주민조사 체험마을 사무장 등 인터뷰 자문위원 도농교류연구회
정책방향과 과제	<b>도농교류 정책의 발전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 정책의 기본방향</li> <li>• 도농교류 정책의 발전방안 제시</li> </ul>	공동연구 자문위원 도농교류연구회

[그림 1-1] 연구추진 과정

## 제2장 선행연구 고찰과 분석 설정

### 제1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 최근의 연구동향과 주요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 도농교류에 대한 몇몇 연구가 등장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농촌 관광의 영역에서 다루어졌거나 혹은 도농교류의 촉진을 위한 정책평가와 개선과제 도출에 머물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전형적인 시장거래활동조차도 ‘도농교류’라는 표현으로 포장되고, 뚜렷한 공익적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농촌방문 행사도 ‘도농교류’라는 명목으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sup>7)</sup>

도농교류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그 기능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어려운 농업·농촌지원’ 등의 막연한 슬로건 하에 도농교류가 하나의 사회적 붐(boom)으로 진행된다면, 자칫 도농교류 그 자체가 향수어린 농촌적 정서만을 자극하고 끝나거나 도시민의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농촌 나들이에 붙여지는 선전구호로서 끝나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8)</sup>

다행히, 최근 녹색관광이나 농촌관광을 포괄하는 광의의 도농교류 개념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분석적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최근의 도농교류와 관련한 연구동향은 첫째, 도농교류의 정책의 평가, 도농교류를 위한 민관협력, 도농교류 제도 및 도농교류활성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이다. 둘째, 대안관광으로 분류되는 농촌관광·녹색관광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이다.

#### 1) 도농교류와 관련한 선행연구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

7)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2008.12, p.13.

8) 오현석·최동주·김정섭·오형은, 도농교류활동의 유형화와 발전방향, 농촌관광의 이론과 실제, 명진씨앤피, 2004, p.94.

안」(김병률 외, 2000),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임상봉, 2004),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의미와 활성화 전략」(유정규, 2005),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김미영, 2008),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배중남, 2008) 등을 들 수 있다.

## 2) 농촌 및 녹색관광과 관련한 연구

본 연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충남발전연구원, 2002),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의 개념과 자생적 발전방안」(강원발전연구원, 2002),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충남발전연구원, 2005), 「지역농업유형을 고려한 경북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대구경북연구원, 2006), 「농산어촌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전북발전연구원, 2006),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06),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방안 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08), 「농어촌테마마을 활성화방안」(제주발전연구원, 2008), 「전남지역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배중남, 2008), 「경남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방안」(경남발전연구원, 2009),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변화와 대응구조」(충남발전연구원, 2009) 등을 들 수 있다.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선행연구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존 도농교류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외국의 도농교류사례를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도농교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농교류의 연구범위가 대부분 전국단위이며 실제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 본 연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도농교류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보다는 유사용어인 그린투어리즘, 농촌관광, 농촌체험관광, 농촌관광마을 등의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농교류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과 시각으로 접근하면서도, 실제 농촌체험마을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표 2-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구분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도농교류 활성화 위한 민간협력방안 (김병률, 2000)	농소정프로그램의 사업효과와 문제점도출, 민간협력체계구축, 도농교류와 협력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발	적합성평가 및 수혜자만족도 조사 현지조사, 담당자 면접 및 설문조사	농소정협력사업의 기본방향 농소정협력주체의 역할분담 농소정협력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자선정 절차, 보조금·지원조건, 사업평가방식 개선 도농교류프로그램 보완 도농교류추진위한 정부지원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 방안에 관한 연구 (임상봉, 2004)	도농교류 수요파악 및 교류활성사 위한 단장기 추진방향과 지원방향 제시	문헌고찰 및 현지조 도시민과 농촌주민 설문조사	도농교류유형화와 이론적 고찰 도농교류 관련정책 및 사업현황 분석 도농교류 수요공급 현황분석 도농교류 관련 DB구축방안 도농교류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민간단체와 협력관 계 구축을 통한 도 농교류 활성화 방 안(김미영, 2008)	도농교류협력사업에 참여 하는 민간단체 협력체계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적, 기능적 지원방안 민간협력체계의 합리적 운영도모	문헌 및 기존자료조 도농교류사업 현장 조사 면접조사 및 설문 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도농교류와 민간협력에 대한 이 론고찰 국내외 도농교류사례분석 민간단체 정책참여 실태분석 민간협력에 의한 도농교류 방안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역할제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배중남, 2008)	강원도(우리 나라)의 바 람직한, 지속가능한, 체계 적인 도농교류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모색	문헌 및 기존자료 조사 선진국 현지조사 면접조사 및 통계 자료 분석 전화인터뷰	강원도 도농교류 정책 및 시책 분석 도농교류우수사례분석 일본도농교류 사례 분석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제 언
본 연구		도농교류라는 보다 포괄 적 개념과 시각으로 접근 하면서, 실제 농촌체험 마을을 대표자를 대상으 로 한 도농교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공동연구	도농교류 정책 검토 체험마을 도농교류 실태, 문제 점, 성과분석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도농교 류 인식 및 차이분석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정책방 향과 발전과제



## 제2절 분석 틀 설정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농촌체험마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코자 한다. 기존 연구로는 임상봉(2006), 이상호(2006), 국회예산정책처(2006), 이승형 외(2006), 이성용(2008), 김한도·손나주(2008) 등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표 2-2〉 농촌체험마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구 분	문 제 점	개 선 과 제
임상봉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어메니티 훼손</li> <li>• 시설위주 사업으로 마을 소득창출 실패</li> <li>• 지도자리더십 부족으로 마을공동경영 실패</li> <li>• 도시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미흡</li> <li>• 도시자본의 농촌경제활성화 기여 미흡</li> <li>• 농촌의 투자 및 정주환경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활성화 여건조성위한 제도적 지원</li> <li>• 도농교류관련 기초정보 제공</li> <li>•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단위 개발 및 네트워크화</li> <li>-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li> <li>- 농산물 가공사업 체계 구축</li> <li>- 농촌관광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li> <li>- 농촌자원으로서 어메니티보전 및 활용</li> </ul> </li> <li>• 도농교류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주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관련 인력육성 및 교육</li> <li>- 농촌주민의 교육방안 마련</li> </ul> </li> <li>• 도농교류 관련사업 추진체계 및 내용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교류센터역할 강화</li> <li>- 지역도농교류지원프로그램 개발</li> <li>- 마을단위사업의 내실화</li> <li>- 농가단위사업의 내실화</li> <li>- 친환경농업단체의 도농교류활성화</li> </ul> </li> <li>• 도농교류 홍보 및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소비자를 위한 홍보, 마케팅</li> <li>- 안정적 수요창출기반 조성</li> </ul> </li> <li>•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li> <li>• 도시와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제정</li> </ul>
이상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리더, 전문인력 및 가용인력 부족</li> <li>• 체험프로그램 운영미숙과 일손부족</li> <li>• 체험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족</li> <li>• 도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체험수요 낮음</li> <li>• 체험을 통한 농외소득 연계 부족</li> <li>• 참여농가 및 지역주민간 의견차이발생</li> <li>• 편의시설 부족</li> <li>•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미흡</li> <li>• 공동취사장 시설 미비</li> <li>• 도농간 교류촉진 및 주요관광지와의 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특화체험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자원형 체험프로그램</li> <li>- 사회인구자원형 체험프로그램</li> <li>- 농어촌관광자원형 체험프로그램</li> <li>- 농업문화자원형 체험프로그램</li> </ul> </li> <li>• 유형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유형별 농촌체험마을 육성</li> <li>-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li> <li>- 농가민박의 등급화</li> <li>- 지역부존자원의 상품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 미흡</li> <li>•농촌체험마을 선정이후 관리체계 미흡</li> <li>•홍보부족으로 방문객 유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눔의 가족만들기형 맞춤형 홍보전략</li> <li>-농촌체험마을과 인근관광자원 네트워크화</li> <li>-농촌체험마을 발전위원회 운영</li> </ul>
국회예산 정책처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은 농가소득 기여</li> <li>•관광매출액 및 관광객의 특정마을 편중</li> <li>•낮은 체험소득 비중</li> <li>•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감소(정체)</li> <li>•사업추진관련 기초자료 관리미흡</li> <li>•실적 부진마을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부재</li> <li>•수요자(방문객)에 대한 관리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마스터 플랜 마련</li> <li>•농촌관광마을사업의 단계적 조정</li> <li>•정부인증제도의 중장기적 도입검토</li> <li>•농촌관광마을 홍보 및 국민참여자 유도를 위한 민간운동 참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li> <li>•교육차원의 장기적 체험활동 가능한 기반 조성</li> <li>•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의 통합추진</li> <li>•민간을 포함한 협의체적 기구 제도화</li> <li>•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종합적, 객관적 실태 조사</li> <li>•사무장제도 지원, 보험료 지원 등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li> </ul>
이승형 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마을 사업 정책적 문제</li> <li>-분산개발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li> <li>-하향적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 편중</li> <li>-통합적 지역개발의 미흡 및 파편화된 개발</li> <li>-확실적 지원으로 지역간 형평성 왜곡</li> <li>-농산어촌체험마을 개발역량 미흡</li> <li>-자치단체 종합적 추진주체 미흡</li> <li>•체험마을 사업운영상 문제</li> <li>-유사사업내용으로 경쟁력 미흡</li> <li>-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부족</li> <li>-체험마을간 네트워크 미흡으로 정보공유 및 학습한계</li> <li>-전문운영자 미흡</li> <li>-체험마을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체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마을 운영활성화</li> <li>- 주민참여 확대</li> <li>- 농산어촌관광 리더육성 및 농촌주민교육</li> <li>- 어메니티 자원활용 및 도농교류활동 도입</li> <li>- 마케팅방안 및 상호연계시스템 구축</li> <li>•농산어촌체험마을 관리방안</li> <li>- 통합적 정책추진 시스템 도입</li> <li>- 관리조직의 일원화</li> </ul>
이성용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중복성</li> <li>•마을지정 및 운영한계</li> <li>•자연환경, 웰빙체험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관광 종합계획 수립</li> <li>•권역별 사업추진계획 마련</li> <li>•마을단위 하드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확충 및 정비</li> <li>•마을리더의 육성</li> <li>•평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li> <li>•홍보정책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li> </ul>
김한도· 손나주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장제도의 지속 어려움</li> <li>•사업비의 초기일시 투자</li> <li>•홍보부족</li> <li>•프로그램 운영부족</li> <li>•교육의 중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스템 구축</li> <li>-조직통합체계 구축</li> <li>-체험마을 예비지정제도</li> <li>-사무장제도 확대</li> <li>-품질관리시스템 도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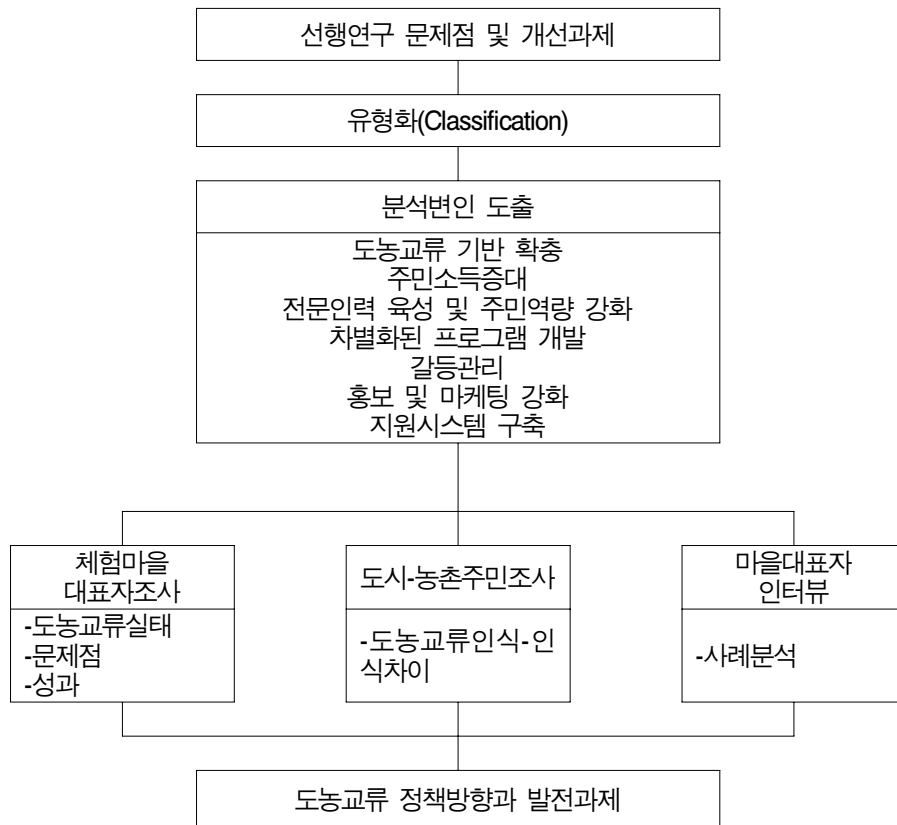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가 및 민박시설 노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교육 강화</li> <li>- 공동마케팅 홍보</li> <li>- 공동운영공간 마련</li> </ul> </li> <li>• 협력 및 내부갈등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간 협력체계 구축</li> <li>- 내부갈등 완화를 위한 메뉴화 작업</li> </ul> </li> <li>• 도농간 교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 광역시/도권의 잠재적 방문객 확보대책 마련</li> <li>- 도농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도 강화</li> </ul> </li> </ul>
--	--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종합검토하여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종합정리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문 제 점	체험마을 기반	농촌어메니티, 정주환경, 편의시설 부족, 공동취사장, 공가 및 민박시설 노후
	소득창출	도시자본, 농촌투자, 체험 통한 농외소득연계부족, 농특산물 판매장 미흡, 낮은 체험소득, 방문객지출금액 감소, 주요관광지간 연계부족, 체험마을간 연계부족
	농촌인적자원개발	마을리더, 사무장제도 지속어려움, 전문인력, 개발역량 부족, 추진주체미흡, 전문운영자 미흡
	체험프로그램	운영미숙, 차별성 부족, 유사사업내용
	갈등발생	참여농가와 지역주민
	홍보 및 마케팅	체험수요, 홍보부족, 수요자 관리
	추진방식 및 관리	선정이후 관리미흡, 분산개발, 하향적 추진, 획일적 지원, 주민참여 부족, 종합적 점검체계 미흡
개 선 과 제	법적·제도적 지원	도농교류촉진관련 법률 제정, 정부인증제도 도입
	도농교류기반 조성	농촌관광기반시설 확충, 어메니티 보전 및 활용, 도농교류센터, 종합마스터플랜 마련, 장기적 체험기반 조성, 공동운영공간
	주민소득증대	농산물 가공사업, 지역부존자원 상품화, 인근관광자원 네트워크화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교육	사무장제도 확대 및 지원, 리더육성, 농촌주민교육
	차별화된 프로그램개발	유형별 특화체험프로그램 개발
	갈등관리	내부갈등 완화를 위한 메뉴화 작업
	홍보 및 마케팅강화	맞춤형 홍보, 민간운동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홍보정책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 공동마케팅
	추진방식 및 관리	농촌체험마을 발전위원회 운영, 협의체 제도화, 관리조직 일원화, 조직통합체계 구축, 평가모니터링시스템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을 종합검토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도농교류 기반 확충 ② 주민소득증대 ③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④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⑤갈등관리 ⑥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⑦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사 및 분석코자 한다.



[그림 2-1] 분석의 틀

## 제3장 도농교류의 의의 및 정책추진 현황

### 제1절 도농교류의 의의

#### 1. 유사용어의 정의

우리 나라에서 '도농교류'라는 용어가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 팜스테이(farm stay), 녹색관광(green tourism), 농촌관광(rural tourism) 등으로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거나 비슷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이것은 도농교류를 다루는 관점이나 그 내용에 따라 매우 폭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 1)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

농업관광은 농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민박제공, 농사체험 등 농업생산 또는 이와 관련된 것을 관광상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농장관광(farm tourism)은 농업관광의 보다 구체적인 실체가 된다. 농업관광형태는 국가와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그 특성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와 같이 농가 단위가 작은 국가에서의 농업관광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민박과 음식 및 농산물 판매행위를 관광대상으로 한다면, 농장 단위가 큰 유럽국가에서는 농장안에서 일어나는 농업관련 생산 및 판매, 승마와 낚시, 워킹, 스포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관광대상으로 한다.

##### 2) 팜스테이(farm stay)

팜스테이란 도시민 등이 기존 민박농가에서 단순한 잠자리만 했던 것과 달리 농가에 머물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으며 영농체험과 농촌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며, 지역명소에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여가형태로서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일석삼조형 농촌체험 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알뜰한 휴가 및 휴양자원제공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3) 농촌관광(rural tourism)

농촌관광은 농촌의 특성(rurality)을 바탕으로 작은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들간의 만남을 중시하는 관광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의 정의에 의할 때 농촌관광은 농업관광의 행태에 추가하여 농촌환경, 자연생태, 농촌생활,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관광의 대상으로 한다. 농촌관광은 작은 농촌지역사회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업인 농업이나 생활문화, 농촌의 경관과 환경 등을 도시민들과의 교류·체험을 통하여 상품화하여 소득을 올리는 관광행태가 된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생활문화까지도 관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관광이나 관광농장보다 넓은 개념을 갖는다.<sup>9)</sup>

### 4) 녹색관광(green tourism)

영국(1997)에서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할 경우 ‘그린(green)’은 단지 ‘푸름(綠)’이나 ‘자연(自然)’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생명의 존중, 자원의 적정이용, 다양함의 평가, 또는 모든 생물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인식이 ‘그린’개념의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여러 가지 대상(예를 들면, 농업이나 환경 등)의 이해, 자기행동의 도덕성, 나아가 문제의 접근방법까지,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관이나 생활양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치관, 자세, 규범에 따라 농촌지역과 도시를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10)</sup>

우리 나라 농림부는 녹색관광(그린투어리즘)을 농산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잠정 정의하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산촌에는 농산물판매, 가공특산물 생산·판매, 관광·음식물 판매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관광, 팜스테이, 농촌관광, 녹색관광 등은 농촌과 도시

9)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41-142.

10) 강신겸·김정연, 녹색관광, 일신사, 1997, p.27.

11) 농림부, 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 2001,p.26.

간의 교류라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도농교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농업·농촌·녹색관광이 농촌주민의 소득향상 기회 제공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해, 도농교류는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도시-농촌 상생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이들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도농교류는 지역자원의 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의 활성화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인적교류에서부터 농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들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12)</sup>

## 2. 도농교류의 등장배경

계속되는 농촌의 어려움과 도농격차의 심화는 농촌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농촌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농업·농촌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농촌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도농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물적지원이 중심이 된 정책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 농촌의 인프라 확보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농촌의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촌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어 농촌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과거 식량공급기지로 한정된 농촌의 가치는 최근 들어 도시민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각각의 특성이 서로 다른 도시와 농촌이 상호교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도농교류의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도농교류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관광농업사업’ 등을 시작, 1999년부터 추진된 ‘농소정 협력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속시행되어 왔다.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비롯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마을가꾸기 사업들도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4년부터는 한국농촌공사에 ‘도농교류센터’가 설치되어 도농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농촌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13)</sup>

12) 임경수, 도농교류의 현황과 과제, 계간 농정연구, 통권제14호, 농정연구센터, 2005, p.117.

### 3. 도농교류의 개념

교류(interchange)라 함은 사전적 정의로서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받는 것’ 또는 서로 다른 무엇과 무엇이 접촉하는 것(中川聽七朗, 2003)을 뜻한다. ‘무엇인가’가 있고 이것을 서로 주고받거나 접촉하는 상황이 교류라고 하면, ‘도농 교류(urban-rural interchange)’는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거나 접촉하는 주체가 도시민과 농촌 주민인 셈이다.<sup>13)</sup>

그러나 ‘도농교류’가 농촌의 경제적·문화적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도농교류센터가 설립되기까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도농교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김병률(2000)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매력요소를 교환함으로써 서로간의 결핍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동등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혹은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 송미령(2003)은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농공학회(2003)는 도시와 농촌간의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농촌연구원(2006)은 도농교류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농촌의 활성화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류에서부터 농산물이나 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므로 녹색관광이나 농촌관광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유정규(2006)는 상호대등/호혜의 원칙 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 의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람, 물건, 정보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7)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13) 민승규, 농촌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7, pp.5-8에서 정리

14) 임상봉,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공사, p.7.



이상에서 살펴본 도농교류 개념의 핵심단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매력 교환, 동등차원 관계, 공생관계, 상호만족, 양방향교류, 반복교류, 지속교류, 인간적 신뢰, 네트워크, 자매결연, 상호보완, 상호대등/호혜, 교환, 경제적 상품/서비스거래, 상호작용, 인적교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의 교환, 거래, 제공, 사람들 접촉.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빈복적, 지속적 교환

따라서, 이러한 핵심단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농교류는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도농교류는 상품·서비스·자본 뿐 아니라, 사람·정보·문화의 교류이다.

셋째, 도농교류는 양방향, 반복, 지속, 상호대등/호혜에 기반한 교류이다.

넷째,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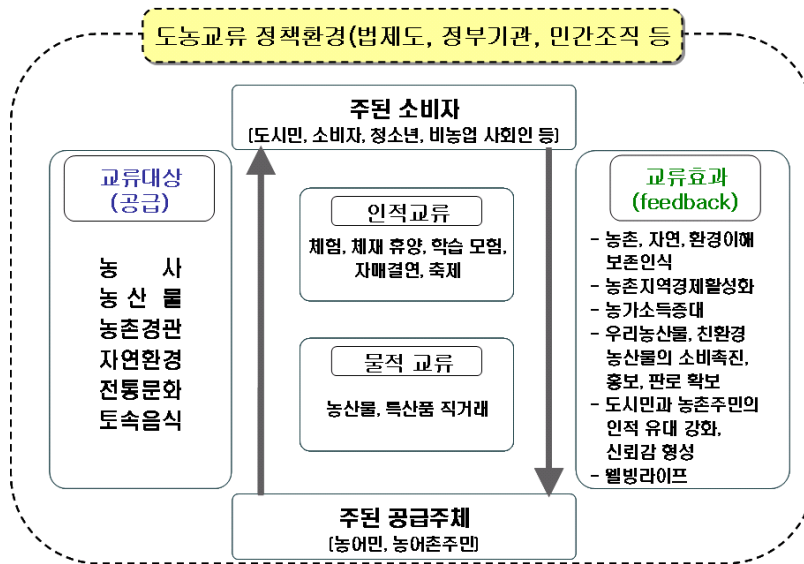
## 4.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및 유형

### 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도농교류의 구성요소는 수요자로서의 도시민과 공급자로서의 농업인 및 농촌주민이라는 교류주체와 농작업, 농산물, 농촌경관, 전통문화와 지역특산물 등과 같은 교류유인요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활동 및 과정, 그리고 교류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농교류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도농교류 정책환경이다. 여기에는 각종 법제도, 도농교류 관련 정부기관, 도농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조직 등이 포함된다.

도농교류가 성립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교류주체와 교류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류주체로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공동사회를 살펴보면, 우선 농촌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며, 농촌내의 단체로서 각종 기업,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농협, 산림조합, 상공회, 관광협회, 소방단,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린이회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 그룹이 존재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의 교육기관과 병원·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나아가 사찰과 교회 등도 존재하고 있다.



자료 : 김미영 외,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2008.12,p.29.

[그림 3-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도시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개개인의 주민이 다수이며 이들은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속해 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있으며 또 의회,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소비자단체, 소방조직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가 농촌에 비하여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도 다종·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농촌과 도시의 공동사회를 상호연결하는 것이 교류라고 규정한다면 교류주체의 짝짓기는 무수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촌도 도시도 교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의 폭도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측이 교류를 추진하려는 경우 특히, 교류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대방으로 좁히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또한 그런 선택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농촌 측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농촌내부에 있어 교류주체를 설정해야 하며, 둘째, 도시 측의 교류주체를 확실히 선택하며, 셋째, 어떠한 교류내용을 택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들 세가지 요소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측의 교류주체 설정에는 각 지역의 사정과 지역자원의 내용, 지역주민의 의향과 의욕정도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어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오래된 관습

과 제도에 젖어있지 않은 새롭고 신선한 주체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이다.

한편, 농촌 측이 도시 측의 교류주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주체 구성원의 다수, 다양함을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창구(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과제이다. 핵심은 교류의 상대(주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있으며, 제대로 된 교류상대의 선택을 통해 교류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류대상은 도농교류의 주된 목표를 농촌의 활성화로 삼을 때 수요·공급의 관계는 도시가 수요자이고 농촌은 주로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민의 요구를 염두에 둘 때 농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곧 교류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관계 및 내용은 <표 3-1>과 같다. 여기에 나열한 교류대상의 내용은 농촌에서 기대되는 기본적 요소들이며 이들을 다 갖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히 강조할 만한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3-1〉 도농교류의 주체와 대상

구 분	주 요 내 용	
교류주체	농촌 공동체	농업자와 비농업자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농촌내의 단체로서 각종기업,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농협, 산림조합, 상공회, 관광협회, 소방단,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린이회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 그룹이 존재
	도시 공동체	개개의 주민이 다수이며 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속해 있음. 기업과 노동조합이 있으며 또 의회,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소비자단체, 소방조직 등의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가 농촌에 비해 훨씬 많이 존재
교류유인 요소	건강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경관, 농촌다움(정서적 요소-소박함, 정다움), 오래된 문화·전통·예술, 체험(농작업, 스포츠, 산림욕), 먹거리, 특산물, 친절한 응대, 청결한 환경, 여유와 평안함	

자료 : 김미영 외,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2008.12, p.31.

## 2) 도농교류의 유형

도농교류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상배(1995)는 농산촌공간의 활용, 산업적 교류, 교육문화교류, 애향운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병을 외(2000)는 도농교류의 유형을 체제휴양형, 지역축제형, 테마관광형, 자매결연형, 청소년학습형, 직거래형,

주말농원형, 농업농촌체험형 등 8가지로 나누어서 1999년 농소정협력사업의 성과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임상봉(2004)은 인적교류, 물적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휴양·여가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2〉 도농교류 유형

연구자	도농교류 유형	비 고
이상배 (1995)	농산촌공간의 활용	유흥농지의 생산적 활용, 저수지 및 농업용수로의 활용, 농로·산책로 및 근교도로의 이용
	산업적 교류	생산물판매(아침노천시장개설), 협동경영(산지, 목장), 노동력 활용
	교육문화교류	문화교실 개설, 축제·스포츠행사 교류
	애향운동	애향운동
김병률 외(2000)	체재·휴가형	민박, 관광농원 중심의 숙박 및 견학, 농협 팜스테이
	지역축제형	농산물 및 특산물 축제, 환경축제, 테마축제
	테마관광형	테마파크, 테마마을, 테마농업관광, 테마공원
	자매결연형	지자체간 자매결연, 도시부녀회와 지역농협부녀회 또는 마을과의 자매결연, 1사1촌자매결연
	청소년체험학습형	농업체험학습장, 어린이농촌체험교실, 도시어린이 농촌체험문화캠프, 가족동반체험학습, 현장체험학교, 도농기정간 자매결연과 교환학습
	직거래형	농민장터, 도농직거래(공동구매)
	주말농원형	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주말농원, 농도불이과수원, 농도불이 목장
임상봉 (2004)	농업·농촌체험형	도시주부 및 도시민들의 일손돕기, 수확구매, 친환경농업체험
	인적교류	자매결연, 1사1촌운동, 연수·강좌개최, 고향방문행사, 자원봉사 및 일손돕기,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귀농 및 외지인 및 제2고향찾기
	물적교류	산지직거래, 인터넷 농특산물 판매, 농특산품 및 공예품 판매, 농업위탁경영 및 계약재배, 휴양단지 및 별장분양, 농작물·과수·가축분양, 땅 및 주택매매, 외지인 사업경영 및 투자
	교육·생활·문화체험	환경농업교육, 농사수확 및 농장체험, 농촌자연학습 및 체험학교, 바른 식생활캠프, 역사문화탐방 및 전통체험, 농촌생활 및 문화체험, 종업 및 지역산업 현장견학, 지역·마을축제 및 행사개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휴양·여가활동	농촌관광, 관광농원, 주말농원, 실버농원, 농촌지역테마관광, 민박·펜션운영, 낚시·등산·야영, MTV·ATV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농촌 공사 (2008)	자매결연형	1교 1촌운동, 제2고향 갖기운동, 고향방문행사, 자원봉사, 일손돕기,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상품거래형	농산물 직거래, 지역특산물 거래, 토지·주택 거래, 개발투자 상품거래
	농촌문화교육형	환경농업교육, 농사체험, 농촌자연학습, 생활문화체험, 전통체험교육
	농촌관광형	농촌휴양, 주말농장, 농촌테마관광, 농촌지역축제

한편,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공사(2008)에서는 도농교류의 유형을 자매결연형, 상품거래형, 농촌문화교육형, 농촌관광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매결연형은 사회적 교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 1사 1촌운동, 제2고향갯기 운동, 고향방문행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의 순환지원, 일손돕기 등이 있다. 상품거래형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및 특산물거래, 농지나 주택의 거래, 농촌지역 개발 투자 상품의 거래 등이 있다. 농촌문화교육형은 농촌의 생활문화 및 환경에 관한 교육으로 전통체험교육, 농사체험교육, 농촌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공급과 도시민의 향유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농촌관광형 도농교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촌휴양관광이나 농촌체험관광을 들 수 있다.

## 제2절 도농교류의 법률·계획 검토

### 1. 도농교류 법률 검토

#### 1)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 ‘농림어업인의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는 5년마다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수립시 농산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교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교류시책으로서 농산어촌 관광개발,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어촌 체험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적규제를 완화할 것과 시설 투자비용의 일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도 도농교류사업 지원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3〉 삶의 질 특별법의 도농교류 관련내용

목 적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균형발전 ○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의 종합적, 체계적 개발
기본이념	→	○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 해소 및 교류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주민의 균등한 생활, 농산어촌의 지속발전 도모
정책과제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농산어촌지역개발수립에 도농교류 촉진사항 포함)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
정책수단	→	○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농산어촌 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 농산어촌 관광마을의 육성 ○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체험 장려 ○ 농산어촌투자활성화 ○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 조건불리지역 도농교류사업 지원
정 책 추진체계	→	○ 농림수산물부 : 농어촌특별세 ○ 지자체 : 정책수단 세부시행방안 수립 및 시행

## 2)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1) 제정배경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05.4)에서 2006년까지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에서는 농촌관광육성을 주내용으로 하는 ‘농촌관광촉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05.4)에서도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여 도농교류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제안되었다.

또한, 도농교류 관련사항이 여러 부처에 걸쳐 10여개 이상의 법률에 산재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즉,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문화휴양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기본법 등에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혼란스럽고 중앙부처간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각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도농교류사업을 뒷받침할 법률의 미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도농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자원과 인근지역의 자원을 공유하거나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농촌투자 등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행 법률체계 및 제도상으로는 이를 적절히 연계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속적인 도농교류활성화에 필요한 농촌개발, 인적자원 육성, 농촌투자유치, 농촌정주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법률이 부재하다.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도농교류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육성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없으며, 농촌투자는 삶의 질 특별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도농교류가 결과적으로 농촌정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sup>15)</sup>

## (2) 기본체계

2008년부터 시행중인 도농교류촉진법의 기본체계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 기본이념, 정책과제, 정책수단, 정책추진체계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3-4〉 도농교류촉진법의 기본체계

목 표	→	국가의 균형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 도시민의 자연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휴양수요 충족
기본이념	→	○ 도시와 농어촌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도농상생 도모
정책과제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 도농교류협력활동 활성화 ○ 도농교류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정책수단	→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및 운영지원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의 평가 ○ 농어촌체험교육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제도 운영 등 ○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및 농어촌정주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 제공 등 농어촌 정주지원 등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
정 책 추진체계	→	○ 농림수산식품부 :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 총괄 및 지원 ○ 지자체 : 정책수단 세부시행방안 수립 및 시행

15)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공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8.7, pp.17~18.

### (3) 법률의 구성

도농교류촉진법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 등 크게 4개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육성·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타법 적용배제 및 특례(공중위생관리법 적용배제 등), 시장·군수의 지도·점검과 지원·관리

둘째,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농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협력활동지원,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의 평가,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농어촌정주 지원,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등

셋째,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도농교류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선발·활동, 도농교류전문인력,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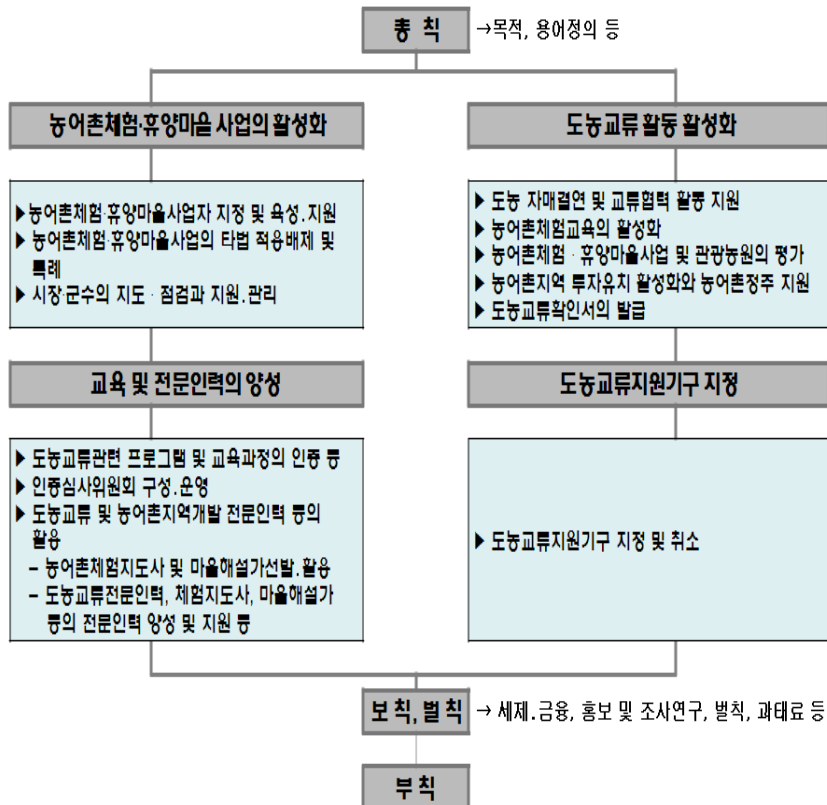
넷째,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취소 등

〈표 3-5〉 법률의 주요 골자

구 분	주 요 골 자	조 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및 육성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주민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홍보, 도시민 유치, 기반정비, 보험 또는 공제, 경영지원, 조사·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법제5조· 법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도 점검 및 관리	시장·군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 개선명령, 사업정지 및 사업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법제7조 법제11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타법 적용배제 및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시설 기준에대한 특례의 적용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법제8조· 법제10조
도농교류활동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12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평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고 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법제13조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국가 및 지자체는 유치원의 원아 및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법제14조
도농교류확인서 의 발급	농어촌마을에 대한 기부와 체험 및 봉사활동에 대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농교류확인서 제도를 도입함	법제15조
농어촌지역 투자 유치 활성화와 농어촌 정주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지역사업 투자 및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또한 도농교류센터에 농어촌지역투자유치와 지원기능을 부여함	법제17조 - 법제19조
도농교류 교육과 정의 인증	도농교류·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육과정개발을 촉진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17조 - 법제19조
도농교류 및 농 어촌지역개발 전 문인력 활용	도농교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농어촌지역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도·자문,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의 지도, 농어촌마을의 역사전통·문화해설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함	법제20조
도농교류지원기 구 지정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확대, 농어촌 투자유치와 도농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21조 - 법제22조



[그림 3-2] 법률의 구성

#### (4)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도농교류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등</li> <li>•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li> <li>• 도시민의 농어촌이주 및 정주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li> <li>• 민간차원의 도농교류 지원기구를 지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여 도농교류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정제도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li> <li>•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안전, 위생교육 등의 시행기준</li> <li>•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li> <li>•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절차와 인증기준</li> </ul>

## 2. 도농교류 계획 검토

### 1) 제2차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5개년기본계획((2010~2014)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하여 매5년마다 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5년 4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5개년 계획에서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4대분야 133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7개 부문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도농교류와 관련한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휴양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도농교류 생활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 사회·경제활성화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농가·마을·거점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 단위에는 농어촌체험테마공원, 어촌관광단지, 산림휴양시설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계 운영한다. 마을단위로 농어촌의 경관과 문화·역사, 생

태자원, 농어업자원·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한다. 농가단위에는 체험과 산업, 교육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가형 체험관광을 조성한다.

둘째, 도시형 도농교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도시 입지 도농교류 거점으로 '도농교류 안테나 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녹색성장의 실천을 생활하기 위한 도시농업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셋째, 농어촌체험·휴양 서비스업 고도화하고 다각화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육성하고 브랜드화한다. 체험·휴양사업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농교류형 '농어촌 공동체 회사'로 발전토록 유도하고, 슬로시티를 국제적인 농어촌 관광상품으로 발전 유도한다.

넷째, 도농교류·1사1촌운동 심화를 위한 도농교류 문화운동의 저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시민,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농어촌 환경·문화·경관보전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1사1촌 운동을 1사 다촌, 다사1촌으로 다양화하고 농산물 소비, 자원보전활동과 연계발전시킨다. 초·중·고등학교의 농어촌체험·교류사업을 확대하고 도농교류 수요창출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농상공 자율적 신뢰협력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문화 형성을 유도한다.

## 2) 도농교류 5개년 계획(2010~2014)

### (1) 개요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12월 1일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비전하에 도농교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07년 제정된 「도시와농어촌교류촉진법」에 근거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교류사업을 '도농상생'이라는 비전하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계획은 도농교류의 생활화, 농어촌 체험·휴양기반의 브랜드화, 도농교류 인적자원 양성, 도농교류의 글로벌화라는 4대 추진전략과 1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 도농교류정책 추진현황

- ◆ (도입기, '84~) 농외소득정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농원 추진
- ◆ (확대기, '02~) 체험마을 활성화로 도농교류 양적 확산
- ◆ (성장기, '08~) 도농교류촉진법 시행으로 제도적 뒷받침

- 1984년부터 농촌소득원으로 관광농원, 농어촌휴양사업 도입
  - 농어가의 농외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농어촌휴양지 개발 도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등 근거자료
  - 관광농원(1984), 민박(1993), 주말농원(1994) 등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
- 2002년부터 마을단위 「농어촌체험관광 도입, 삶의 질 향상법(2004)」에 도농교류활성화 시책 추진근거 마련
  - 체험마을, 테마공원, 어촌·어항관광개발 등 하드웨어 사업 추진
  - 농어촌체험 및 도농교류의 홍보·마케팅, 주민역량 강화, 체험마을 사후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 1사1촌 운동 등 민간차원 도농교류운동 추진(2006-)
- 2008년 도농교류촉진법 시행으로 질적 성장 도입단계에 도래
  -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육성, 체험교육 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도농교류지원지구 지정 등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 (3) 도농교류 정책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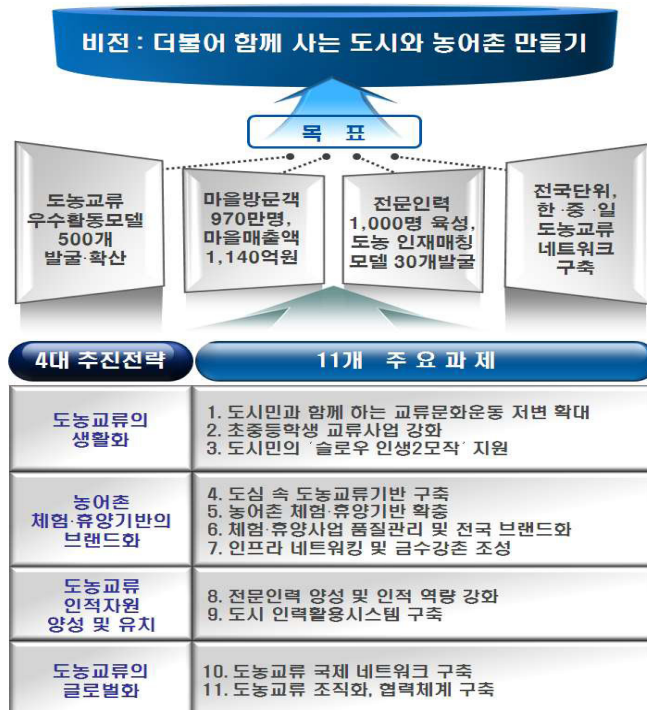
- 성과는 농어촌 공간에 대한 인식전환, 도농교류 여건 조성
  - (과거) 식량생산 공간 → (현재) 휴양 등 다원적 공간
  - 체험·휴양경험 증가, 인프라 확대, 제도적 기틀마련
- 미흡한 점으로 양적확대 대비 질적 성장 미흡
  - 도농교류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 조직화 부재, 인프라 질 저하
  -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 저조

#### (4) 도농교류 트렌드 및 시사점

-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 개방된 세계시장, 가격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선택기준, 농업생산은 토지이용에서 자본·기술·지식, 자원의 지속가능성 중시
- 농어업·농어촌 메가 트렌드에서 본 도농교류 트렌드
  - 크게는 글로벌화·자원·환경을 중시, 작게는 건강·가치·여가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반영

#### (5) 도농교류 정책방향

□ 도농교류 정책비전 및 전략



## □ 도농교류 사업의 추진방향

### ○ 지역주도의 도농교류 지원체제로 개편

- 중앙정부는 전국단위 교류네트워크 및 타 부처 협력체계 구축, 도시에 효과적 정보 전달, 모니터링 및 평가에 중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게 도농교류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및 추진

### ○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등 소득사업과의 연계강화

- 민간, 지자체, 부처연합, 민·관 연합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활동 전개

- 농어촌에 있는 음식, 문화, 예술, 체험·휴양정보를 결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 창출

- 각 부처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을 연계, 시너지 효과 제고

## (6) 세부추진계획

### 가. 도농교류의 생활화

#### a) 도시민과 함께하는 교류문화운동 저변 확대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교류문화운동 저변확대
- 도시민, NPO와 연계한 농어촌 환경·문화·경관자원 보전활동 추진
- 농어촌 공동체 복원 등을 소재로 한 문화·경관자원 발굴·활용
- 1사1촌 운동을 농산물소비, 다양한 상호협력활동으로 발전유도
-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대상에 인센티브 제공

#### b) 초등학생 교류사업 강화

- 초중등학생 농어촌체험 교육활성화 방안 마련(2010-)
- 장기 체류프로젝트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추진(2010-)

#### c) 도시민의 슬로우 인생2모작 지원

- 농어촌 정주의향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시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지원
- 농어촌에서 슬로우 인생2모작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수요창출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지원까지 연계·협력 추진(2010)

## 나. 농어촌체험·휴양기반의 브랜드화

### d) 도심속 도농교류 기반 구축

- 대도시에 농어촌을 홍보할 '(가칭) 도농교류 안테나숍' 설치, 운영
-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모델 발굴·확산

### e)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 지역교류거점 조성 및 연계육성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의 내실화
- 낙농 체험관광목장, 승마장, 교육농장 등 농가형 체험관광 조성

### f) 체험·휴양사업 품질관리 및 전국브랜드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향상 유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육성 및 전국브랜드화(2010-)
- 체험·휴양사업을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로 육성·지원하여 도농교류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설립유도

### g) 인프라 네트워킹 및 금수강촌 조성

- 농가·마을·지역거점형 농어촌체험·휴양 인프라의 연계
- 도농교류, 지역개발, 농식품산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패키지하여 지역종합모델로 추진하는 금수강촌 조성

## 다. 도농교류 인적자원 양성 및 유치

### h)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역량 강화

- 체험 지도사, 마을 및 바다 해설가 등 전문인력 육성·활용
- 도농교류를 주도해 나갈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역량 강화

### l) 도시의 인력활용시스템 구축

- 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각계각층의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2010)
- 도농교류 분야 취업 체험 및 인력교류시범 추진(2011-2014)

## 라. 도농교류의 글로벌화

### j) 도농교류 국제네트워크 구축

- 한중일 등 국제 도농교류 민간네트워크 구축, 교류추진
- '2012년 농어촌 방문의 해' 선포, 농어촌체험·휴양의 글로벌화 본격 추진

### k) 도농교류 조직화, 협력체계 구축

- 전국 도농교류 협의체 구성, 도농교류 활동 조직화
- 관계부처간 도농교류 협력체계 구축, 협력사업 추진

## 제3절 국내외 도농교류 정책현황

### 1. 국외 도농교류 정책

선진외국의 도농교류는 농촌관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농균형발전, 농업농촌가치보존, 고용창출 및 여가제공 수단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1960년대 일부 농가에서 경영다각화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시작하여 하였고,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농촌관광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농가경영 다각화 차원에서 추진중이고, 일본은 1990년대 지역전체의 소득유지 확보차원에서 농촌관광진흥도모, 법제정 이후 도농 교류차원에서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표 3-7〉 선진국과 우리 나라 도농교류 정책 비교

구 분	유럽(영·프·독)	일 본	우리나라
단 계	질적 발전단계	질적 도입단계	양적 성장단계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관광으로 시작</li> <li>· 농가 경영 다각화</li> <li>· 전국 조직화, 네트워크</li> <li>· 일반관광부문과 경쟁 (시장점유율 20%수준, 외국인 고객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관광 → 도농교류 발전</li> <li>· 지역 소득유지·확보</li> <li>· 전국 조직화, 네트워크</li> <li>· 범부처간 연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관광 → 도농교류 발전</li> <li>· 농외소득 향상 도모</li> <li>· 전국단위 조직 없음</li> <li>· 마을공동사업 위주</li> </ul>
주 된 운영주체	· 개인>민간조직> 지방정부>중앙정부	· 지방정부>개인(마을)>민간조직>중앙정부	· 중앙정부>지방정부>마을(개인)>민간조직



제도적 장치	· 농업관련법 * 농촌관광활동을 농업활동으로 인정	· 농산어촌체재형여가활동촉진법 제정('95), 농촌휴가법 등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07) 농어촌정비법 등
공공부문 역할	· 시설투자 보조 및 융자 · 직업훈련 및 교육 (관련비용 50~100% 보조)	· 시설 설치 지원 · 소프트웨어분야 지원 (농업체험지원, 교육, 인재활용 등)	· 시설 보조 및 융자 · 소프트웨어분야 지원 (정보제공, 홍보,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민간부문 역할	· 농업인 > 은퇴자 · 민간조직 설립·운영  · 민박농가 등록·관리, 품질인증, 홍보, 경영상담, 조언, 기술교육, 연구, 정책제안 등	· 농업인 > 은퇴자, 귀촌인 · (재)도시·농산어촌활성화교류기구 전담  · 컨설팅, 정보제공, 시설운영지원, 연수, 농가민박 등록제 운영, 인재육성, 홍보 등	· 마을 > 농업인, 귀촌인 · 민간전담조직 없음 α. 도농교류센터 · 1사촌 운동, 홍보, 주민 교육 등 산발적 추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5개년계획(2020-2014), 2009.11, p.7.

## 2. 국내 도농교류 정책

### 1) 정책의 개요

198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농외소득증대방안의 하나로써 농촌관광을 적극 장려해 왔다. 농정의 방향이 이른바 '개방농정'으로 전환됨으로써 전통적인 가격지지정책은 철회되었고, 따라서 농업소득 지지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농외소득의 증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농촌관광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sup>16)</sup>.

국내 도농교류 정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관광농원(1984), 휴양단지(1989), 민박마을사업(1991)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의 틀 내에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사업,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농촌민박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관광개발정책은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수용능

16)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촌공업화(농공단지, 부업단지, 농산물가공공장 조성)와 관광소득원개발(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민박마을 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증대 → 농업소득의 보완 → 농가소득보전'이라는 구도 하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개방농정의 보완대책’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정책효과의 달성은커녕 많은 부작용만 남긴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sup>17)</sup>

1999년부터 농·소·정협력사업<sup>18)</sup>이 시작되면서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고, 충청북도, 강원도, 순창군, 무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도농교류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sup>19)</sup>

2000년대 들어 중앙부처의 도농교류 정책들은 그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어 왔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공동화, 농가경제의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화하게 된 것이다. 농업경영과 농촌지역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었지만 농업·농촌이 가진 다면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주5일 근무제와 주5일제 수업의 실시, 국민연금제의 확대시행 등으로 일반국민의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여가의 소비패턴도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중관광(mass tourism) 보다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특히 농촌을 찾고자 하는 이른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위축 속에서도 도시와의 관계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의 활력이 증대되는 지역이 나타나는 등 농촌지역 내부의 불균등발전도 심화되었다. 농업발전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보다는 지역 내 혹은 인근지역의 2·3차 산업발달 정도에 따라 농촌의 유지·발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자 농촌개발은 곧 산업화를 위한 입지개발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고속

---

17) 대표적인 농촌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농원지원사업은 총 551개소(2002년까지)가 지정되었으나 경영부실로 157개소가 취소되고 34개소는 공사 중이며 24개소는 휴업상태로 전체의 39%는 운영부실 및 사업부진 상태에 놓여 있다. 1989년부터 추진되어 온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총 9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곳은 3곳뿐이며 나머지는 아직도 분양중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1991년부터 시작된 ‘민박마을’조성사업 역시 286개마을이 지정(2002년 말까지)되었으나 대부분이 관광지 주변의 단순 민박형태로서 농촌지역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유승우·민상기(1997),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정규(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계간 농정연구』 2003년 겨울호), (사)농정연구센터 참조

18)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 35개 단체를 1999년 사업자로 선정하여 도시민들이 농업인과 직접 교류하는 농촌현장체험, 도시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관찰용 벼포트 지원, 우리농산물 소비기반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와 직거래사업,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사업, 국민실천운동 등 다양한 사업 지원.

19) 김병률 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C20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

도로나 철도 혹은 대도시 인근 등 산업화가 가능한 농촌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 상 산업화가 불가능한 원격지 농촌지역에서는 이들 지역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역의 공동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외부와의 교류나 외부인의 이·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촌개발을 둘러싼 주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 특히 원격지의 여건악화를 개선하고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증대를 동시에 고려한 농촌개발전략으로서 농촌관광 혹은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의 이면에는 첫째, 농업발전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둘째, 농촌지역 내부의 힘만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고사하고 지역의 공동화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즉,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농촌내부에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변화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에 따라 농촌을 찾고자 도시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조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고유의 농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Amenity)을 정비·보완함으로써 도시민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업을 도시민의 식품안전 요구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 환경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며, 농민이 농촌관광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도시민은 도농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족한 녹지, 협소한 주거공간, 만성적인 교통체증 등 도시생활의 불만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성 등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농민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을 만들어가며 이를 통해 일정한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도농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도농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대부분 아파트부녀회와 특정 농촌마을간의 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팔아주기 혹은 지역축제를 활용한 도시민 초청행사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도시소비자조직의 활성화에 따른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조직간의 직거래가 확대되면서 도농교류가 질적으로

나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정책적인 관심으로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에는 농협이나 지자체에서도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커짐으로써 이 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이 규모 있게 추진되기에 이르렀으며, 1999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단체는 물론이러니와 새로운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 농민단체들도 도농교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 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2000),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2002),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2002),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2001),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1996), 농협 ‘팜스테이마을’(1998) 등 농촌관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도농교류도 크게 확산되었다.

〈표 3-8〉 농어촌체험마을 현황

사업명	주관부처	사업기간	'09 현재 마을수	사업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2002-2017	364개	2억
전통테마마을	농진청	2002-2009	160개	2억
어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	2001-2013	95개	5억
아름마을가꾸기	행정자치부	2002-2003	23개	10억이상*
산촌생태마을	산림청	1996-2012	153	14억&16억

주: 아름마을가꾸기는 2002년, 2003년 시행하였고 이후는 시행하지 않음.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이 마을단위로 추진되기 때문에 도농교류의 형식도 과거의 개인중심에서 마을이나 지역중심으로 바뀌었으며 내용적으로도 단순한 1회성 방문·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등 지역에 따라서는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사례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화천 신대리(토고미마을)나 충남 홍성 문당리, 경기 이천 부래미마을 등과 같은 경우는 도농교류를 매개로 도시민과 지역주민간에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된 직거래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전망이 밝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부터는 도농교류사업을 ‘농촌가꾸기 추진대책(2004.1)’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05.4)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이른바 도농상생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와 축제 발굴, 관

광상품 개발, 지역 특화전략 마련 등 지역의 독자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신활력사업(2005)을 추진하였다. 한편,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확산과 도농상생을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을 농협 등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를 농협과 전경련 주도로 발족하였다.

2007년에는 이러한 도농교류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써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촉진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도농교류촉진법'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육성,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도농교류활동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 지원기구 지정 등 도농교류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도농교류관련 정책의 추진경과

- ▶ (도입기) 1984년, 1990년대: 농외소득정책의 일환으로 농촌관광도입
  - 1984: 농외소득일환으로 농촌관광농원사업 도입
  - 1990: 농어촌휴양지개발 도입(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90.12)
  - 1993: 농어가 소득창출을 위해 민박 농어가 지정·육성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93.6)시 근거마련
  - 1994: 농어촌 휴양사업(관광농원, 휴양단지, 주말농원,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정('94.12)
  - 1999: 농·소·정협력사업(농민, 소비자단체 등 민간참여)
- ▶ (양적 확대기) 2002~2007: 도농교류의 도입 및 확산기
  - 2002: 도시자본 농촌유입 대책마련('02.2), 녹색농촌·어촌체험마을사업 시작
  - 2003: 농촌투자유치센터 설립(한국농어촌공사 내)
  - 200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시행('04.6)
    - 도시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종합대책 수립(BH지시사항)
    - 도농교류센터 설립,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시행
  - 2005: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마련('05.4)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마련(도시민 농어촌 정주지원 중심, '05.12)
    - 농산어촌 체험마을 관계부처 통합지침 마련('05.12)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1사1촌 운동 추진,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설립('06)
  - 2007: 도농교류촉진법 제정('07.12), 테마공원조성사업 시작
    - ('06년 수변공간정비사업)
- ▶ (양적 성장기) 2008~: 제도적 기틀 마련, 질적 도입기로 양과 질의 조화 필요
  - 2008: 도농교류과 신설('08.3~'09.4), 도농교류촉진법 시행('08.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5개년계획(2020-2014), 2009.11, p.25.

## 2) 주요 도농교류정책 현황

### (1) 농소정 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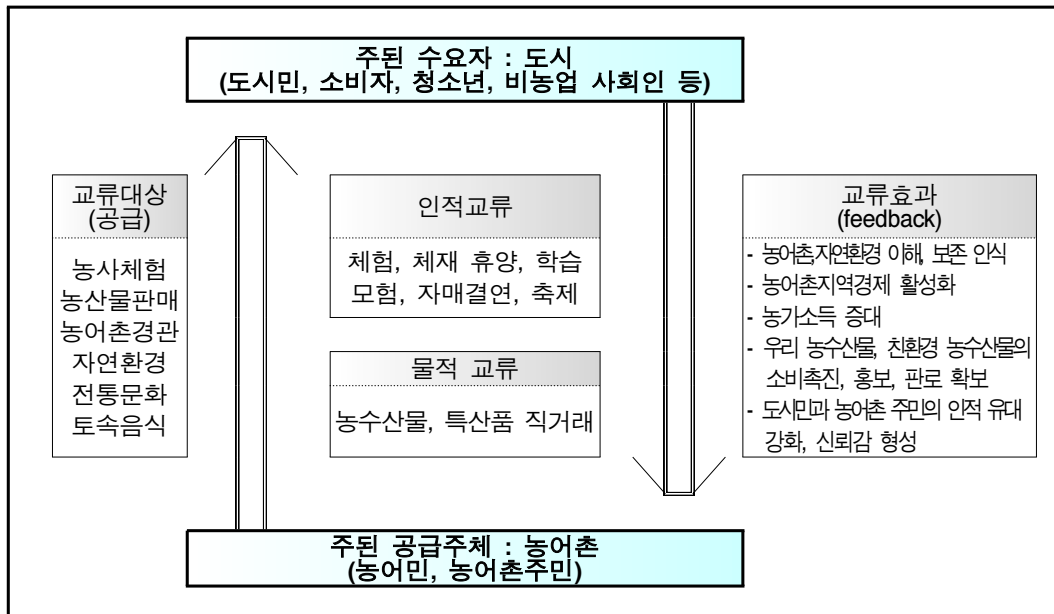
#### ① 농소정협력사업의 배경과 의의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는 도시의 소비자조직이 농촌의 농가들과 직거래를 확대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여 추수감사 축제를 하거나 상호방문을 통해 인적유대를 강화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물론 기업과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돕기나 농기계 보내기 등의 행사를 하면서 농촌지역과 교류하거나 도시의 자치단체, 부녀회조직, 종교단체, 학교, 병원 등에서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직거래, 상호 인적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매결연 등의 도농교류는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체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많았다. 때문에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도농교류가 도시민과 농촌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농교류기반시설의 확충과 교류주체들간의 연계, 정보교환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과 도시민 간의 교류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촌주민과 도시 소비자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 바로알리기와 친환경농산물구입 정보제공,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 농소정사업이다. 즉, 농소정협력사업은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함께 농업생산체험, 농촌문화와 생활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농소정협력사업은 기존의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도농교류 활동이 갖고 있던 자금 및 정보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도농교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이다.

1999년 도입 당시에는 주로 도시민의 농촌체험, 농산물전시판매, 농촌현장 활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2003년부터는 문화서비스에서 소외된 농어촌 청소년 등에게 뮤지컬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사업, 2005년부터는 미래의 소비자인 유치원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소비자교육 분야로 확대하였다. 그

후, 2008년부터 농·소·정 협력사업을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통합·변경 추진하면서 뮤지컬 문화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도농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우수체험마을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나가고 있다.



[그림 3-3] 도농교류협력사업 구성요소

농소정사업의 목적은 [그림 3-3]에서 보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도농교류의 의의와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 농촌, 농산물 홍보, 교육, 보존운동에 기여하는데 있다.

## ② 농소정협력사업의 유형과 성과

초기 농소정협력사업의 유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표 3-9> 참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농업·농촌체험형(learning experience)으로 각종 농사체험, 일손돕기, 주말농원, 도시농업, 환경농업 체험, 숲가꾸기,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습모험형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자연 학습 캠프, 청소년 생태·문화 캠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3-9〉 농소정협력사업의 유형

유 형	목 적	프로그램
농업농촌 체험형	농사나 숲 가꾸기에 직접 참여 또는 체험을 통해 농산촌과 농림산물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착을 갖게 하여 땅의 가치를 알게 함	-농사체험, 일손돕기(씨뿌리기, 김매기, 수확하기: 감자, 고구마 캐기, 과일따기 등) -주말농원, 도시농업 등 지속적인 농사체험 -환경농업체험:오리·우렁이 넣기, 가을걷이(메뚜기 잡기 등) -숲가꾸기: 나무심기, 가지치기, 간벌하기 등 -전통문화체험: 도예, 한지, 목공, 연극 등 -전통음식체험
학습모험형	청소년 캠프, 자연학습을 통해 농업농촌,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함을 인식케 함	-청소년 자연학습: 메뚜기잡기 등 -생태, 문화 캠프 -청소년 농촌, 환경축제 등
체재휴양형	농산촌에 직접 체재하거나 휴양을 통해 농산촌과 자연이 주는 가치를 깨닫게 함	-농촌민박 -휴양촌(통나무촌 등), 건강촌 -여행촌
견학여행형	농업농촌 환경을 견학하거나 주제가 있는 테마여행을 통해 농촌과 농산물의 가치를 인식케 함	-환경농업현장 견학 -농특산물 축제 테마여행 등
직거래전시 판매형	소비지, 산지 또는 도로변, 기상공간 등에서 (환경)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품평회를 열어(안전)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함	-농특산물, 환경농산물 전시 판매 -농민장터, 품평회 개최 -체험수확 -사이버마켓 개설 등
교육홍보 캠페인형	농업농촌에 관한 교육, 각종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 등으로 우리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교육(강좌), 토론회 -TV전문채널 확보 및 광고 -지하철, 버스 게시판 홍보 -홈페이지 등 사이버 홍보 -농지지킴이 운동 -농업메신저 사업
자매결연형	도시와 농촌의 개인간, 가족간, 단체간, 지역간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농산물 전속 거래 등으로 인적유대 강화와 직거래 활성화	-도농 청소년 친구맺기 -마음의 고향맺기 -도시가구-농가간, 생산자-소비자단체간, 자연마을 또는 행정구역간 자매결연
도농축제형	도시소비자와 농민간 만남의 한마당 축제로 상호 신뢰, 이해의 폭 확대, 공감대 형성	-단오 한마당 등 -농민-소비자 한마당 축제 등 -음악회, 각종 대회, 심포지엄 등

자료: 김병률 외,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pp.23~24.



체재휴양형은 농산촌에 직접 체재하면서 농산촌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는 유형으로 농가민박, 휴양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유형의 상당부분은 민간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소정협력사업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견학·여행형은 농촌현장을 직접 견학하거나 주제가 있는 테마여행을 통해 농촌과 농산물의 가치를 인식토록 하는 유형으로서 친환경농업 현장 견학, 농특산물 축제 테마여행 등이 있다.

직거래·전시판매형은 농소정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다양한 농산물판매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 각종 품평회, 수확체험 등이 포함된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쇼핑몰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홍보·캠페인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거나 캠페인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을 때 추진하는 유형으로 각종 강좌와 토론회,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 방송을 통한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매결연형은 도시와 농촌의 개인, 단체, 지역 간 이루어지는 자매결연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는 유형이다. 기업과 마을(지역) 간에 맺는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이 대표적이다. 도농축제형은 도시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한자리에 만나 축제를 벌임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유형이다. 봄철의 단오한마당축제, 가을철의 추수감사축제, 농촌마을 음악제 등 도농한마당축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농소정사업의 초기에는 도농교류를 이상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도농교류가 확대·발전해 나감에 따라 그리고 농소정협력사업이 일반화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을 묶어서 3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견해가 나타났다.<sup>20)</sup> <표 3-10>에서 보면, 농소정협력사업의 유형을 도농교류체험형, 농업·농촌알리기, 농업·농촌지키기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표 3-9>의 8가지 유형을 재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2008년 이후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도 정책당국의 사업분류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 유상호 외(2005),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소정협력사업 민관협력방안」 농림부, 농어촌연구원

〈표 3-10〉 농소정협력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

유형	도농교류체험협력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지키기사업
정의	도시의 소비자,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체험 기회 제공	농업의 다면적가치와 기능 등 농촌의 소중함과 우리농산물 우수성 알림	전통음식, 문화체험 등 농업 농촌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사업 내용	-농업생태체험 -농촌특산물체험 -친환경농산물 생산 -청소년 생산현장체험 -도시소비자생산·유통현장 -숯가꾸기 및 녹색산촌체험	-친환경농산물생산현장 견학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토론회 광고 -인터넷을 통한 농업농촌강좌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촌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전통문화공연 -농지와 환경지키기 운동 -생산자·소비자합동 농산물 파종 및 수확축제
2000	22개사업 총 528백만원	4개사업 총 244백만원	6개사업 총 208백만원
2003	30개사업 총 722백만원	4개사업 총 75백만원	8개사업 총 136백만원
2004	26개사업 총 666백만원	10개사업 총 193백만원	5개사업 총 136백만원
2005	28개사업 총 721백만원	6개사업 총 82백만원	7개사업 총 197백만원
평균	26.5개사업 총 671백만원	6개사업 총 123.5백만원	6.5개사업 총 169백만원

자료: 유상호 외(2005),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소정협력사업 민관협력방안」 농림부, 농어촌연구원. p.5.

‘농어촌 체험사업’은 도시소비자,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농어업·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단체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 등 참가자를 대상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는 사업(예: 농어촌 생태체험, 농어촌 일손돕기, 농사체험, 친환경농수산물 체험 등)을 말하며, ‘농어촌 지키기사업’은 전통음식·문화체험 등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단체가 도시민의 농어촌방문을 촉진하거나, 자매결연행사를 통해 직거래판매,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는 사업(예: 농어촌 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전통문화공연 등)을 말하고, ‘농어촌 알리기 사업’은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등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단체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 등에게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등을 알리거나,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생산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어촌의 가치 등을 교육하는 사업(예: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및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말한다.<sup>21)</sup> 2008년부터는 농소정협력사업을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통합하면서 ‘농어촌 폐교공간 활용사업’이 공모대상사업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농어촌 폐교에서 농어촌체험학교 등을 운영하여 폐교를 농어촌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단체가 농어촌 폐교에서 전통음식·공방·예술·한문·영어·체육 등 체험활동 및 전통문화공연 등을 하는 사업(예: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교에서 전통음식·공방 등을 하거나 인근 농산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체험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05~'09)의 농소정협력사업/도농교류협력사업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감소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3-11>에서 보면, 지난 5년간 참여횟수(사업추진횟수)는 총 5,975회(년평균 1,195회)이고 본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80만3천명(년평균 16만명) 수준이다.

〈표 3-11〉 최근 5년간 농소정협력사업 참여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평균
참여횟수	1,097	1,433	1,490	1,024	931	5,975	1,195
참여인원(천명)	132	154	188	210	119	803	161

자료: 농식품부, 「도농교류협력사업시행지침」 참조

농소정협력사업/도농교류협력사업은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공고하면, 사업희망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지난 5년간 총 411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그중 223개 단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년 평균 45개 단체)되었으며 총 99억원을 지원받았다. 신청대비 선정된 평균 단체 수 비율은 54%이며, 참여 단체당 평균사업비는 44백만원 수준이다.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사업유형 중 '농촌체험 부문(54.3%)'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농촌알리기(19.2%), 농촌지키기(17.5%), 폐교활용(9.0%) 등의 순서이며, 2008년의 경우 사업평가 결과 43개 단체 중 탁월 1개 단체, 우수 14, 양호 18, 보통 8, 부진 2개 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 (2) 농어촌 체험·관광마을정책

### ① 농어촌 체험·관광마을의 현황

21)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도농교류협력사업시행계획」 참조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은 이미 언급했듯이 1980년대 초, 이른바 개방농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농업소득의 증대만으로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농가소득원 다양화 →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보전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우리의 농촌관광정책은 '하드사업 중심의 개별단위·하향식 지원기(1980년대-1990년대 중반)'와 '소프트사업 병행의 지역단위·상향식 지원기(1990년대 후반 이후)'로 나누어 지는데, 농어촌 체험·관광마을정책은 제2기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시작된 관광농원, 농촌관광휴양단지 사업, 1990년대에 시작된 민박마을사업 등 제1기 농촌관광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관광농원, 휴양단지 등 농촌관광시설을 증가하였으나 지역산업과의 연계나 체험활동을 통한 지역의 이해 등 농촌관광자원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광농원의 경우 단순한 음식판매와 숙박위주의 운영으로 일반관광업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환경농업이나 영농체험 등 농촌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관광자원 활용이 부족하고 개인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가 미흡하며,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한 운영압박이 가중(과다한 hard 투자, 부족한 soft)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관광농원의 72.0%가 과다한 시설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초 기대한 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sup>22)</sup>

둘째, 지역주민과 유리된 농원운영이 대부분이었다. 자금력이 있는 외지사람들이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농원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에서도 마을주민들의 소득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식자재의 대부분이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대부분의 농촌관광시설이 관광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형 관광의 아류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박마을의 경우는 대부분이 유명관광지 주변에 조성됨으로써 농촌생활문화 체험이나 농사체험 등과 연계되지 못했으며 농촌휴양단지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상품화하지 못한 채 유흥중심·도시형관광의 아류에 머물러 있다.

넷째, 최근에는 주5일제 근무의 확산 등에 따라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 농촌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열악, 관광안내소, 안내판 등 초보적인 관광인프라도 부족하고, 농촌지역의 고령화

22) 유승우·민상기(1997),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부 (2001), 「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 농림부 내부자료.

로 인해 농촌관광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지역리더가 없다는 점 역시 농촌관광의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지역(개발)정책의 미비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농촌관광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촌고유의 지역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메니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이 시설위주·자본투자 중심의 제1기 농촌관광정책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토대로 1990년대 말부터는 농촌관광정책의 내용과 추진방식에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1990년대 말 이후에 나타난 농촌관광정책 변화(특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의 변화이다. 정책의 지원대상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혹은 농가단위에서 마을단위로 변화하였다. 둘째, 정책추진방식의 변화이다. 기존의 하향식 추진방식이 주민주도의 상향식·공모제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셋째, 정책내용의 성격변화이다. 기존의 시설투자나 기반정비 등 hard 중심지원에서 프로그램운영, 교육 등 soft 분야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이 변화하였다. 이 시기 농촌관광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여기증대, 관광패턴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시대적인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말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농촌관광관련정책은 중앙정부 시행사업과 지방정부 시행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사업은 다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예산사업으로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현, 산촌생태마을)'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비예산사업은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을 들 수 있다. 물론,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협의 팜스테이 지정사업과 마찬가지로 해당사업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지만, 유사한 정책사업을 선정할 때 상대적인 우선권(예, 가산점 부여)을 주기 때문에 완전한 비예산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방정부사업으로는 도단위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사업'이 있고, 시군단위의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이나 양평군의 '양평환경농업-21', 순창군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사업', 서천군의 '어메니티 서천', 함평군 나비축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사업이나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사업, 양평군의 양평환경농업-21은 그 자체가 농촌관광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는 농촌관광·도농교류·환경농업 등이 주된 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농촌관광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표 3-12> 참조).

〈표 3-12〉 마을단위 농(산)촌개발사업의 현황

사업명	해당부처	지원내용	특징	비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식품부	개소당 2억원	마을단위 추진 도농교류,지역활성화	2009년까지 442개소 지정
아름마을가꾸기	행정안전부	개소당 10억원	"	2003년 사업 중단 (23개소 지정)
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청	개소당 1억원 (1억 추가지원)	마을단위 추진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 성화, 환경농업	2009년 사업중단 (170개소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환경부	마을지정,홍보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 기초시설 등 예산 신청시 우 선 배정
산촌종합개발 사업	산림청	개소당 14억원	"	연계사업 지원 가능 2009년까지 204개소 지정
어촌체험마을	농식품부	개소당 5억원	"	2009년까지 112개소 지정
팜스테이사업	농협중앙회	마을지정,홍보	"	홈페이지 등록
새농어촌 건설사업	강원도	마을당 5억원	"	사업성과에 따라 10억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으뜸마을가꾸기	진안군	주민요구 수렴	"	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원

〈표 3-13〉 농어촌관광마을 현황(2009년말 현재)

구 분	계(개소)	비고
녹색농촌체험마을	442	2002년 시작/2017년까지 850개소 지정 예정
어촌체험마을	112	1994년 시작/2013년까지 122개소 지정예정
전통테마마을	170	2002년 시작/2009년 사업종료
산촌생태마을	204	1995년 시작/2012년까지 300개소 지정 예정
아름마을	23	2001년 시작/2003년 사업 중단
합계	951	-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농식품부)

2009년 현재, 마을경관이 우수하고 도농교류가 활발한 마을을 대상으로 총 442개 마을이 선정,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공동주차장, 관광안내판, 산책로 등의 마을 기초시설 보완과 마을주민교육,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을 목표로 한다. 2017년까지 850개 마을을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농식품부)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정주환경시설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어촌간 교류확대를 통해 어업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4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말 현재 112개소가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122개 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 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이 사업은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보조하여 체험·학습·농가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농촌생활의 활력화 및 도농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매력과 이미지가 있는 농촌마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방식과 추진체계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동일하며, 2002년에 시작하여 2009년 사업종료 시까지 총 170개마을 선정, 추진하였다.

□ 생태산촌마을(산림청)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고 산림경영의 거점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산촌종합개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말까지 총 204개마을이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총 30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할 예정이다.

□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행정안전부)

2001년 10개, 2002년 13개 등 지금까지 선정된 23개 마을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여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전통농촌형' '21세기 선도형' '생태녹색관광형' 등 마을별 유형에 따라 특성화된 자원친화적인 생활시설과 소득기반사

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향토지적재산 지정과 도농교류증진 등의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 □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사업’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아류적 성격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독자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 일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대상마을을 행정에서 선정하지만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계획수립 및 자율적인 자금집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 □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독자적인 농촌지역개발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사업의 본래적인 취지는 마을단위의 생활기반 및 생산기반정비, 주민복지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지향하고 있지만, 환경농업과 마을정비 등 농촌관광·도농교류의 기반조성과 교류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사업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제2기 농촌관광정책은 과거의 농촌지역개발정책에 비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의의를 갖는다.

첫째, 주민참여·상향식 추진방식의 채택이다. 과거의 농촌개발방식과 비교할 때, 이 시기의 농촌체험·관광마을조성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상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스스로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道)에 제출하고 이를 도단위에서 1차로 심사한 후, 다시 중앙단위에서 심사(주민대표의 사업설명과 전문가의 현지 실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은 과거에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접근방식임에 틀림없다.

둘째, 개인이 아닌 마을단위의 접근이다. 과거 관광농원정책의 한계를 반성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업단위를 개인에서 마을로 확장한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이들 사업이 농촌관광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활성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지역적 접근이 불가피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마을단위’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도농교류의 주요수단으로 지역성과 농촌성의 유지·보전 등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변화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의 다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농촌개발정책의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전문가의 참여를 전제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나 조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사업시행 초기이고 또 관련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전문가의 참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주민의 주체성을 함양함으로써 주민스스로의 개발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의 강화이다. 과거의 정책들이 도로나 시설물 건설 등 대부분 인프라구축 즉 하드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왔던 점에 비해서 이시기의 사업은 교육,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내용의 전환은 그동안의 농촌개발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의 농촌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농촌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다양한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부터 시행된 농촌관광정책의 이상과 같은 의의와는 별도로,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사업'의 의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사업은 반드시 농촌관광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농촌관광을 주요하고 기본적인 아이টে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마을)종합개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sup>23)</sup>

이 사업의 주요한 의의로는 첫째, 주민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아류적 성격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독자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또, 일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대상마을을 행정에서 선정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계획수립 및 자율적인 자금집행을 보장하는 상향식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특징적이 차이가 있으며 도농교류, 농촌관광은 개발아이템 중의 일부이지만 점차 중심적인 성격을 띄어가고 있다.

---

23)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사업의 등장배경이나 주요내용, 성과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는 이병오(2001),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 『2001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강원도 및 김경량·강종원(2003.9) 「새농어촌건설사업 : 현상분석과 발전과제」 『2003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강원도. 참조

둘째,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공동체복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전략의 추구는 비록 '상(償)사업비 보조'라는 당근에 의해 유인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의 각성과 협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무너져 버린 농촌공동체복원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농촌관광 역시, 지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었다.

셋째, 주민과 전문가집단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역개발모형을 정립하였다. 지역주민의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 내 전문가집단(가령, 지역 소재대학)의 참여를 조장함으로써 지역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넷째,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변화시키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1998년 이 계획이 표방되고 1999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농정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옴에 따라 이후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도 기존의 하향식 전략을 수정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중시하는 상향식 전략으로의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다섯째, 타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전략 수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추진 주체간의 경쟁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 농업과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가 넓고 장기간의 시행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와 철저한 점검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고, 따라서 사업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주체간의 경쟁을 통한 보조금지급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민들에 의해 수립된 계획을 주민자신이 적극적 추진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 ② 농어촌 체험·관광마을육성정책의 특징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농촌관광·도농교류 선진국과는 다른 발전경로를 거쳐 왔는데,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관광객)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추진이다.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가령, 주5일제, 장기휴가제도 등)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수요측의 요구보다는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방향으로 농촌관광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강조점이 농의소득증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Hard 중심의 지원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농촌 관광의 물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요구도 작용했겠지만, 이 정책 역시 중앙주도의 하향식 농정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중앙이 계획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 속에 Soft부분에 대한 지원은 고려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도농교류가 중시되고 체험활동은 보조적 위치에 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촌관광의 주된 목적이 농외소득증대에 있었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통한 수요자층의 만족보다는 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농특산물의 판매망 구축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농촌관광이 강조되고 있을 뿐 관련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령, 농가민박은 숙박업의 일종인데 이에 대한 관련법규(가령, 여관업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농가민박은 법적인 규제로부터는 독립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문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는 식당업(가령, 식품위생법)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sup>24)</sup> 모두가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자’는 분위기 속에서 ‘대충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2007년 ‘도농교류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 (3) 1사1촌 운동

#### ① 1사1촌 운동의 의의

1사1촌 운동은 2003년 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주창에 따라 결성된 농촌사랑의 일환으로 기업(단체)과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농촌사랑운동을 말한다.<sup>26)</sup> 대통령의 제창에 따라 시작된 이 운동은 2004년 4월 6일, 최초로

24) 농가 숙박업의 관련제도가 외국의 사례, 농가숙박업제도의 도입방안 등에 대해서는 박시현·박주영(2003.3), 「농가숙박업의 제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

25) 가령, 체험마을에서 숙박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련규정에 적합한 영업을 하여야 하지만,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은 비상시(非常時)적이며 개인적인 상업목적이 미약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체험마을은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풍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농어촌의 실정 및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한 숙박영업 시에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이를 ‘도농교류관리법’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배제)에 명확히 있다.

강원도 홍천군 명동리에서 농림부장관, 농특위원장, 경제5단체장, 농협회장, 마을주민이 모여 '농촌사랑협력 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4년 10월 25일에는 경제부총리, 국회의원, 경제5단체장, 소비자·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대표 등 700여명이 모여 '농촌사랑 범국민운동 본부'를 발족시킴으로써 기업과 농촌의 상생과 교류를 위한 구심체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2005년 말에는 개인회원 137만명, 자매결연 기업체·단체가 8,677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운동은 비록 정부의 강요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농촌회생이라는 측면과 연결시킴으로써 기업과 농촌마을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즉, 기업은 농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촌은 기업에 건강한 활력을 주는 행복한 상생의 연결고리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일본과 중국에까지 소개<sup>27)</sup>되기도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마을 회생의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표 3-14〉 농촌사랑운동의 참여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농협중앙회	농촌사랑운동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물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농협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1사1촌운동 결연을 활성화하고 금융상품을 통해 측면 지원
경제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써 농촌사랑운동 및 1사1촌 자매결연에 기업의 참여를 진작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을 특집기사로 매일 보도하며 운동의 범국민 확산을 위한 홍보에 주력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
농민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농촌사랑운동의 중요관계자로 참여하여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

- 26) 2003년 12월 11일, 대통령과 경제5단체장, 소비자·시민단체, 농업인 등 7000여명이 모여 농촌사랑 공동선포식을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개방의 물결, 이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그물, 벼랑에 떨어질지도 모를 우리 농민을 안아서 살릴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그물을 만듭시다. 이것이 사랑과 믿음의 그물입니다'라고 농촌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사일촌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7) 2005년 3월 28일, 일본경제신문은 "기업의 농촌지원은 제3의 길"이라는 특집에서 한국의 1사1촌 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하이트맥주와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으며, 일본농업신문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6회에 걸쳐 한국의 농촌사랑운동을 기획특집으로 보도한 바 있다. 또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는 고급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2005년 10월 17일부터 1주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1사1촌 운동을 벤치마킹해 가기도 했다.

농촌관광·도농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마을을 비롯하여 경남 남해군의 다랭이마을, 충남 태안군의 뱃가리마을은 모두 삼성전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마을이다. 1사1촌이 전부는 아니지만 마을에 따라서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기업은 기업이미지 제고, 공익적 활동 홍보 및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기업임직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임직원의 농촌체험과 팜스테이, 워크숍 장소 확보 등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말 현재, 국내재계순위 100대기업 중 7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과 정부부처,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이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1사1촌 운동의 성과

1사1촌 자매결연의 교류형태는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이다.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해 직거래와 현지구매, 판로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 둘째는 도시민에 대한 체험활동 제공이다. 팜스테이, 주말농장, 워크숍, 체육대회, 캠프 등을 통해 도시민의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이다.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를 통한 농가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넷째는 기업이나 단체의 농가지원이다. 회사나 단체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한 농업생산지원, 의료봉사, 법률자문서비스, 전통문화보전 지원 등이 있다. 다섯째, 농촌에 대한 복지지원이다. 복지사업지원이나 농촌마을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경우이다. 여섯째, 고용효과이다. 농한기의 남은 농촌노동력을 기업체 내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경우이다.

<표 3-15>에서 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볼 때 1사1촌 자매결연 건수는 8,677건인데 이는 전국 마을수가 37,000여개에 달하는 점과 비교해 보면 전국마을의 약 23.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물론, 하나의 마을이 여러 개의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기업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만은 사실이다. 가장 많은 경우가 기업체로서 전체의 51.7%에 달하고, 이어서 관공서가 12.9%, 학교 등이 11.3%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2009년도 경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매결연건수는 2005년에 비해 16.9%가 줄어들었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경우는 학교 등으로 2005년에 비해 44.9%가 줄었으며, 소비자단체도

43.5%나 감소하였다. 기업체 역시 2005년 4,487건에서 2009년에는 2,981건으로 3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사1촌 자매결연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별 분포를 보면(<표 3-16>), 경북이 1,3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남, 충남, 경남의 순이다.

〈표 3-15〉 1사1촌 자매결연 체결현황

구 분	2005.12.30.	2009.6.30	증감율(%)
기업체	4,487 (51.7)	2,981 (41.3)	△ 33.6
관공서	1,124 (12.9)	1,049 (14.5)	△ 6.7
학교 등	978 (11.3)	539 (7.5)	△ 44.9
소비자단체	706 (8.1)	399 (5.5)	△ 43.5
사회·종교단체	418 (4.8)	464 (6.4)	11.0
농협 등	-	802 (11.1)	-
기타	964 (11.1)	980 (13.6)	7.7
전체	8,677 (100.0)	7,214 (100.0)	△ 16.9

이러한 1사1촌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농촌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기업과 농촌이 별개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농촌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기업이 1사1촌 운동에 참여하면서 농촌문제에 대해 많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농림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1사1촌 운동이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금액은 총 57,627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농촌사람범국민운동본부 내부자료). 그 중 농산물직거래가 38,03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손돕기 7,951백만원, 농촌체험이 4,540백만원, 마을발전기금이 4,080백만원, 봉사활동이 2,003백만원, 기타 1,013백만원의 순이다.

28) 허선구(2006), 「1사1촌 운동의 현황과 발전방안」 (『2006 1사1촌 활성화 정책세미나』 자료집), p.33.

〈표 3-16〉 시도별 1사1촌 자매결연 체결현황

지 역	자매결연 건수
경 북	1,373 (15.8)
전 남	1,337 (15.4)
충 남	1,165 (13.4)
경 남	1,039 (11.9)
경 기	819 (9.4)
전 북	595 (6.8)
충 북	554 (6.3)
강 원	539 (6.2)
기 타	1,256 (14.4)
전 체	8,677 (100.0)

#### (4)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마을에서 농촌체험마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조직과 다른 새로운 운영조직이 만들어져야 했다. 대개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러한 마을단위의 조직과, 마을과 단체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넘어서 2000년대 중반 경부터는 소규모 지역단위(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내용상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기초지자체 내부의 조직이나 경영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현황을 보고자 한다.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하나의 점이 되어 서로 연계하므로 그물과 같은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잘 구조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정부 정책사업은 사업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도 한 지역 안에 존재하는 결절점(공급자, 행위자)들을 연계하여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정보와 학습 등이 쉽게 전파되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농촌진흥청이 2006년 충남 당진군과 전북 군산시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군 내의 농촌관광 개별 경영체나 체험마을, 농촌교육농장,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하는 주체들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결과로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을 향상

시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참여 주체들의 개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서는 2년의 사업기간 동안에 체험마을 위원장, 사무장, 체험진행자, 민박공급자, 농촌교육농장 선정자, 관련 공무원, 도농교류사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대부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통해 네트워크 조직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후 조직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 지역과 2009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표 3-17>과 같다. 이 가운데 2006~08년도 까지 사업을 실시한 28개 지역은 모두 시·군 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기존에 존재했던 네트워크를 교육 후 확대시킨 경우와, 사업이 들어가면서 교육 후 신규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다.

〈표 3-17〉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내용과 사업 지역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단위 네트워크 조직화 및 지원체계 구축</li> <li>•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관련자 교육</li> <li>• 농촌관광 발전계획 수립</li> <li>•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li> </ul>
사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2개소) : 충남 당진, 전북 군산(시범사업)</li> <li>• 2007년(12개소) : 경기 양주, 강원 강릉, 양양,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구례, 순천, 경북 예천, 김천, 경남 의령, 함양, 제주</li> <li>• 2008년(14개소) : 경기 화성, 연천, 강원 인제, 원주, 충북 영동, 충남 금산, 공주, 청양, 전북 장수, 고창, 전남 나주, 경북 경주, 경남 남해, 산청</li> <li>• 2009년(14개소) : 경기 이천, 강원 삼척, 양구, 고성, 충북 충주, 충남 예산, 태안, 전북 무주, 익산, 전남 무안, 경북 상주, 포항, 경남 거창, 함안</li> </ul>

## (5) 농어촌공사 도농교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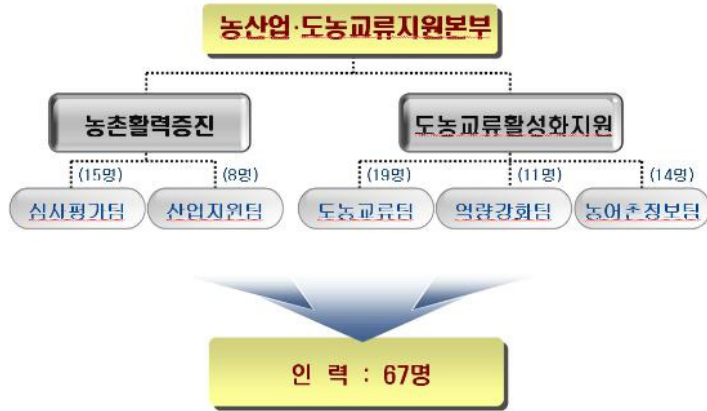
### ① 도농교류 조직

농어촌공사 도농교류 조직으로 2004년 도농교류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2009년 1월 농촌활력사업본부와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로 통합기구로 확대설치하였으며, 5개팀 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본부의 임무 및 역할을 보면, 농어촌활력증진을 위해 사업계획 심사 및 평가·모니터링, 농어촌산업·기업컨설팅, 시군공무원, 지역리더 등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산업홍보, 농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농교류활성화지원을 위해



도농교류 수요창출,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농촌지역개발 역량강화교육, 도시민 농촌 이주 및 정착지원, '웰촌포탈'을 이용한 농어촌종합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4] 농어촌공사 도농교류 조직도

자료 : <http://blog.naver.com/kangts0001>

## ② 도농교류 사업

도농교류사업이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산어촌 관광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그림 3-5] 도농교류사업

자료 : <http://blog.naver.com/kangts0001>

이러한 도농교류사업의 목표는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생활, 쾌적한 전원생활, 안전한 농어촌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소득증대, 인구유지, 어메니티 증진을 실현키 위해 도농교류인프라 구축, 도농교류 수요창출, 지역개발 역량강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도시민과 농어업민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사업은 도농교류 인프라확충, 도농교류 수요창출 홍보, 지역개발역량 강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이다.

〈표 3-18〉 도농교류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주요내용
도농교류 인프라 (기반)확충	도농교류촉진사업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을 조성 도농교류거점으로 활용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농업농촌의 독특한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 공간 제공
	신문화공간조성	정미소,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복원하여 도서관, 전시관 등의 문화공간으로 조성
	도농교류활성화 공모 사업	도시소비자, 청소년들의 농업농촌 현장체험 및 문화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녹색농촌체험마을 평가	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추진성과, 농촌관광의 의미, 체험마을의발 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연찬회를 개최하여 의견교환 및 상호교류의 장 마련
	1인 1촌 전문가지원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을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 지원
도농교류 수요창출 홍보	여름휴가 농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여름휴가철 캠페인을 전개 도시민 여가수요를 농어촌지역으로 유도하여 소득증대 및 체험관광활성화 추진
	도농교류 정부포상	도시민, 기업 및 단체, 마을리더, 개인 등 도농교류 유공자를 정부포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범국민적 동참분위기 조성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및 환경보전으로 친환경 마을 조성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의 자구노력 고취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사회적 몸 조성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체험기 공모를 통하여 농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으로 인식하는 계기마련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 및 농산어촌 방문 활성화 도모
	농산어촌체험마을 보 험가입지원	도시민이 농산어촌 체험관광마을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체험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 대비 마을 보험가입비 지원
지역개발 역량강화	농촌지역개발을 주도 할 핵심리더양성	농어촌지역개발 리더십 육성과정 - 상황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리더양성(6단계) - 참여실천중심의 교육실시 도농교류활성화 리더십육성과정 - 도농교류 활동을 주도할 핵심리더 양성(2단계)

		- 농어촌체험마을 리더대상
	지역주민 사업참여를 위한 동기화과정	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지정권역, 신청권역 대상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신규지정 마을 신문화공간조성 지정지역
	향토음식 개발 및 농가식당운영과정	향토자원을 활용한 음식개발 농가식당 운영에 필요한 창업실무교육(실습중심)
	문화/경영특화과정	농어촌문화과정-농촌의 문화가치 발굴, 체험마을 디러대상 농가식당운영에 필요한 창업실무교육(실습중심) 관광농원경영과정 사무장과정 - 마을종합개발사무장 및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국외선진기 견학과정-일본, 유럽 등 다문화과정 서울체험
	농촌지역개발 표준교재 개발보급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책자발간 및 교재활용 - 홍보마케팅, 갈등관리, 마을경영 및 리더십과정 주제별 교육 교재 활용
	농촌지역개발 컨설팅업체 DB구축 및 제공	농촌지역개발관련 컨설팅업체 정보의 DB화 및 지역보급 - 웰촌(Welchon)포탈등재 및 책자발간보급(9개분야, 55개업체 등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웰촌포탈(농어촌종합정보)서비스	희망과 꿈이 있는 21세기 농어촌건설을 위한 농어촌정주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농어촌경관사진 콘텐츠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도시민에게 홍보, 농촌에 대한 관심 유발 이주동기 부여 - 공모주제 : 아름답고 맛있는 농어촌

자료 : <http://www.welchon.com/> (2010년 4월 10일 접속)

### 3) 국내 도농교류 정책평가<sup>29)</sup>

도농교류활성화 정책은 농촌지역개발의 한 가지 새로운 모델을 발굴·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농촌관광마을 육성정책을 추진하던 초기부터 도농교류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육성의 중요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자문과 컨설팅, 지속적인 주민학습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주민 스스로의 발전역량이 크게 신장되었다.

또한 농촌체험기회를 도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도농상생의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마을에서는 단순한 도농교류의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주로 친환경농업 실천,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계기로 도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직거래가 활성화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문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농업비전과 전략, 2009, pp.413-414.

객 수 증가, 관광매출액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아울러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마을경관을 가꾸고 상·하수도, 주차장, 민박 등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점 또한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촌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촌관광시장이나 도농교류의 기반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농촌마을에서 제공하는 농촌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전체 국민관광 부문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화된 관광산업의 비즈니스 주체로서 농촌관광에 종사하는 경영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형태로 농촌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보다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농촌관광시장을 질서 있게 조직해 나갈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금전적 거래에 기초한 농촌관광 활동 외에도 1사1촌 운동과 같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나 활동 또한 지금보다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1교1촌 운동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미래에 농업·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즉, 학교와 연계된 농어촌체험교육의 정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아름답고 여유로운 여가휴양의 장소로서 농촌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단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농촌수업 활동프로그램, 장기적으로는 직장인들의 휴가문화 등과 깊은 관련을 가지므로 수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도 맞물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향후의 정책과제는 농촌관광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영역의 경영주체들이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영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힘쓰는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체험·휴양, 특산물 가공, 축제 등 문화컨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농촌지역 2·3차 산업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도농교류촉진법을 통해 도농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보완할 여지도 있다. 예컨대, 농업인이 주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서조차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 도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신축하려 할 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 제4절 충청남도의 도농교류 정책현황

### 1. 도농교류 지원제도

충청남도에서는 도시와 충청남도 농산어촌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소득 안정과 경제활력화 유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9년 「충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농산어촌 체험관광이란 농산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사업을 말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매년)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시·도 청소년 등에 참여장려 및 경비 지원
-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농산어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 교육 실시
- 행정기관, 기업체 등과 1사1촌 자매결연 장려 및 지원
-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등

### 2. 도 및 시군 도농교류 추진현황

#### 1) 개요

충청남도의 도농교류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지원하는 형태와 충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추진시책을 지원하는 형태는 농업정책과의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의 "어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산림복지과의 "산촌생태마을"(산림청), 관광산업과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해양수산부), 농업기술원의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등이 대표적이며, 충남도 자체적인 시책은 관광산업과의 템플스테이, 종교체험관

광, 녹색관광 등을 들 수 있다.

200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어촌체험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2010년까지 총 155개 마을에서 추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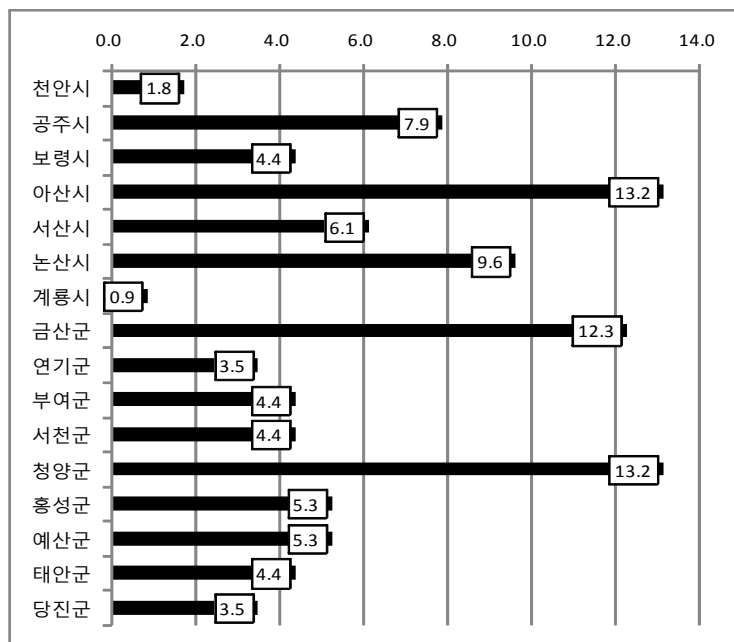
〈표 3-19〉 농촌체험마을 현황

계	녹색농촌 체험마을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어촌체험 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생태마 을
155	75	6	11	39	24

주: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지 및 포기마을 6개 마을 제외한 숫자임

## 2) 시군별 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

시군별 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은 아산시와 청양군이 15개 마을(13.2%), 금산군과 아산시가 각각 14개 마을(12.3%) 등의 순으로 조성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 1개마을, 논산시 2개마을 이다.



[그림 3-6] 시군별 조성현황

〈표 3-20〉 시군 별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구 분	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천안시	2		입장 연곡, 광덕 보산원
공주시	9	정안 풀꽃이랑, 정안 달원, 우성 영천, 반포 분청사기골, 유구 산수박, 정안 자연애밤토랑, 이인 장익는, 이인 운암산약수	신평 동원
보령시	5	대천 이천, 천북 신현, 청라 토정, 천북 빙도	천북 장은
아산시	14	송악 외암민속, 송악 거상골, 탕정 산골, 음봉 지안실,	영인 신평, 둔포 엄작, 송악 강장, 송악 강당, 송악 평촌, 음봉 동천, 둔포 석곡, 영인 월선, 온양 4통, 음봉 송촌
서산시	7	해미 별, 대산 회포, 인지 슬마당, 해미 큰초록골, 지곡 목재,	팔봉 금학, 부석 마룡
논산시	12	양촌 도정, 광석 딸기, 벌곡 덕곡, 연산 오골계, 노성 삼태미, 가야곡 평매, 연산 덕바위, 성동 포전, 광석 사월1리, 광석 시골애	연산 고정, 벌곡 만목
계룡시	1	엄사 도곡,	-
금산군	14	제원 바리실, 제원 닥실, 부리 두곡, 부리 비봉, 진산 청정다람쥐, 제원 하양꽃빛, 남일 무내미, 금산 외정, 진산 두지, 진산 매현, 추부 송암	남일 신정, 제원 옹화, 부리 어재
연기군	4	소정 삼기, 서면 나리, 전동 청솔	전의 금사
부여군	5	은산 백제인동, 부여 부여기와, 장암 송죽,	조촌 신암, 옥산 흥현
서천군	5	비인 남당, 시초 들꽃동산,	기산 화산, 화양 월산, 마서 계동
청양군	15	비봉 은골구기자, 대치 장곡, 대치 칠갑산 산꽃, 장평 꽃뫼, 남양 옹골 꾸는, 화성 물어울, 정산 칠갑산표고, 목 가마골, 장평 까치내, 화성 금바 위, 비봉 용천한방, 운곡 후덕, 운곡 신대, 정산 바둑골,	대치 상갑
홍성군	6	홍동 문당, 광천 하리,	구항 내현, 홍북 노은, 장곡 산성, 서부 상황
예산군	6	신양 해바라기, 대술 꽃피는갈막, 덕산 가야산 한티,	광시 신흥, 응봉 운곡, 예산 봉산
태안군	5	소원 노을지는갯, 소원 연꽃	이원 관리, 고남 고남, 원북 매화 둠벙
당진군	4	고대 영전, 석문 푸레기, 고대 당나 물물꽃송마,	신평 초대
계	114	75개소	39개소

### 3) 조성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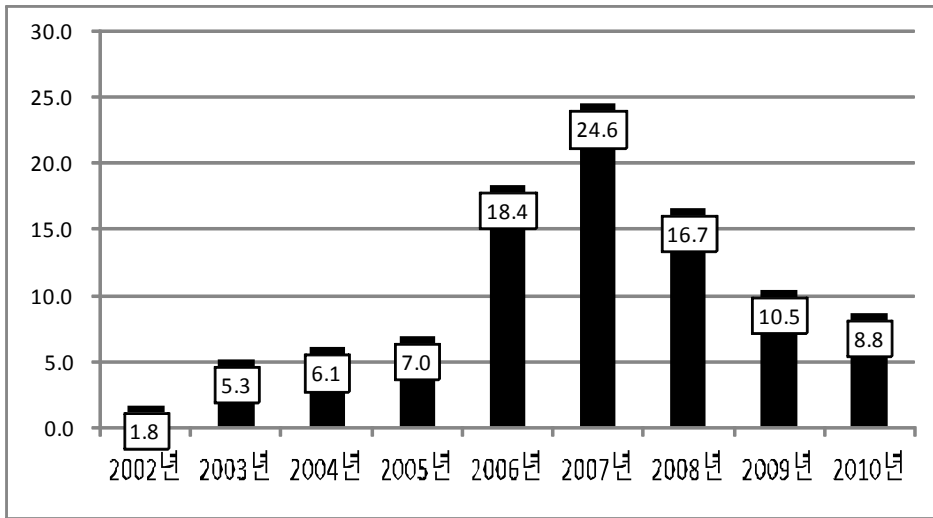
200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총 120개소였으나 해지 및 포기마을 6개소를 제외하면 총114개 마을이다. 조성시기는 2007년 28개마을(24.6%), 2006년(18.4%), 2008년 19개마을(16.7%) 등의 순으로 2006년 이후가 전체 마을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농촌전통테마마을은 2008년까지 마을지정이 완료되었다.

〈표 3-21〉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시기

구분	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2002	2 (1.8)	오학 별	구항 내현
2003	6 (5.3)	홍동 문당, 신양 해바라기	영인 신봉, 남일 신정, 대치 상갑, 이원 관리
2004	7 (6.1)	송악 외암, 제원 바리실, 은산 백제인동, 광천 하리	전의 금사, 기산 화산, 광신 신흥
2005	9 (7.0)	양촌 도정, 제원 덕실, 비인 남당, 비봉 은골구기자, 소원 노을지는 갯마을, 공대 영전	입장 연곡, 신평 동원, 천북 장은
2006	21 (18.4)	송악 거상골, 광석 딸기, 엄사 도곡, 부리 두곡, 부리 비봉, 소정 삼기, 대치 장곡, 대치 칠갑산 꽃, 장평 꽃피, 남양 용꿈꾸는, 화성 물여울, 대술 꽃피는 갈막, 석문 푸레기	둔포 염작, 팔봉 금학, 제원 용화, 부리 어재, 화양 월산, 응봉 운곡, 고남 고남, 신평 초대
2007	28 (24.6)	탕정 산골, 대산 회포, 인지 술마당, 벌곡 덕곡, 연산 오골계, 진산 다람쥐, 제원 하양꽃빛, 남일 무내미, 시초 들꽃동산, 정산 칠갑산표고, 북 가마골, 장평 까치내, 화성 금바위, 덕산 가야산한티	광덕 보산원, 송악 강장, 송악 강당, 송악 평촌, 음봉 동천, 둔포 석곡, 영인 월산, 운양 4통, 음봉 송촌, 부석 마룡, 연산 고정, 벌곡 만목, 초촌 신암, 마서 계동
2008	19 (16.7)	정안 풀꽃이랑, 정안 달원, 우성 영천, 반포 분청사기골, 대천 이천, 천북 신흥, 음봉 자안실, 노성 삼태미, 가야곡 평매, 부여 기와, 비봉 용천한방, 운곡 후덕, 고대 당나루물꽃송마	옥산 흥현, 흥북 노은, 장곡 산성, 서부 상항, 예산 봉산, 태안 원북
2009	12 (10.5)	유구 산수박, 정안 자연애밤토랑, 해미 큰초록골, 지곡 목재, 연산 덕바위, 성동 포전, 금산 외정, 서면 나리, 전동 청솔, 장암 송죽, 운곡 신대, 정산 바둑골	-
2010	10 (8.8)	이인 장익는, 이인 운암산약수, 청라 토정, 천북 빙도, 광석 사월1리, 광석 시골애, 진산 두지, 진산 매현, 추부 송암, 소원 연꽃	-
계	114	75	39

주 : 해지 및 포기마을은 신대파재미(2002), 웅천 가재(2004),면천 수미(2004), 진산 가사별(2006), 동면 장육진생가(2006), 남면 먹수리(2009; 포기) 등 6개 마을이다.





[그림 3-7] 농촌체험마을 조성시기

#### 4) 시설운영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주로 체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교류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3-22〉 농어체험마을 체험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체 험 시 설	영농체험	주말농장, 약초단지, 사과체험장, 독살체험, 약초단지
	농촌생활체험	밤음식체험장, 농산물가공체험장, 전통식품숙성체험실
	전통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관
	자연생태체험	동물체험장, 승마체험장, 곤충체험장, 천문대, 자연학습원, 연꽃단지
판매시설		구판장,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민박시설, 폐교리모델링, 캠핑카, 빌리지하우스,
교류시설		도농교류센터, 방문자 센터, 교육관
편의시설		주차장, 마을쉼터, 정자, 건강관리실, 공중화장실, 농막, 공동사위장, 송림공원, 황토방, 팜투어마차, 리카룸, 캠핑장, 야외공방, 튜립공원, 물레방아, 관광열차, 셔틀버스

### 5) 체헵프로그램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은 영농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등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3〉 충남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영농체험	밤(사과, 딸기, 토마토, 매실, 버섯, 포도, 배, 뽕잎, 오디, 옥수수, 단호박, 토종꿀) 수확하기, 감자(고구마, 인삼, 약초, 맥문동)캐기, 바다(민물, 갯바위) 낚시, 통발, 골뱅이(조개)잡이, 버베키, 나무키우기, 친환경농업, 누에키우기, 알밤줍기 등
농촌생활체험	메주(떡, 도토리, 우유치즈, 포도주, 손두부, 호박즙, 딸기잼, 호두과자, 종가음식) 만들기, 장(김장) 담그기, 승마, 산양젓짜기, 염전체험, 가재(다슬기) 잡기
전통문화체험	다도(꽃차), 도자기, 솟대, 천연염색, 짚풀공예, 뗏목타기, 민속축제, 전통놀이, 유적답사, 소달구지타기, 나룻배타기, 풍물교실, 약쑥찜질, 유람선, 예술체험, 전통줄다리기, 농바우깡시ги, 떡매치기, 모시체험, 선비체험, 유적답사, 삼베길쌈, 칠보공예, 함초체험, 독살
자연생태체험	야생화, 산나물(고사리), 갯벌, 별자리관측, 물놀이, 래프팅, 봄꽃관찰, 박쥐동굴, 황토길체험, 연꽃체험, 해넘이, 송림욕, 생태돔빙, 곤충채집, 민물고기, 꿀벌생태체험, 녹용



[그림 3-8] 충남 농촌체험마을 분포도

### 3. 농협 충남지역본부의 도농교류 현황

농협에서는 기존의 농가민박에 다양한 농사체험과 문화체험을 결합한 ‘팜스테이’사업을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상마을은 순수한 자연부락(읍면 소재지가 아닌 마을)으로 전형적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곳으로 주변에 관광휴양자원이 많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곳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자율적 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당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농협은 프로그램의 개발 협조와 홍보를 지원하며 민박 등 시설개보수자금도 일부융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사체험과 농산가공체험, 생태체험, 전통민속놀이, 단체레크레이션 등 농촌에서 제공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고, 농협이 홍보에 적극 힘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농협과 마을의 소수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과 상품화 능력이 부족하며, 내방객 확보도 농협의 알선에 의존하고 있는 등 아직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별도의 투자지원이 없어 마을정비 등 관광인프라의 형성이 부족한 점, 마을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숙박 등에 한정되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은 가장 취약점으로 평가된다.<sup>30)</sup>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도 “팜스테이”, “1사1촌”, “1교1촌” 등의 도농교류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 충남의 팜스테이 마을현황은 34개 마을

〈표 3-24〉 충남 팜스테이 마을현황( '10년 3월말기준)

구분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
마을	1	1	3	3	2	4	1	2	4	4	3	2	1	3	34

- 충남내 1사1촌 자매결연은 기업체 380건 등 총 736건

〈표 3-25〉 충남관내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사무소	기업체	소비자 단체	사회/ 종교단체	관공서등	농협등	학교	기타	합계
충남농협	380	18	30	114	67	52	75	736

30) 오내원 외, 농가계층별 소득증대방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116.

- 2009년도 자매결연 교류실적은 건수 3,889건, 금액 7,110백만원

〈표 3-26〉 2009년도 자매결연 교류실적

(단위 : 백만원)

사무소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마을지원		농촌체험/ 상호방문		마을기증/ 발전기금		농협 자금지원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남	1,478	5,176	945	899	238	151	769	387	280	461	1	16	178	20	3,889	7,110

〈표 3-27〉 충남시군별 1사 1촌 자매결연 현황(2010년 7월 현재)

지역본부/ 사무소	기업체	소비자 단체	사회/종 교단체	관공서 등	농협 등	학교	기타	계
공주시지부	62	4	4	22	5	7	8	112
금산군지부	18	0	2	7	3	1	4	35
논산시지부	32	0	2	17	14	2	7	74
당진군지부	24	1	3	2	10	1	3	44
보령시지부	13	0	4	1	2	2	1	23
부여군지부	37	2	2	6	7	1	5	60
서산시지부	28	3	4	2	0	2	13	52
서천군지부	30	1	0	3	3	11	3	51
아산시지부	29	1	1	5	3	10	5	54
연기군지부	13	0	1	2	1	0	3	20
예산군지부	20	0	2	6	2	3	2	35
천안시지부	27	0	0	8	6	1	5	47
청양군지부	15	2	1	8	2	2	4	34
태안군지부	18	1	1	3	3	2	5	33
홍성군지부	21	5	4	25	4	9	7	75
합계	387	20	31	117	65	54	75	749

자료 : 농협충남본부 내부자료.

〈표 3-28〉 자매결연 교류실적(2009년)

(단위 : 천원)

지역본부/ 사무소	농수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및 마 을편의시설개선		농촌체험 및 상호방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주시지부	132	1,093,473	87	113,072	32	27,910	126	56,339
금산군지부	31	355,165	41	37,592	15	8,150	45	10,648
논산시지부	138	313,947	89	63,166	23	7,290	69	18,396
당진군지부	165	907,075	44	66,067	18	9,002	30	29,323
보령시지부	9	11,580	66	36,586	8	2,181	20	10,102
부여군지부	66	109,739	281	206,726	35	13,745	36	7,668
서산시지부	233	280,288	58	45,880	12	15,678	57	28,022
서천군지부	85	88,911	20	23,088	5	27,265	108	32,290
아산시지부	55	144,640	65	72,698	41	14,431	33	15,709
연기군지부	82	94,438	18	28,771	3	2,480	7	2,551
예산군지부	71	77,985	42	32,738	11	4,010	29	13,940
천안시지부	38	115,824	25	53,813	5	8,670	91	24,854
청양군지부	189	477,855	4	7,814	2	990	34	98,490
태안군지부	37	133,332	38	49,195	9	6,480	32	22,420
홍성군지부	145	969,593	59	54,997	18	3,100	47	13,634
합계	1,476	5,173,845	937	892,203	237	151,382	764	384,386

지역본부/ 사무소	마을기증/발전기금		농협자금지원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주시지부	39	60,230	1	16,000	130	1,000	547	1,368,024
금산군지부	6	4,000	0	0	0	0	138	415,555
논산시지부	16	2,650	0	0	1	50	336	405,499
당진군지부	23	26,026	0	0	4	3,300	284	1,040,794
보령시지부	1	1,000	0	0	2	850	106	62,299
부여군지부	32	230,729	0	0	1	500	451	569,108
서산시지부	24	24,460	0	0	0	0	384	394,327
서천군지부	38	38,290	0	0	5	250	261	210,094
아산시지부	8	6,200	0	0	16	8,750	218	262,428
연기군지부	7	11,635	0	0	0	0	117	139,875
예산군지부	6	4,130	0	0	1	700	160	133,503
천안시지부	21	14,254	0	0	6	900	186	218,315
청양군지부	7	11,800	0	0	0	0	236	596,949
태안군지부	3	1,800	0	0	5	3,670	124	216,898
홍성군지부	32	19,800	0	0	0	0	301	1,061,124
합계	263	457,004	1	16,000	171	19,970	3,849	7,094,792

자료 : 농협충남본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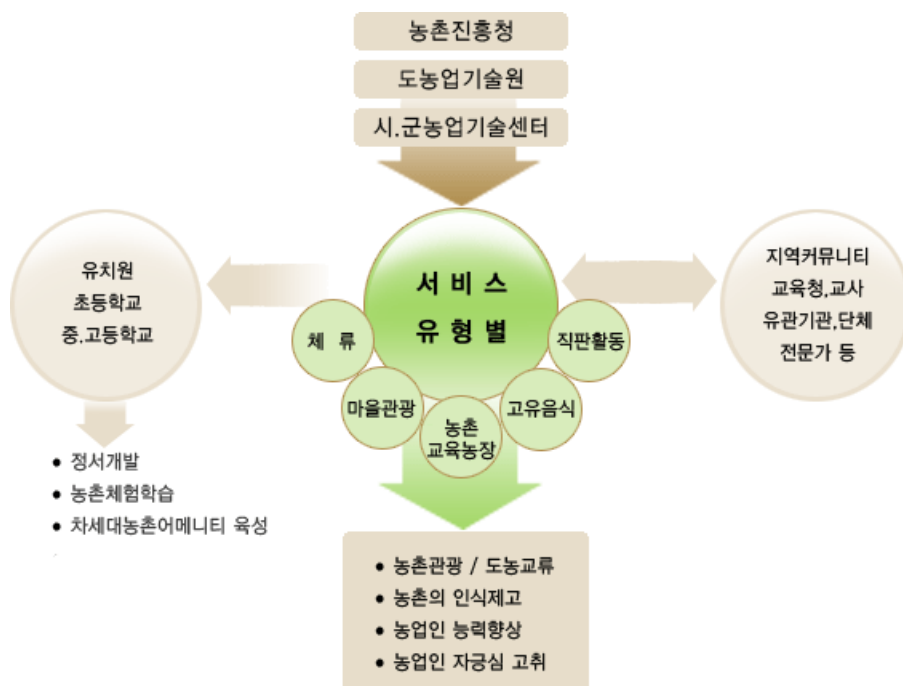
## 4. 농업기술센터 도농교류 현황 : 농촌체험교육농장

### 1) 추진배경

농업 및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자원 등 제 자원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체험활동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운영할 농가를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사업은 2006년 처음 시작하여 2007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4개 농장씩 총48개 농장을 육성하였다. 사업비는 개소당 2천 5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씩 지원하였으며, 자부담 6,125천원을 포함하여 31,250천원의 사업비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업농촌체험활동을 농가 또는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전문 컨설팅, 농장운영 가족들의 교육훈련, 보험, 홍보 등 기타 S/W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림 3-9] 농촌체험교육농장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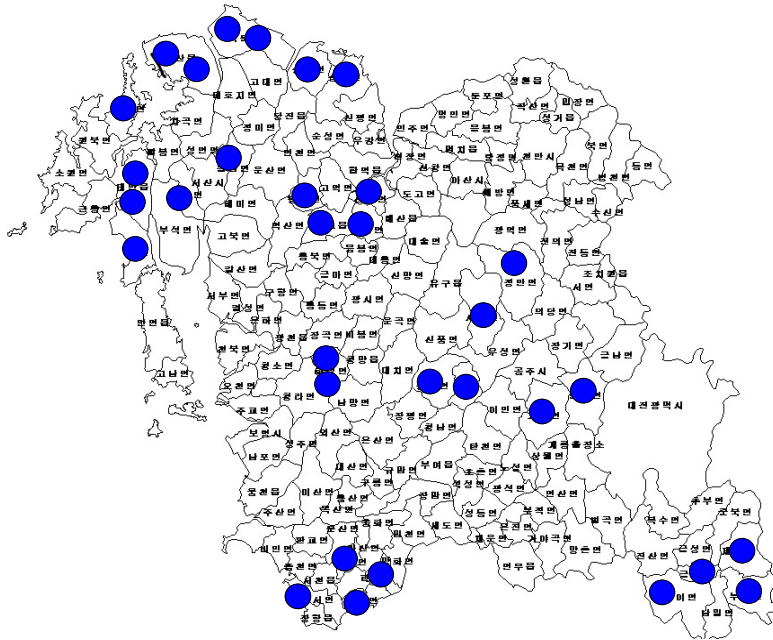
## 2) 충남도 농촌체험교육농장 현황

2006년부터 조성된 충청남도 농촌교육농장은 2010년 현재 32개소(조성중 4개소)이며, 식물·곤충관찰 및 체험, 염전체험, 공예, 영농체험 등이 주요테마이다. 시군별로는 당진, 서천, 공주, 금산, 청양, 예산, 태안 등에 각각 4개소가 조성되었고, 서산 4개소는 조성중에 있다.

〈표 3-29〉 충남농촌교육농장 현황

구 분	농장명	사업지역	주테마
'06	이근주(차브민)	당진 송산 가곡	허브·염전체험
	차인원(짚토)	당진 석문 교로	토우, 짚풀, 생활자기
	최승만(달구지 동물농장)	당진 석문 초락도	동물관찰, 승마, 낚시
	조옥자(맛존농장)	당진 송악 월곡	고구마·버·고추농사
'07	이응구(선암농장)	서천 시초 선암	야생화, 동물관찰학습
	정의국(아리랜드)	서천 마서 남전	생태관찰, 원예치료
	김순정(순정이네 농장)	서천 화양 봉명	친환경농업, 짚공예
	박호선(아이마을)	서천 기산 신산	토기체험, 흙놀이체험
'08	박영배(아이러브벅스)	공주 정안 인풍	곤 충
	안승환(엔젤농장)	공주 사곡 화월	꽃
	임철수(푸른숲)	공주 반포 도남	흙과 사람
	최영희(상보안농원)	공주 계룡 경천	친환경자연농업
	김진성(육백고지농장)	금산 남이 역평	토종벌생태
	서문일(곤키동물농장)	금산 금산 양지	애완곤충생태
	유상귀(금산교육농장)	금산 제원 신안	자연과의 조화
	신종교(승마교육농장)	금산 부리 창평	승마
	김기수(칠갑산무지개)	청양 정산 용두	양봉체험
	유원조(계봉농원)	청양 목면 본의	누에
	박수복(혜선농장)	청양 화성 장계	토종닭
	이종창(혜지원난농장)	청양 화성 용당	화훼(서랑란)
'09	차명숙(아람농장)	예산 오가 신장	사과체험
	최영상(풀벌레농장)	예산 신암 두곡	동충하초, 버섯
	유명옥(황토빛물든농장)	예산 삼교 평촌	황토염색, 벼농사
	이태형(햇살공간)	예산 봉산 봉림	과일수확, 가공
	손영철(산들바농장)	태안 이원 관1	동물, 식물 이야기
	한옥희(다온친환경농장)	태안 남면 달산1	친환경농산물
	가대현(상옥농장)	태안 태안 상옥	사과, 초가집
	이은옥(다솜농장)	태안 태안 송암	동양난
'10 (조성중)	김영자(도적골)	서산 대산 운산1	메밀, 도자기
	조상분(해담뜰)	서산 대산 운산5	표고버섯, 고구마
	김현주(꿈방울)	서산 인지 산동1	마늘, 염료작물
	이현웅(나비아이)	서산 음암 부산1	나비 등 곤충

자료 : 충남도농업기술원 내부자료.



[그림 3-10] 충남농촌교육농장 현황

## 제5절 시군 도농교류 정책현황 :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사례

### 1.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 농촌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5일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농촌체험 및 여가수요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주시는 과거 백제왕도·충남수부도시·도청소재지로서의 영광을 누렸으나, 현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대전시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공주시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공주시 거주인구를 증가시키는 시책이 바람직하지만, 인구감소시대에 급격한 거주인구 유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류인구를 증가시켜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한 것이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주시는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을 통해 공주를 스쳐지나가는 곳에서 머무르는 곳으로 개발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공주를 찾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순수한 우리의 것을 도시민에게 제공하여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주를 제2의 고향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2) 비전 및 목표

공주시는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의 비전으로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5도2촌 주말도시 창조**」를 내걸고 있고, 다음 3가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복지농촌건설, 둘째, 도시민에게 건전한 농촌체험 기회와 만족 제공, 셋째, 청정한 농촌 환경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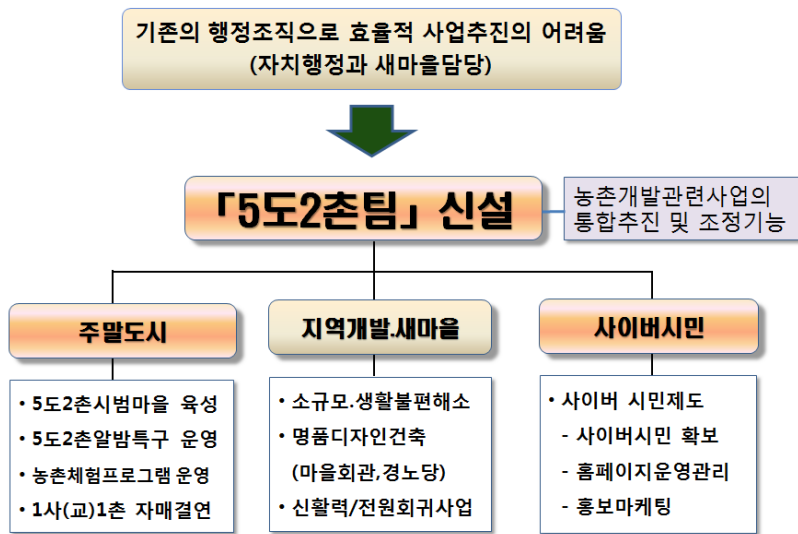
## 3)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

공주시는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관으로는 효율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촌개발사업의 통합추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5도2촌팀'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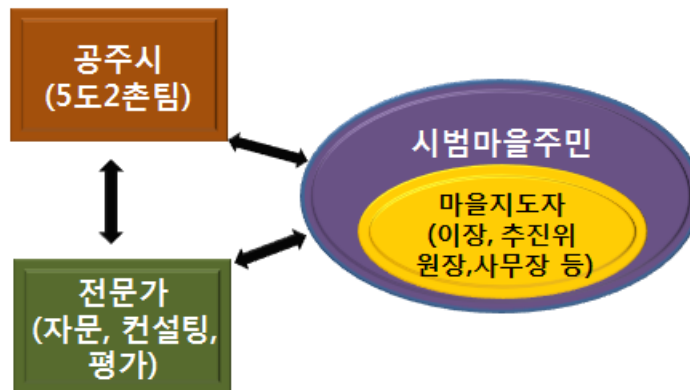
'5도2촌팀'에는 주말도시, 지역개발·새마을, 사이버시민 등 3개의 담당을 두고 있다. 주말도시담당은 5도2촌 시범마을 육성, 5도2촌 알밤특구,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 1사1촌, 지역개발·새마을담당은 소규모·생활불편해소, 명품디자인건축, 신활력 및 전원회귀사업, 사이버시민 담당은 사이버시민제도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주시의 '5도2촌팀'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농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라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공주시 5도 2촌 주말도시 사업은 공주시청내 5도 2촌팀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시범마을의 지도자(이장, 추진위원장 등)와 마을주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되, 전문가(대학교수) 등의 컨설팅 및 평가 등을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3-11] 공주시 5도2촌팀 담당업무



[그림 3-12]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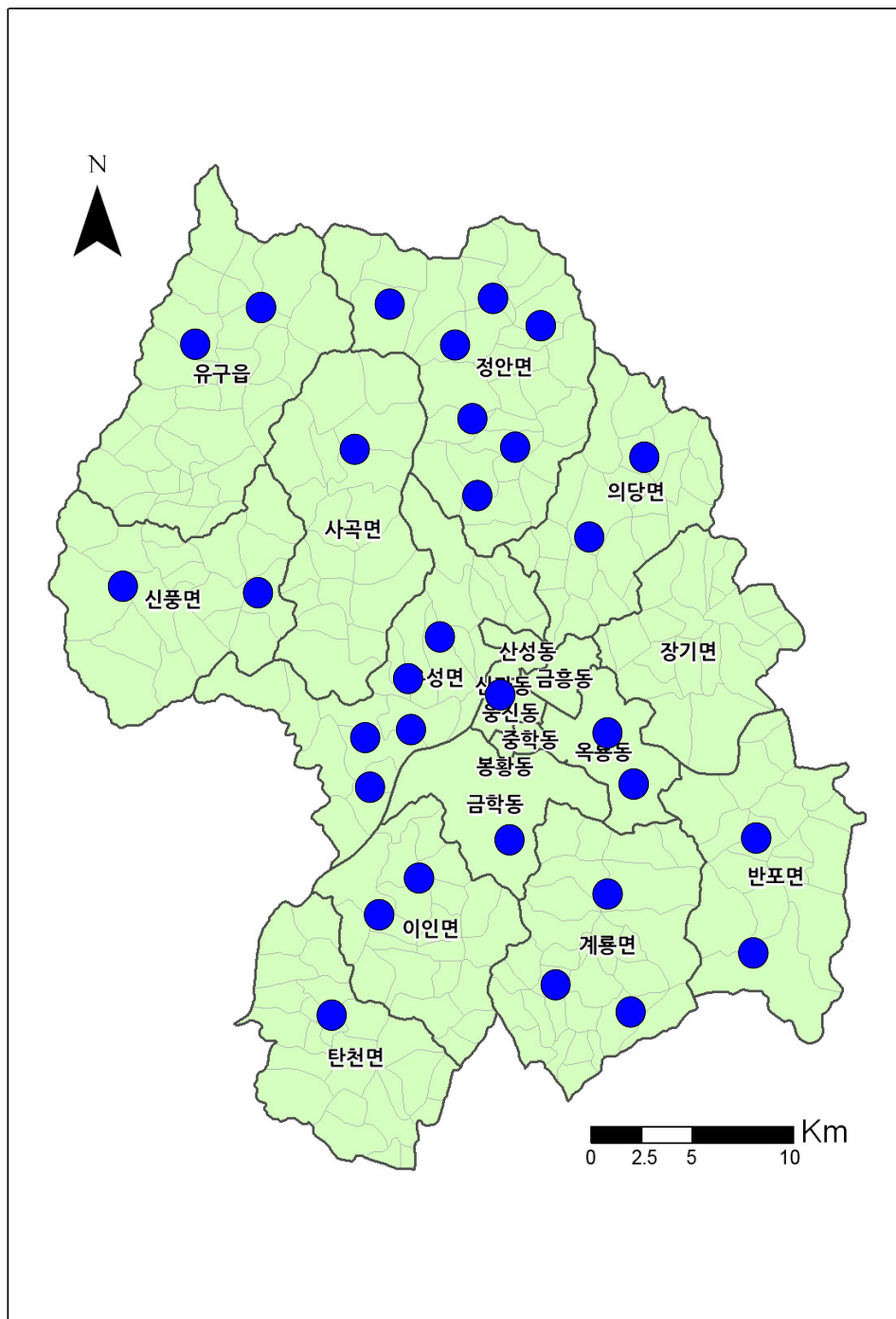
## 2. 5도2촌 마을 현황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은 2010년 현재 31개 마을(인구 5,730명, 가구 2,387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이들 마을의 65세 이상비율은 29.3%, 농가구비중은 77.2%로 농업이 중심이 된 고령화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주로 봄, 여름, 가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31개 마을 중 마을축제는 12개 마을에서 개최중이다.

〈표 3-30〉 5도2촌마을 현황

마을명	인 구		가 구		체험프로그램				마을 축체
	계	65세이 상 비율	계	농가 비율	봄	여름	가을	겨울	
유구읍 만천1리	182	27.47	79	87.34	○	○	○	○	×
유구읍 동해리	169	29.59	86	82.56	×	○	○	○	○
이인면 초봉리	329	24.92	132	84.85	○	×	○	○	×
이인면 구암2리	233	18.03	96	44.79	○	○	○	○	○
탄천면 대학2리	71	30.99	27	74.07	○	○	○	×	×
계룡면 내흥2리	197	25.38	91	60.44	○	×	○	×	×
계룡면 기산1리	272	25.00	108	92.59	○	○	○	×	×
계룡면 유평1리	155	25.16	65	70.77	○	○	○	○	×
반포면 온천1리	166	45.18	92	78.26	○	○	○	○	○
반포면 상신리	330	21.52	164	21.34	○	○	○	○	○
의당면 도신리	200	36.50	86	65.12	○	○	○	○	×
의당면 두만리	144	19.44	56	67.86	○	○	○	○	○
정안면 산성리	67	35.82	35	80.00	○	○	○	×	×
정안면 고성리	214	32.24	84	88.10	○	○	○	○	○
정안면 문천리	202	36.63	77	84.42	○	○	○	○	×
정안면 내문리	158	31.01	73	83.56	○	○	○	×	×
정안면 북계1리	200	33.00	64	84.38	×	○	○	×	×
정안면 쌍달리	94	39.36	49	85.71	×	○	○	×	×
정안면 어물리	201	28.36	75	82.67	○	×	○	×	×
우성면 한천리	139	46.04	63	79.37	○	○	○	×	×
우성면 반촌리	195	35.90	65	95.38	○	○	○	○	×
우성면 봉현리	176	26.70	82	89.02	○	○	○	○	○
우성면 내산1리	177	26.55	79	88.61	○	○	×	○	○
우성면 내산2리	127	37.01	53	90.57	○	○	×	○	×
사곡면 부곡리	137	26.28	44	79.55	○	○	○	×	×
신평면 대룡1리	115	20.00	43	81.40	○	○	○	○	○
신평면 선학리	178	33.71	77	97.40	○	○	○	×	○
금학동 검상통	315	17.14	148	84.46	○	×	×	○	×
옥룡동 상왕1통	157	28.03	41		○	○	×	×	○
옥룡동 성왕2통	207	20.29	71	49.30	○	○	○	×	○
신관동 무릉통	223	25.11	82	62.20	○	○	○	○	×



[그림 3-13] 공주시 5도2촌 마을현황

### 3. 추진단계 및 사업내용

#### 1) 추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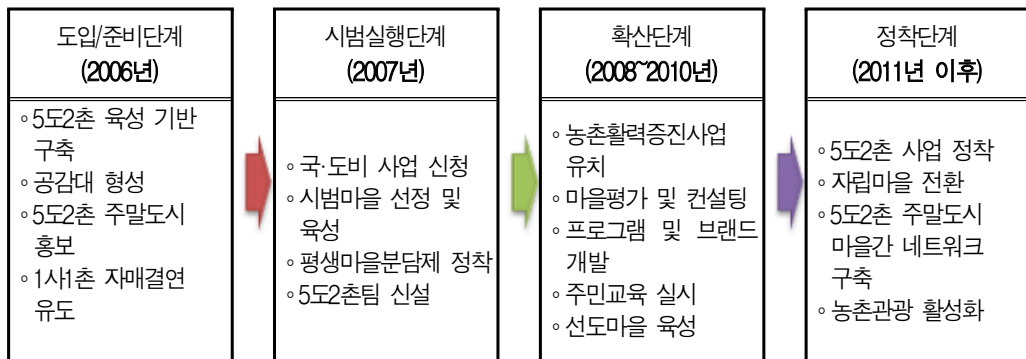
공주시는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의 추진 단계는 도입/준비단계(2006년), 시범실행단계(2007년), 확산단계(2008-2010년), 정착단계(2011년 이후) 등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도입/준비단계(2006)에서는 5도2촌주말도시사업의 육성기반 구축 및 홍보, 주민공감대 형성, 1사1촌 자매결연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시범실행단계(2007년)에서는 시범마을 선정 및 육성, 평생마을분담제 정착, 5도2촌팀 신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 확산단계(2008-2010년)에는 농촌활력증진사업유치, 마을평가 및 컨설팅, 주민교육 실시 및 선도마을을 육성하였다.

넷째, 정착단계(2011년 이후)에는 자립마을 전환, 5도2촌주말도시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3-14] 공주시 5도2촌사업의 추진단계

#### 2) 추진사업

공주시는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1) 읍·면별 「5도2촌시범마을」 육성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추진동력을 갖춘 자연친화적 마을을 읍면별 1~2개 우선선정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하며, 시범마을별 협의체 및 운영조직 구성 운영한다.

### (2) 지역인재 양성

시범마을 리더그룹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선진마을 견학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 인식 및 사업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주민들의 의지와 자신감 고취시킨다

- 농촌관광아카데미 : 2008년 초급 47명/10회, 중급 28명/5회, 2009년 36명/9회 수강
- 공주알밤아카데미 : 2008년 32명/12회, 2009년 32명/16회 수강
- 찾아가는아카데미 : 2009년 26개 마을 14회 396명 주민참여

### (3) 농촌다운 환경 조성

농촌의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 살거리, 일거리 등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농촌다운 환경을 조성한다.

- 볼거리 : 농촌다운 볼거리(지역의 문화유산, 동·식물 관찰, 청정한 농촌 자원과 농기구 등의 볼거리 제공)
- 먹거리 : 안전한 먹거리(유기농 재배 쌀, 채소, 과일 등 신선한 청정 먹거리 제공)
- 쉴거리 : 편안한 휴식처(민박, 마을회관, 노인정 등 시골냄새 풍기는 잠자리 제공 및 뒷동산, 논길, 제방길 등 산책로 개설)
- 놀거리 : 체험프로그램 운영(밤줍기, 산나물 채취, 논·밭농사 체험, 농가생활 및 예절, 전설, 풍습 등 전통문화유산 체험 등)
- 살거리 : 농·특산물 판매(밤, 버섯, 고추, 참깨, 콩 등 지역 농산물 소포장 판매)
- 알거리 : 지역문화유산 답사(백제왕도 문화 답사, 사찰문화 유산 탐구, 공주시티투어 운영 등)

#### (4) 사업 추진 전담팀 설치

5도2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0월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을 승인받아 전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도2촌팀」을 신설하였다.

#### (5) 마을발전구상 및 장기발전계획 발표 및 평가

선도마을, 향상마을, 진보마을, 노력마을로 시범마을을 평가하여 사업부진마을은 사업대상마을에서 제외한다. 가능성 있는 마을을 다시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진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6)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으로 공주를 찾는 도시민 및 온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여 공주를 알리는 홍보위원으로 활용한다. 2010년 5월 현재 24만명의 사이버 시민을 확보함으로써 공주시에 우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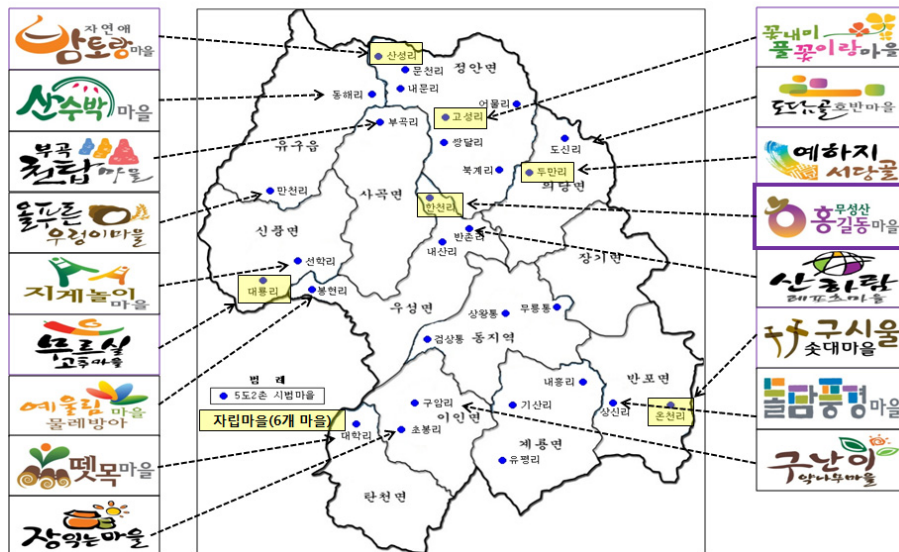
- 사이버시민제도의 목적
  - 공주시 사이버 시민제도는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외 거주자와 정보 교환 및 교류를 행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이버 시민과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이버시민자격
  - 사이버 시민은 공주지역 출신뿐만 아니라 공주에 관심 있는 국내 및 외국인을 망라하여 인터넷상에서 소정 요건에 맞게 등록된 분들은 모두 시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 사이버시민활동
  - 사이버 시민은 “공주”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사이버를 통하여 네트워크화 되고 살고 싶은 공주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등도 가능합니다.
- 사이버시민역할
  - 사이버 시민이되면 공주시 민간교류, 지역홍보, 지역발전 과제 등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주시의 홍보대사, 공주시 발전에 대한 조연자 및 서포터 역할을 하게됩니다.
- 사이버시민 교류사업
  - 사이버 시민에대한 교류사업으로는 고향정보 서비스, 지역특산물 주문판매, 농작물 오너제도, 할인쿠폰과 같은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사이버시민 나이갈 방향
  - 지역발전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람이며 이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이버 시민제도를 통하여 민간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사이버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주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이버시민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시민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 자문, 시민제도발전 등을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무원 평생마을 분담제」를 운영하여 마을의 전문가로 양성하고 5도2촌 사업 홍보 및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활동정도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다.

## (7) 마을 농촌체험프로그램 및 브랜드 개발

2008년 7개마을, 2009년 10개마을의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마을 이미지 제고 및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포장 판매시 홍보 효과 및 상품의 가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15] 공주시 5도2촌사업의 추진단계

## (8) 5도2촌 주말도시 특성화 사업 지원

2008년 5개마을 : 초봉리 전통메주가공시설, 문천리 다목적 쥬폴공예체험 및 직판장설치공사, 산성리 체류형 주말농장 설치, 선학리 지게민속마을 조성사업, 상신리 테마마을 조성사업

- 2009년 6개마을 : 한천리 밤식품제조 가공시설 설치, 구암리 알로에 장류체험관건립,



상신리 관광객을 위한 체험장 및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 등

-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2008년 대학2리 특성화마을 행정안전부 장려 입선)



[그림 3-16] 특성화사업 지원

#### (9) 마을의 자원을 이용한 마을주도형 축제

5도2촌마을 주민 스스로 축제기획, 집행은 물론 특산품을 포장, 진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 과정을 역할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개마을, 2009년 6개마을에서 마을 축제를 개최하였다.



[그림 3-17] 마을축제

#### (10) 각종 매체활용 홍보 및 마케팅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언론기관의 방송매체와 전광판, 지하철스크린도어, 온라인, 애드버토리얼, 여행전문잡지 게재, 여행전문블로거 초청 팸투어 등을 이용하고 있다.

〈표 3-31〉 5도2촌 주말도시육성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읍면별 선도(시범)마을 선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12월 5도2촌 시범마을 평가결과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난 6개 시범마을에 대해 자립마을 인정서 수여</li> <li>- 고성리, 한천리, 두만리, 산성리, 대룡1리, 온천1리</li> </ul>
지역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 양성</li> <li>• 마을역사, 문학, 풍습을 소개·안내하는 노인도우미 양성</li> <li>• 선진마을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li> </ul>
전원생활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교 등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개발(신평면 대룡1리 : 구 대룡초교를 공주자연공예체험관으로 리모델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운영)</li> </ul>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빈집 등 농촌주택을 소비자 웰빙공간으로 조성</li> <li>•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li> </ul>
명예시민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를 지속적으로 찾는 도시민에게 공주를 알리는 홍보요원으로 위촉</li> <li>• 사이버공주시민으로의 특별한 혜택과 자긍심 부여</li> <li>• 도농간 정보교류 및 생산적 상생교류를 도모하는 인터넷웹서비스 시스템 운영</li> <li>• 도농교류를 통한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매계기를 마련하여 시민의 소득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li>• 사이버시민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제도 보완</li> </ul>
공무원 평생마을 분담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시청 전직원을 평생분담마을 공무원으로 지정, 5도2촌 주말도시육성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li> <li>• 체험과 경험을 판매하여 제2의 고향만들기 추진</li> </ul>
1사 1촌 자매결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마을 22개 마을과 34개 기업이 자매결연,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li> </ul>
주민교육 및 현장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마을 리더그룹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1-2회 워크숍 개최 및 주민좌담회 실시</li> </ul>
마을주도형 축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문화, 전통,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개최</li> </ul>

자료 : 유정아,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p.59.

### 3) 마을별 제공 서비스현황

공주시 5도2촌 마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을 보면, 숙박, 음식물제공, 영농 및 문화체험, 농특산물 직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숙박이 가능한 마을 5개, 음식물제공이 가능한 마을 4개, 영농 및 문화체험이 가능한 마을 14개, 농특산물 직판장설치마을은 7개 마을이다.

따라서, 소수의 마을을 제외하고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 음식물제공, 영농 및 문화체험, 농특산물 직판 등의 서비스제공 기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표 3-32〉 5도 2촌주말도시 시범마을 제공서비스 현황

마을명	마을제공 서비스				비 고
	체류	음식	체험	직판	
판소리마을 신관동 검상통	-	-	-	-	故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소재
지게놀이 마을 신평면 선학리	-	△	○	-	민속놀이 지게놀이 전수 (신흥력 농촌관광마을, 참살기마을가꾸기)
고추마을 신평면 대룡1리	-	△	○	○	신평고추 주산지 겨울철 김장담그기 행사 개최
천탑마을 사곡면 부곡리	○	○	○	◎	물놀이, 돌탑쌓기 체험가능 (정보화마을, 팜스테이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청정마을 한천리 우성면 한천리	-	-	△	△	밤 친환경재배 (녹색농촌체험마을, 참살 기 마을가꾸기)
꽃내음스포츠타마을 우성면 반촌리	-	-	-	-	체육시설공간 마련 동호회에서 다수 방문
자영애플마을 정안면 산성리	○	△	△	○	여름철 행락객 많음, 광덕사, 마곡사와 인 접(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계획)
알밤칼국수마을 정안면 내문리	-	△	△	-	밤꽃걷기행사개최 알밤칼국수 음식 개발 (산촌종합개발사업)
풀꽃이랑마을 정안면 고성리	◎	◎	◎	◎	다양한 체험거리제공 무성산 자락 위치한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1사1촌자매결연 시범 마을)
서당골두메마을 의당면 두만리	-	-	△	-	오리쌀 재배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숫대마을 반포면 온천1리	-	△	○	○	주말농장 운영 구시울고기잡이 축제 개최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계룡산녹색농촌 체험마을 계룡면 내흥2리	-	△	○	△	대전-갑사간 도로가 있어 접근성 용이
뗏목마을 탄천면 대학2리	○	△	◎	○	뗏목체험 연 2,500명 방문 (참살기 마을가꾸기 사업)
두루미마을 이인면 초봉리	△	○	○	△	우렁이농법 시행 마을 두루미 서식지 있음 (신흥력 농촌관광마을)
운암산체험마을 이인면 구암2리	-	△	△	-	마을 토질 우수 조경수 등 묘목생산 적합
우렁이마을 유구읍 만천1리	-	△	○	◎	친환경 우렁이쌀 재배
산수박마을 유구읍 동해리	-	△	○	△	동해동 산수박 명품브랜드 해발 400m 고랭지 채소 재배

도신리마을 의당면 도신리	△	△	○	△	명륜밥 재배단지 강백년사우와 중흥저수지 주변경관 수려(팜스테이마을)
왕촌어버이마을 옥룡동 상왕1동	-	-	-	-	양로시설소재 상수원보호구역
왕촌봉사체험마을 옥룡동 상왕2동	-	-	△	-	소망공동체 소재
매화향기마을 탄천면 안영1리	-	-	△	-	고랭지 산수박, 채소재배, 우렁이 농법 시행
돌담풍경이 아름다운 상신리마을 반포면 상신리	-	-	△	-	계룡산 북쪽 계곡 내 위치 여름철 행락객 많음 (참살기 마을가꾸기)
어물리 정승마을 정안면 어물리	-	△	△	-	마을 내 밤 농장 많음 (산촌생태마을)
밤톨이마을 정안면 북계1리	-	-	△	△	밤나무 분양 사업추진 (정보화마을)
아름드리마을 정안면 쌍달리	△	△	○	△	주변자원으로 무성산, 정안천, 쌍달리 계 곡(녹색농촌체험마을)
물레방아마을 우성면 봉현리	-	-	○	-	상여소리보존회 구성 농기구 전시관 조성
김상정자마을 금학동 김상동	-	-	-	-	금강변에 위치한 구룡마을
허수아비마을 정안면 문천리	△	△	○	△	허수아비 축제 개최 연 1,200명 방문

주: ◎ 활성화, ○ 보통, △ 미흡, - 활동없음

#### 4) 5도 2촌마을 수요공급 특성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의 도농교류 공급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보면, 마을공동숙소, 부녀회 중심의 공동식사, 알밤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농특산물은 개별농가에서 구입가능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장 및 체험편의시설이 미흡하고 마을주민의 교류관련 전문지식은 부족한 편이다.

둘째, 수요측면에서 보면, 당일방문을 선호하고 재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농가민박을 선호하지만, 인근식당을 이용하며, 주로 알밤체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로 알밤이나 콩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당일 기준 가족1인당 3-5만원, 1박 기준 4-7만원을 소비하고 있다.

셋째, 방문객을 보면 대전 충남권에서 교육체험, 휴양, 휴식 등을 위해 가족단위로 방문하고 있다. 가을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33〉 도농교류 공급수요 특성분석

구 분	항 목	특 성
공급 특성	체류여건	마을공동숙소>농가민박
	식사여건	공동식사(부녀회)>민박농가제공
	체험여건	알밤체험>농업체험>문화체험
	교육체험여건	단순체험에서 교육체험 전환추세
	직판여건	개별 민박농가에서 구입
	운영조직	운영위원회>법인체 구성
	시설여건	체험장, 체험편의시설 미흡
	인력특성	농촌관광 전문교육 수준이 낮음
수요 특성	체류일수	당일형>1박2일
	재방문객	늘어남
	숙박장소	농가민박>마을공동시설>인근펜션
	식사장소	인근식당>마을공동>자가취사
	참여프로그램	알밤체험>농업체험>문화체험
	구입농산물	알밤, 콩 등
	권장서비스유형	체류>식사>체험
	소비특성	가족당일(3-5만원), 숙박(4-7만원), 단체당일(1만원), 숙박(2만원)
방문객 특성	거주지	대전 충남권>서울 수도권
	동반유형	가족단위>학생단체
	목적	교육체험, 휴양, 휴식
	연령대	청소년>유아, 어린이
	계절	가을>여름>봄
	성비	비슷함
	연간방문대	5백명 이상-1만명 이하(마을별 격차)
	3년간 방문추이	증가함(연간 10%)

자료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2008년 공주시 농촌관광 발전방향 심포지엄 : 백제고도의 역사문화자원과 상생하는 공주시 농촌관광, 2008, pp.52~53.

## 4. 사업성과와 문제점

### 1) 사업성과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은 단기간에 주목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시와 전문가, 주민으로 이루어지는 민·관·학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체험 관광 및 소득과 연계된 특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5도2촌 주말

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 및 마을별 브랜드 개발, 축제행사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둘째, 5도2촌 주말도시는 2008년 농촌활력증진사업(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57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으로 2008년에는 1,890백만원(국비 760, 시비 1,080, 민자 50), 2009년에는 1,604백만원(국비 500, 시비 629, 민자 39.2)을 투자하여 소득 및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5도2촌 시범마을 특성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알밤축제 및 5도2촌 마을별 축제 등의 행사를 지원하였다.

셋째, 5도2촌 주말도시 추진위원장 및 주민의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마을을 이끌 리더양성을 양성하고, 알밤오너제도, Second School, 홈스테이사업, 알밤가공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사업 등을 통해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을 정착화하고 확산을 유도하였다.

넷째, 농촌관광 및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을 통하여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특히 5도2촌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현재 5도2촌시범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은 자립기반을 갖추었고, 나머지 마을도 점점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주변 마을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하였고 시범마을을 희망하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를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특히 전국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으로는 알밤아카데미, 이노스쿨, 세컨드스쿨 사업등이 있으며, 특히 세컨드스쿨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 2) 문제점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시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정부 및 지자체의 농촌개발지원사업은 대부분 전액 또는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으나,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은 주민들의 자부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불만이 높아졌다.

둘째, 5도2촌 주말도시 사업 추진시 많은 시의원 및 공무원들 역시 S/W에 보다는 H/W적인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5도2촌 주말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S/W적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의원 및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의 추진 상황은 마을별로 격차가 상당히 크며, 읍·면장 및 관련 공무원의 관심이 많은 곳일수록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가 높아 지속적인 행정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과 인접마을 간 선의의 경쟁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나, 마을 이기주의로 인하여 주변마을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선도마을의 가시적 성과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 및 교육용 비디오나 영상물 등의 제작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들이 마을지도자 및 추진위원, 마을리더가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마을 전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일부지역의 경우 마을 지도자와 주민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 마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마을공동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마을 주체적으로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경비 지급 문제 등으로 전임사무장이 갖추어지지 않아 전문적으로 마을을 이끌어갈 사람이 부족하여 수익창출에 따른 이익분배나 주민간 의견차이, 오해, 갈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곱째, 주민들의 의지는 높으나 구체화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타 지역과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마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이 필요하다.

여덟째, 대부분의 5도2촌 주말도시 마을에서 식품위생법, 소방법, 건축물에 관한 제한 조건 등의 규제에 따라 기반시설의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5도2촌 마을의 숙박시설 구축 및 정비 부족으로 5도2촌 주말도시 숙박관광객의 일부는 공주시 및 대전광역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5. 5도 2촌 주말도시 활성화 방안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소집교육 보다는 현장참여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을주민들을 마을경영의 주체인 동시에 사업추진의 핵심자원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마을내 협의체 구성이나 의사결정기구, 법인경영체 등을 운영을 하거나 실효성 있는 규약의 제정을 통하여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을주민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질투·시기·이기심 등에 의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마을총회, 집합교육(찾아가는 아카데미, 농업기술센터 등) 등 각종 교육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마을 규약(내규)등을 제정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불신, 갈등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마을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을 마을간 연계를 통해 매력을 높이고 관광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인접마을간, 마을주제간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버시민제도 운영, 공무원 평생마을 분담제 등 인적네트워크 및 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계 및 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8] 5도2촌 주말도시 네트워크 구축안



넷째, 농촌 대부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유사하므로 마을별 특성화 사업을 통한 개성화, 차별화, 상품화가 필요하며, 주말도시 마을브랜드 개발,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모방위주가 아닌 특성화 전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 주민의 실질소득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과 기관, 기업체, 단체, 부녀회 등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자매결연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촌의 전통적인 생활관습과 행사 및 축제 등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의 주체인 마을주민의 역량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지닌 장기나 솜씨, 독특한 기능이나 예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섯째, 5도2촌 주말도시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우회, 사이버시민제도 운영, 대도시 안테나숍 설치, 포털사이트의 배너 및 홈페이지 내용 게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5도2촌 주말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관·산·학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선 마을주민들의 의욕과 투자가 전제된 자생적 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서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식의 지원은 지양해야 하며, 보조 타당성 검토 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을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개발과 대학 및 전문가의 컨설팅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6절 소 결

이상에서 살펴 본 도농교류의 의의 및 정책추진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관광, 팜스테이, 녹색관광, 농촌관광 등은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라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도농교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농업·녹색·농촌관광이 농촌주민의 소득향상 기회제공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비해, 도농교류는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도시·농촌상생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이들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는 인적교류 뿐 아니라

정보·문화·체험·자본 등의 교류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폭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도농교류 관련사항이 다양한 법률에 단편적으로 포함되어 도농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7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에 관한 법률” 제정은 도농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추진시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 도시민 수용기반시설 신축시 적용되는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에 의해 수립된 “도농교류 5개년 계획(2010-2014)”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교류사업을 도농상생이라는 비전하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은 부진한 실정이다.

셋째, 선진국의 도농교류는 농촌관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농균형발전, 농업농촌가치 보존, 고용창출 및 여가제공 수단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넷째, 농림부 등 정부가 주도하는 도농교류사업은 유사사업의 중복, 유사한 테마와 프로그램 양산, 인적자원 및 방문객 수용여건 부족, 방문객의 특정마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개발의 새로운 모델,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도농상생의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바가 크다.

다섯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언론 등 민간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 도농교류인재 양성 등의 사업은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 도시주민들에게 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충남도의 도농교류 정책은 본청 및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시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농교류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충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및 운용 중에 있다. 시군 역시 중앙정부 주도사업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도농교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관광 개별경영체, 체험마을, 농촌교육농장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도 팜스테이, 1사1촌, 1교1촌 등의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곱째,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청양군, 아산시, 금산군, 논산시 중심으로 체험마을이 분포하고 있고,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왔다. 다양한

체험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마을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덟째, 시군의 도농교류시책은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5도2촌 주말도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도2촌주말도시팀과 같은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마을 주민교육을 위해 대학 및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성공사례 도출을 시도한 점 등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반면, 주민의 자발적 투자미흡, 하드웨어중심의 지원, 마을이기주의 발생, 마을주민간 갈등 내재, 사무장 부재, 수익분배에 따른 의견차이, 체험프로그램의 유사중복, 숙박 및 음식시설 증개축 제한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제4장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실태분석 및 의식조사

### 제1절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이 조사는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의 도농교류 실태에 대한 마을대표자, 도농교류 전반에 대한 농촌 및 도시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촌 및 도시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도농교류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따라서 이 조사는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추진실태와 도농교류의 수요 및 공급에 기반한 도농교류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조사대상

농촌체험마을의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75개소, 전통테마마을 39개소)등 114개를 모집단으로 정하고, 이중 총90개 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56개소, 전통테마마을 34개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농촌 및 도시주민의 조사대상은 농촌주민의 경우 공주시 5도 2촌 체험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도시주민의 경우 대전시에 거주하는 남녀 20세 이상을 모집단으로 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표본은 무작위 추출하였다.

#### 3. 조사방법

이 조사는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전리서치센터 전문면접조사가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질문하는 1:1면접조사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농촌체험마을 대표자가 거주하는 마을을 방문하여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촌주민의 공주시 5도 2촌마을 31개 마을주민 90명(마을별 3부), 도시주민은 대전시 전민동 주민 9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였다.

## 4. 조사항목

마을조사 항목은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7개 변인을 구성하는 항목 및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농촌 및 도시주민조사 항목은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도농교류의 실태 및 문제점, 도농교류의 활성화 방안,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설문항목의 구성

구 분	마을대표자	구 분	농촌 및 도시주민
	항 목		항 목
체험마을정비 및 교류기반	도농교류시설 존재 및 활용	도농교류 인식	도농교류 인지여부
	자매결연 체결		도농교류 필요성
주민소득증대	축제개최 시기		도농교류 필요정도
	축제개최 최초연도		도농교류 성과의 중요성
	축제참여 도시방문객 수		도농교류시설의 필요성
	마을방문 도시민수		도농교류 도움여부(농촌·도시)
	도농교류이후 변화	도농교류 실태 및 문제점	알고있는 도농교류유형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사무장 채용여부연수		도농교류사업 추진기관
	도농교류 교육 및 연수		정부, 지자체, 농협추진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평가
	연수기간, 이수연도, 교육횟수		도농교류 문제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교류주체 역할의 중요성
	주민교육 실시여부		활성화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선진마을 견학경험 및 횟수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항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농교류 프로그램		
갈등의 효율적 관리	도농교류 확인석 발급경험 및 계획		
	주체들간의 갈등		
홍보 및 마케팅	운영과정상 장애요인		
	홍보수단		
	마을홈페이지 보유여부		
지원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만족도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신청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사항		

## 제2절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조사

### 1. 일반사항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93.3%(84명), 여자 6.7%(6명)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체험마을의 대표자가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연령은 50대 51.1%(46명), 40대 22.2%(20명), 60대 21.1%(19명), 30대 3.3%(3명) 등의 순으로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을직책은 추진위원장이 81.1%, 마을이장 7.8% 등이며, 마을유형은 녹색농촌체험마을 57.8%, 농촌전통테마마을 37.8%, 직업은 농업90.0%, 체험마을의 위치는 금산군과 청양군이 각 10개소 계룡시가 1개소이다.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표본수 = 90)		빈도(N)	비율(%)	구 분(표본수 = 90)		빈도(N)	비율(%)
성별	남자	84	93.3	직업	벼, 과수원 등 농업	81	90.0
	여자	6	6.7		농업외	9	10.0
	합계	90	100.0	위치	천안시	2	2.2
연령	30~49세	3	3.3		공주시	7	7.8
	40~49세	20	22.2		보령시	5	5.6
	50~59세	46	51.1		아산시	9	10.0
	60~69세	19	21.1		서산시	6	6.7
	70세 이상	2	2.2		논산시	8	8.9
직책	추진위원장	73	81.1		계룡시	1	1.1
	개발위원장	4	4.4		금산군	10	11.1
	사무장	5	5.6		연기군	4	4.4
	마을이장	7	7.8		부여군	5	5.6
	기타	1	1.1		서천군	5	5.6
	합계	90	100.0		청양군	10	11.1
마을 유형	녹색농촌체험마을	56	62.2		홍성군	4	4.4
	농촌전통테마마을	34	37.8		예산군	6	6.7
					태안군	5	5.6
					당진군	3	3.3

## 2.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

### 1) 도농교류시설 존재 및 활용

도농교류시설 존재 및 활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농촌체험시설, 숙박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의 보유비율이 높지만, 농산물판매시설의 보유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으나 도농교류센터 등 도농교류시설은 미활용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3〉 도농교류시설의 존재 및 활용여부

사 업 명	존재여부		활용여부	
	있다	없다	활용	미활용
농촌체험시설(영농체험, 생활체험, 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85(94.4)	5(5.6)	84(98.8)	1(1.2)
숙박시설(농가민박, 마을회관, 펜션, 황토방 등)	86(95.6)	4(4.4)	83(96.5)	3(3.5)
방문객 편의시설(주차장, 야영장, 쉼터, 정자 등)	85(94.4)	5(5.5)	84(98.8)	1(1.2)
도농교류시설(도농교류센터, 방문자센터, 교육관 등)	75(83.3)	15(16.7)	71(94.7)	4(5.3)
농산물 판매시설(특산물 판매소, 구판장, 인터넷쇼핑몰 등)	57(63.3)	33(36.7)	57(100)	-

### 2) 자매결연 체결 여부

농촌체험마을은 민간기업체와 가장 많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청 및 학교,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의 순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표 4-4〉 자매결연 체결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민간 기업체	32	30.8
소비자 단체(아파트 부녀회 포함)	9	8.7
공공기관 및 연구소	20	19.2
농협	7	6.7
교육청 및 학교	23	22.1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	12	11.5
기타	1	1.0
계	104	100.0

### 3. 주민소득증대 방안

#### 1) 축제개최시기

축제는 여름 38.5%, 가을 26.2%, 봄 23.1% 등의 순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봄·여름·가을에 전체축제의 87.7%가 집중되어 있다.

〈표 4-5〉 축제개최 시기

구 분	빈도(명)	비율(%)
봄	15	23.1
여름	25	38.5
가을	17	26.2
겨울	8	12.3
계	65	100.0

#### 2) 축제 최초개최연도

축제는 2006-2010년 기간중 63.1%가 최초로 개최되었고, 2001-2005년기간중 21.5%가 개최됨으로써 마을축제는 대부분 최근에 와서야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축제 최초개최연도

구 분	빈 도	비 율(%)
1990년 이전	3	4.6
1991-2000년	7	10.8
2001-2005년	14	21.5
2006-2010년	41	63.1
계	65	100.0

축제에 참여한 도시방문객수는 101-500명이 36.9%로 가장 많고, 100명 이하와 1001-3000명이 각각 20.0%를 차지하고 있다. 500명 이하가 참여하는 마을축제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마을축제의 방문객 규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축제참여한 도시방문객수

구 분	빈도(명)	비율(%)
100명 이하	13	20.0
101-500명	24	36.9
501-1000명	7	10.8
1001-3000명	13	20.0
3001-10000명	5	7.7
10001명 이상	3	4.6
계	65	100.0

### 3) 마을방문 도시민수

2009년 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수는 총 375,290명으로 마을당 평균 4,170명이며, 2010년은 조사시점까지(7월 초) 251,530명으로 마을당 평균 2,795명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마을방문 도시민수는 101~500명이 가장 많고, 3,001~10,000명, 1,001~3,000명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000명 이하가 방문한 마을이 43개로 전체의 47.8%, 5,000명 이하가 방문한 마을이 74개로 전체의 8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8〉 마을방문한 도시방문객수

구 분	2009		201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문인원없다	2	2.2	1	1.2
1-100명	4	4.5	14	16.7
101-500명	21	23.3	27	30.0
501-1,000명	16	17.8	18	20.0
1,001-3,000명	18	20.0	13	14.4
3,001-5,000	13	14.4	6	6.7
5,001-10,000명	6	6.7	6	6.7
10,000명 이상	10	11.1	5	5.6
계	90	100.0	90	100.0

### 4) 도농교류이후 변화

도농교류이후 농촌체험마을의 변화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을방문자수와 마을전체 소득의 증가비율이 높은 반면, 정부나 행정기관 지원금 증가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사업으로

마을방문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판매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는 마을전체 소득향상과 마을 공동기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도농교류이후 변화

항 목	계	감소	변함없음	증가
마을전체 소득	90 (100.0)	4 (4.4)	19 (21.1)	67 (74.4)
마을 공동기금	90 (100.0)	6 (6.7)	20 (22.2)	64 (71.1)
정부나 행정기관 지원금	90 (100.0)	2 (2.2)	35 (38.9)	53 (58.9)
마을방문자 수	90 (100.0)	6 (6.7)	13 (14.4)	71 (78.9)
농산물판매 소득	90 (100.0)	2 (2.2)	23 (25.6)	65 (72.2)

## 4.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 1) 사무장 채용여부

농촌체험마을의 63.3%가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어 도농교류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마을은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지 않아,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농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사무장 채용이 필요할 것이다.

〈표 4-10〉 사무장 채용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있 다	57	63.3
없 다	33	36.7
합 계	90	100.0

## 2) 도농교류 교육 및 연수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들의 교육 및 연수는 총 78회로 마을당 평균 0.9회이다. 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농촌사랑연수원, 농어촌공사, 지역대학의 농촌관광아카데미 등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3) 연수기간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1일 11.5%, 2일 25.6%, 3일 35.9% 등 3일 이하가 전체의 73.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단기간의 교육 및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1〉 교육 및 연수기간

구 분	빈 도(N)	비 율(%)
1일	9	11.5
2일	20	25.6
3일	28	35.9
4일	5	6.4
6일	2	2.6
7일	1	1.3
10일	3	3.8
12일	4	5.1
15일	1	1.3
20일	3	3.8
30일	1	1.3
1년	1	1.3
합계	78	100.0

## 4) 이수연도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들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이수연도는 2009년이 76.9%를 차지하고 있어 2009년부터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이수연도

구 분	빈 도	비율(%)
2008	2	2.6
2009	60	76.9
2010	16	20.5
합계	78	100.0

교육회수는 1회 76.9%, 2회 15.4%로 2회 이하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 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교육횟수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1회	60	76.9
2회	12	15.4
3회	3	3.8
4회	1	1.3
5회	1	1.3
10회	1	1.3
합계	78	100.0

도농교류 교육에 대해 98.7%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도농교류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4〉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만족	77	98.7
불만족	1	1.3
합계	78	100.0

## 5) 주민교육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은 시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 30.0%, 농촌체험 교육기관에서 연수 22.2%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반면, 주민교육이 없다는 응답도 2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5〉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빈 도	빈도	퍼센트
없다	26	28.9
지역대학에 주민교육프로그램 설치	7	7.8
전문가들이 마을에서 교육	9	10.0
농촌체험 교육기관에서 연수	20	22.2
시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	27	30.0
기타	1	1.1
합계	90	100.0

## 6) 선진마을 견학경험

2009년도 선진마을 견학은 도내마을 95회, 도외마을 131회 실시하였다. 마을을 견학한 총인원은 2,638명이며, 마을당 평균 33.8명이 견학에 참여하였다. 선진마을 견학은 도외마을 131회, 도내마을 95회로 도외마을을 더 빈번하게 방문하였고, 주로 1~2회의 방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4-16〉 선진마을 견학경험

구 분	도 내	도 외
방문횟수(회)	95	131
참가인원(명)	2,638	
마을당 평균참가인원(명)	33.8	

〈표 4-17〉 선진마을 견학횟수(2009년)

구 분	도내마을		도외마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회	23	50.0	36	51.4
2회	11	23.9	19	27.1
3회	6	13.0	7	10.0
4회	2	4.3	5	7.1
5회	2	4.3	2	2.9
6회	1	2.2	1	1.4
8회	1	2.2	-	-
합계	46	100.0	70	100.0

## 5.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 도농교류 프로그램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프로그램은 농촌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숙박시설 제공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마을교류시설 제공프로그램과 농산물직거래판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4-18〉 도농교류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계	존재여부	
			있다	없다
농촌체험 및 관광	영농체험, 농촌생활체험, 자연생태체험, 공예체험, 전통놀이체험, 레포츠체험, 관광연계체험	90 (100.0)	88	2
마을행사 & 이벤트	마을축제, 농촌문화행사기획, 마을행사 초청, 농산물 품평회 개최	90 (100.0)	75	15
농산물직거래판매	직거래장터운영, 선물용 농산물판매, 계약재배	90 (100.0)	74	16
마을교류시설 제공	주말농장 분양, 워크숍장소 제공, 자매결연 기업 및 가족 위한 휴양공간 활용	90 (100.0)	72	18
숙박시설 제공	농가민박, 펜션, 마을회관, 황토방 등에서 숙박	90 (100.0)	86	4
음식물제공	민박, 펜션, 마을회관 등에서 음식물 제공	90 (100.0)	76	14

#### □ 봄 프로그램

작물심기체험, 예술체험, 흥도화축제, 도예체험, 감자, 고구마심기, 모심기, 옥수수심기, 낚시체험, 시조짓기, 벚꽃축제, 탈놀이, 딸기체험, 개구리생태체험, 봄나물캐기, 선왕제체험, 고사리꺼기, 조개부르기, 두부만들기, 표고버섯, 농산물심기, 옥녀봉진달래꽃길 걷기, 찐빵만들기, 씨앗심기, 메주만들기, 일손돕기, 약초캐기, 다슬기잡기, 인삼캐기, 물고기잡기, 마차타기, 인절미만들기, 대나무심기, 고사리축제, 된장제조체험, 전통가옥체험, 전통음식체험, 갯벌체험, 표고버섯따기, 장승깎기, 목걸이만들기, 꽃사탕만들기, 산양젖짜기, 비누만들기, 동물농장견학체험

## □ 여름 프로그램

미꾸라지잡기, 숙회, 천연비누만들기, 포도따기체험, 물고기잡기, 배만들어 띄우기, 삼베짜기, 다식만들기, 감자, 고구마캐기, 다슬기잡기, 인삼캐기, 병만들기, 도예체험, 물놀이, 두부만들기, 농사체험, 생태체험, 옥수수수확, 전통음식체험, 황토놀이, 연변체험, 조개캐기, 신두리사구체험, 황토염색, 칠월칠석놀이, 된장, 청국장체험, 찌떡만들기, 대추따기, 토마토따기, 난기르기, 숯체험, 포도주담기, 소리축제, 뗏목타기, 딸기심기, 장승사진찍기, 갯벌체험, 우유·치즈만들기, 야채, 채소따기, 매실엑기스만들기, 화채만들기, 원추리꽃축제, 과일따기, 나물뜯기, 시골정거장체험, 솔잎동동주만들기, 강낭콩따기, 죽공예, 인절미떡매치기, 포도봉지씌우기체험, 매실따기, 식물, 곤충채집, 야생꽃심기, 꽃사탕만들기, 널뛰기, 복분자따기

## □ 가을 프로그램

호두과자굽기, 밤줍기, 사과따기, 사과가공식품만들기, 작물수확체험, 감자, 고구마캐기, 고추따기, 염색체험, 인삼캐기, 무예체험, 도자기체험, 기체험, 실뱀장어방류, 저수지물밤따기, 갯벌체험, 벼까리체험, 두부만들기, 단호박따기, 버베기, 타작하기, 감따기, 도라지캐기, 백제박물관관광체험, 콩수확, 우렁잡기, 대추따기, 옥수수따기, 꽃감만들기, 인절미만들기, 과일수확, 과일잼·쥬스만들기, 딸기요리체험, 야생화기르는법, 음식만들기, 트랙터체험, 원두막체험, 전통방아체험, 솔숲체험, 땅콩캐기, 참맛조개잡기, 가을것이일손돕기, 포도잼, 포도주담기체험, 소달구지타기, 나무권총만들기, 말타기, 토종닭알줍기, 염전체험, 마늘음식체험

## □ 겨울 프로그램

논썰매타기, 대보름축제, 김장담기체험, 빙어잡기, 썰매타기, 별자리체험, 놀이문화체험, 연날리기, 철새도래지관광, 바닷가 굴체험, 갯벌체험, 옷놀이, 인절미떡매치기, 새끼꼬기, 목공예체험관, 겨울철먹거리체험, 대나무체험, 문학교실(서예), 얼음성쌓기, 산골음악회, 염색체험, 천연비누만들기, 딸기따기, 딸기요리체험, 고구마묵만들기, 조류탐사체험, 짚풀공예, 탁보체험, 백제토기만들기, 부여관광연계체험, 전통가옥축제, 전통벚가리제, 감자수제비만들기, 두부만들기, 황토찜질방체험

## 2) 도농교류확인서 발급한 경험 및 발급계획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외체험학습 인정근거가 되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해준 마을은 50%이다. 발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향후 발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6.7%가 발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로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9〉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여부

구분	발급여부		발급계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있다	45	50.0	39	43.3
없다	45	50.0	6	6.7
합계	90	100.0	45	100.0

## 6. 갈등의 효율적 관리

### 1) 주체들간의 갈등

도농교류 주체들간의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마을주민간 갈등이 3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마을대표자와 주민간 갈등이 24.4%인 반면, 마을대표자들간 및 마을대표자와 행정기관간 갈등은 각각 12.2%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마을주민간 및 마을대표자와 마을주민간 갈등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0〉 마을주민간 갈등

구분		빈도	비율(%)
마을주민간	전혀 없다	11	12.2
	없는 편이다	47	52.2
	있는 편이다	30	33.3
	매우많다	2	2.2
	합계	90	100.0
마을대표자와 주민간	전혀 없다	14	15.6
	없는 편이다	54	60.0
	있는 편이다	21	23.3
	매우많다	1	1.1
	합계	90	100.0
마을대표자들간	전혀 없다	18	20.0
	없는 편이다	61	67.8
	있는 편이다	11	12.2
	합계	90	100.0
마을대표자와 행정기관간	전혀 없다	31	34.4
	없는 편이다	48	53.3
	있는 편이다	11	12.2
	합계	90	100.0



## 2) 운영과정상 장애요인

도농교류사업 운영과정상 장애요인으로 인력부족 및 주민의 비협조 24.4%, 홍보부족 14.4%, 체험프로그램 부족 13.3%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4-21〉 도농교류사업 운영과정상 장애요인

구 분	빈도(명)	비율(%)
체험프로그램 부족	12	13.3
인력부족 및 주민의 비협조	22	24.4
소득증대효과 미흡	11	12.2
홍보부족	13	14.4
편의시설 및 체험기반시설 부족	7	7.8
비용부담 또는 수익금 배분 문제	8	8.9
마을대표자, 주민 등의 갈등	2	2.2
장애요인 없이 잘 운영	12	13.3
쓰레기 처리	2	2.2
주민들의 무관심	1	1.1
합계	90	100.0

## 7.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 1) 홍보수단

도농교류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마을홈페이지가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마을축제 개최, 홍보팸플렛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축제와 홍보팸플렛을 이용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마을홈페이지에 의존한 홍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이 채원투자가 필요 없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발굴하여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표 4-22〉 도농교류 홍보수단

구 분	빈도(명)	비율(%)
마을홈페이지	43	47.8
시청, 군청 홈페이지	5	5.6
홍보팜플렛	11	12.2
지역신문이나 TV	2	2.2
축제개최	12	13.3
기업체, 학교 등에 대한 홍보	8	8.9
마을안내 홍보관 설치	5	5.6
입소문	3	3.3
인터넷카페 · 블로그	1	1.1
합계	90	100.0

## 2) 마을홈페이지 보유여부

마을홈페이지는 80.0%의 마을에서 개설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음, 향후 계획중인 마을도 5.6%에 달하고 있다.

〈표 4-23〉 마을홈페이지 보유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있다	72	80.0
없다	13	14.4
현재 없지만 계획중이다	5	5.6
합계	90	100.0

## 3)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마을홈페이지를 보유한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2.0%로 대부분의 마을 홈페이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약20%정도는 불만족하고 있어 마을홈페이지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4〉 마을홈페이지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12	16.7
만족하는 편	47	65.3
만족하지 않는 편	12	16.7
매우 불만족	1	1.4
합계	72	100.0

## 8.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 1)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농촌체험마을의 70.0%가 마을발전을 위한 청사진인 중장기 마을발전계획이 수립하고 있으나, 30%의 마을은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농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5〉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수립되어 있다	63	70.0
수립되어 있지 않다	27	30.0
합계	90	100.0

### 2)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

2008년부터 시행된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93.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들은 도농교류에 대한 정책동향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6〉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 인지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알고 있다	84	93.3
모른다	6	6.7
합계	90	100.0

### 3)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신청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에 의거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73.3%가 신청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상당수의 마을이 도농교류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7〉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신청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그렇다	66	73.3
그렇지 않다	24	26.7
합계	90	100.0

### 4)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사업비 지원이 30.0%, 도농교류 사업홍보 15.6%, 마을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13.3%, 도농교류시설확충 10.6%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홍보, 전문인력 양성, 시설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도 도농교류사업을 행정기관의 사업비 지원에 의존하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상당수의 마을이 자립적 마을발전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8〉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내 갈등 해소	6	3.3
주민의 선진지역 견학 및 교육	16	8.9
도농교류 시설 확충	19	10.6
행정기관의 사업비 지원	54	30.0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컨설팅	11	6.1
마을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24	13.3
도농교류 사업 홍보	28	15.6
농특산물 판매지원	12	6.7
행정기관-마을대표-마을주민간 연계체계 구축	6	3.3
체험마을-교육농장-개별농가간 연계체제 구축	4	2.2
계	180	100.0%

### 제3절 농촌 및 도시주민 조사

#### 1. 일반사항

응답자의 일반사항은 성별은 56.1%가 남자, 43.9%가 여자, 연령은 40대 26.1%, 50대 21.7%, 30대 17.2%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고, 거주지역은 농촌 및 도시 각각 50%로 조사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8.9%, 대학교 졸업 18.9%, 전문대학졸업 13.9%, 소득은 250~300만원 미만 19.4%, 300~350만원 미만 16.7%, 200~250만원 미만 16.1% 등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9〉 일반사항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자	101	56.1
	여자	79	43.9
	합계	180	100.0
연 령	30세 미만	16	8.9
	30~39세	31	17.2
	40~49세	47	26.1
	50~59세	39	21.7
	60~69세	23	12.8
	70세 이상	24	13.3
	합계	180	100.0
거주 지 역	농촌마을	90	50.0
	도시	90	50.0
	합계	180	100.0
학 력	무 학	10	5.6
	초등학교 졸업	19	10.6
	중학교 졸업	19	10.6
	고등학교 졸업	70	38.9
	2년제 전문대학 졸업	25	13.9
	4년제 대학 졸업	34	18.9
	대학원 졸업	3	1.7
	합계	180	100.0
소 득	100만원 미만	15	8.3
	100~150만원 미만	25	13.9
	150~200만원 미만	28	15.6
	200~250만원 미만	29	16.1
	250~300만원 미만	35	19.4
	300~350만원 미만	30	16.7
	350~400만원 미만	12	6.7
	400만원 이상	6	3.3
	합계	180	100.0

## 2.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 1)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인식

도농교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21.7%,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7.2%로 89.9%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도농교류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11.1%에 불과하여 도시-농촌주민 대부분이 도농교류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주민에 비해 농촌주민이 도농교류를 매우 잘 안다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은 반면, 농촌주민보다 도시주민이 모른다는 비율은 5배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농촌주민이 도농교류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0〉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잘 알고 있음	39	21.7	26	28.9	13	14.4
알고 있음	121	67.2	61	67.8	60	66.7
모르고 있음	18	10.0	3	3.3	15	16.7
전혀 모르고 있음	2	1.1	-	-	2	2.2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 2) 도시와 농촌교류 필요성

도시와 농촌교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98.3%로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도시 보다는 농촌주민이 적극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4-31〉 도시와 농촌교류 필요성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필요	94	52.2	52	57.8	42	46.7
필요	83	46.1	37	41.1	46	51.1
필요하지 않음	3	1.7	1	1.1	2	2.2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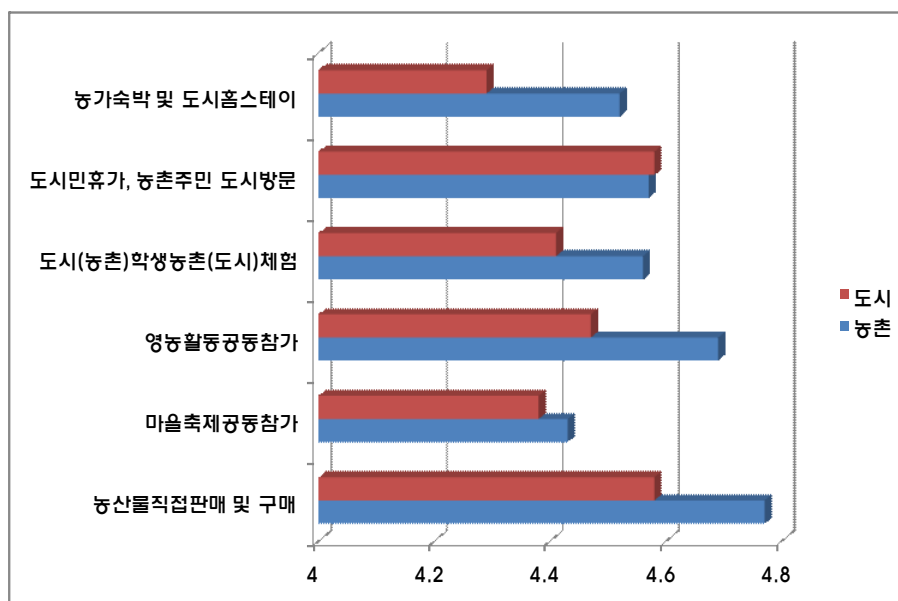
### 3) 도시와 농촌교류 필요정도

5간 척도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교류 필요정도를 질문한 모든 분야에 대해 농촌-도시 모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직접판매 및 구입, 영농활동공동참가, 도시-농촌학생 상호체험, 도시가족농가숙박·농촌가족도시홈스테이에 대해 농촌주민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도시주민보다 농촌주민의 교류필요성이 더 절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2〉 도시와 농촌교류 필요정도

구 분	농촌	도시
농산물직접판매 및 구입	4.77	4.58
마을축제 공동참가	4.43	4.38
영농활동 공동참가	4.69	4.47
도시(농촌)학생농촌(도시)체험	4.56	4.41
도시민휴가, 농촌주민 도시방문	4.57	4.58
도시가족 농가숙박, 농촌가족 도시홈스테이	4.52	4.29

1점 : 전혀중요하지 않음, 2점 : 중요하지 않은 편, 3점 보통, 4점 중요한편, 5점 매우중요함



#### 4) 도시와 농촌교류에 대한 도움

도농교류가 도시, 농촌 어디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느냐는 물음에 농촌과 도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응답도 37.2%에 달한다. 주민들은 도농교류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도시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촌주민들은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3〉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촌	67	37.2	40	44.4	27	30.0
도시	33	18.3	9	10.0	24	26.7
농촌과 도시	80	44.4	41	45.6	39	43.3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 5) 농촌에 더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

도농교류가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자는 농산물 판매로 인한 소득증대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73.1%). 농촌 및 도시주민 모두 동일한 응답을 하고 있으나, 농촌의 부족한 일손돕기와 농촌생활을 알리고 이해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34〉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산물 판매로 인한 소득증대	49	73.1	28	70.0	21	77.8
농촌의 부족한 일손돕기	6	9.0	4	10.0	2	7.4
도시자본의 농촌유치가 가능	1	1.5	1	2.5	0	0
농촌생활을 알리고 이해시킴	6	9.0	4	10.0	2	7.4
도시민의 방문으로 농촌이 활력	4	6.0	3	7.5	1	3.7
도시주민들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1	1.5	0	0	1	3.7
합 계	67	100.0	40	100.0	27	100.0



## 6) 도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

도농교류가 도시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신선한 먹거리로 도시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27.3%). 그러나 농촌주민은 농촌 체험학습으로 도시학생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44.4%). 즉, 농촌주민은 교육측면, 도시주민은 건강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5〉 도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촌에서 휴양 및 휴식으로 도시민의 여가증진	7	21.2	1	11.1	6	25.0
농촌체험학습으로 도시 학생의 인성교육에 도움	9	27.3	4	44.4	5	20.8
신선한 먹거리로 도시주민의 건강 증진	10	30.3	3	33.3	7	29.2
농촌의 전통문화 체험으로 문화욕구 충족	7	21.2	1	11.1	6	25.0
합 계	33	100.0	9	100.0	24	100.0

## 3. 도농교류 실태 및 문제점

### 1) 도농교류 유형

주민들이 알고 있는 도농교류 유형 중 농산물 직거래(18.0%), 농촌체험 및 관광(16.0%), 주말농원(14.7%) 등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과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 및 도시주민들은 다양한 교류유형을 인지하거나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6〉 도농교류 유형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사1촌, 1교1촌 자매결연	105	13.1	52	12.6	53	13.6
농촌체험 및 관광	129	16.0	61	14.7	68	17.4
농촌마을 축제참여	80	10.0	41	9.9	39	10.0
주말농원	118	14.7	59	14.3	59	15.1
농산촌 유학	34	4.2	15	3.6	19	4.9
농촌체험교육 농장	109	13.6	55	13.3	54	13.8
농산물 직거래	145	18.0	80	19.3	65	16.7
농협 팜스테이	40	5.0	17	4.1	23	5.9
기타	44	5.5	34	8.2	10	2.6
합 계	804	100.0	414	100.0	390	100.0

## 2) 도농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관

도농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관은 충남도와 시군자치단체라는 응답이 62.8%이고, 다음으로 중앙정부(20.0%), 농협(13.9%) 등으로 나타나. 도농교류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도시주민의 경우 충남도와 시군자치단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앙정부와 농협에 대한 응답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있지는 못하다.

〈표 4-37〉 도농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관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앙정부	36	20.0	15	16.7	21	23.3
충남도, 시군 자치단체	113	62.8	64	71.1	49	54.4
농협	25	13.9	9	10.0	16	17.8
민간기업체	3	1.7	0	0	3	3.3
학교	1	0.6	0	0	1	1.1
소비자단체	2	1.1	2	2.2	0	0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 3)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평가

도농교류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83.9%에 달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1.7%에 불과해 도농교류사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8〉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평가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47	26.1	25	27.8	22	24.4
긍정적으로 평가	104	57.8	55	61.1	49	54.4
보통으로 평가	26	14.4	8	8.9	18	20.0
부정적으로 평가	3	1.7	2	2.2	1	1.1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 4) 도농교류에 대한 문제점

도농교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농교류가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24.4%) 농촌의 체험 및 기반, 숙박시설 부족(24.4%), 농촌마을의 고령화로 인한 교류 및 체험지도 인력부족(20.0%)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9〉 도농교류에 대한 문제점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촌의 체험 및 기반, 숙박시설 부족	44	24.4	20	22.2	24	26.7
농촌마을의 고령화로 인한 교류 및 체험지도 인력 부족	36	20.0	18	20.0	18	20.0
도농교류가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침	44	24.4	20	22.2	24	26.7
도시주민들의 방문에 따른 영농불편 및 농작물 훼손	4	2.2	3	3.3	1	1.1
도시민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부족	27	15.0	12	13.3	15	16.7
도농교류가 실제 주민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음	6	3.3	3	3.3	3	3.3
도농교류에 대한 정보 및 홍보부족	16	8.9	11	12.2	5	5.6
기타	3	1.7	3	3.3	0	0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 4.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 1)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주체의 역할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역할주체로 충남도와 시군자치단체가 67.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앙정부 16.7%, 농촌체험마을 지도자 및 농촌주민 11.1% 등의 순이다. 도시는 농촌에 비해 중앙정부라는 응답률이 높고, 충남도와 시군자치단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4-40〉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주체의 역할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앙정부	30	16.7	11	12.2	19	21.1
충남도, 시군 자치단체	121	67.2	67	74.4	54	60.0
농촌체험마을 지도자 및 농촌주민	20	11.1	10	11.1	10	11.1
도시주민	1	0.6	1	1.1	0	0
농협, 공공기관	8	4.4	1	1.1	7	7.8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 2) 향후 도농교류프로그램중 활성화 할 유형

도농교류프로그램중 활성화해야 할 유형으로 농산물의 직접판매 및 구입 40.0%, 마을축제 및 행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 19.4%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농촌주민은 농산물의 직접판매 및 구입, 도시주민은 이와 더불어 도시-농촌학생의 상호체험과 도시-농촌주민의 상호방문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표 4-41〉 향후 도농교류프로그램중 활성화 할 유형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산물의 직접 판매 및 구입	72	40.0	40	44.4	32	35.6
마을축제, 행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	35	19.4	21	23.3	14	15.6
일손등 영농활동에 공동으로 참여	26	14.4	13	14.4	13	14.4
도시학생의 농촌체험 및 유학, 농촌학생의 도시학교 체험	25	13.9	10	11.1	15	16.7
도시민의 휴가 및 휴양, 농촌주민의 도시방문	14	7.8	3	3.3	11	12.2
도시가족 및 직장단위 농가숙박, 농촌가족의 도시 홈스테이	6	3.3	1	1.1	5	5.6
기타	2	1.1	2	2.2	0	0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 3)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농촌 및 도시주민의 인식전환 37.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27.2% 등의 순이며, 농촌주민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보다 강조하는 반면, 도시주민은 도농교류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다.

〈표 4-42〉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강조되어야 할 분야

구 분	계		농촌		도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49	27.2	31	34.4	18	20.0
농촌 및 도시주민의 인식전환	67	37.2	32	35.6	35	38.9
도농교류전문가의 육성	14	7.8	6	6.7	8	8.9
도농교류기반의 강화	20	11.1	10	11.1	10	11.1
민간기업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	4	2.2	1	1.1	3	3.3
도농교류프로그램의 다양화	22	12.2	8	8.9	14	15.6
도농교류 지원조직 육성	4	2.2	2	2.2	2	2.2
합 계	180	100.0	90	100.0	90	100.0

## 제4절 조사결과 요약 및 쟁점사항 도출

### 1. 조사결과 요약

#### 1) 마을대표자

##### (1)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

충남도내 대부분의 농촌체험마을에는 농촌체험시설, 숙박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농교류시설 및 농산물 판매시설은 상대적으로 보유비율이 낮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농교류기반시설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농촌체험마을은 평균 1건 이상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민간기업체와 가장 많은 결연을 맺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청 및 학교,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의 순으로 결연을 맺고 있다. 1990년대부터 자매결연이 시작되지만,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인 결연을 맺고 있다.

##### (2) 주민소득 증대 방안

마을축제는 봄, 여름, 가을에 집중 개최되며 2000년 중반 이후 본격 개최되고 있다. 축제에 참여한 도시방문객 수는 500명 이하가 과반 수 이상으로 마을축제는 비교적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축제는 마을의 농특산물, 전통문화 및 놀이, 꽃 등을 테마로 개최되고 있다.

조사대상 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수는 2009년 평균 4,170명이지만, 1,000명 이하 방문한 마을수가 과반수 정도(47.8%)를 차지하고 있다. 도농교류 이후 농촌체험마을에서는 마을 방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소득이 증대하고, 이는 마을 전체소득과 마을공동기금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도농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3.3%의 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고,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들은 연1회 농촌사랑연수원 등에서 도농교류 교육 및 연수를 받고 있다.

도농교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은 주로 3일 이하의 단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나, 주로 1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교육기관 등에서 도농교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주민들의 선진마을 견학회수는 마을당 연간2회 정도이고, 마을당 평균 34명이 견학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마을보다는 도외 마을을 더 선호하고 있다.

### **(4) 차별화된 도농교류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은 농촌체험 및 관광, 숙박시설 제공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절별로 보면, 봄에는 농작물심기, 나물캐기, 전통음식 체험, 여름에는 농작물 수확 및 농사체험, 가을에는 농작물 수확, 음식만들기, 겨울에는 문화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대상 마을 과반수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향후 발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갈등의 효율적 관리**

농촌체험마을의 갈등은 마을주민간, 마을대표자와 마을주민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운영과정상 장애요인으로 인력부족 및 주민비협조, 홍보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6) 도농교류 홍보 및 마케팅**

조사대상 마을의 80%가 도농교류 홍보수단으로 마을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고, 마을축제, 홍보팸플렛 등을 부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홈페이지에 대한 마을주민의 만족도

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홍보 이외 도농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 **(7)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농촌체험마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인 중장기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이 70.0%에 달한다. 대부분의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는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규상에 규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신청할 의향이 있어 도농교류사업의 지속추진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농촌 및 도시주민**

### **(1)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농교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주민이 도농교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도농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이 잘 알고 있고, 농산물 직접판매 및 구입, 영농활동 공동참가, 도시민휴가 및 농촌주민 도시방문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농교류는 도시-농촌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농촌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농촌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가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는 농산물판매로 인한 소득증대, 도시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는 신선한 먹거리로 도시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농촌체험학습으로 도시학생의 인성교육에 도움, 농촌에서 휴양 및 휴식으로 도시민의 여가증진, 농촌의 전통문화 체험으로 문화욕구 충족 등의 순을 들고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이 도시주민에 비해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도농교류 필요성, 도농교류 필요 정도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도농교류 실태 및 문제점**

도농교류 유형 중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및 관광, 주말농원 등에 인지도가 상대적으



로 높지만 별 차이가 없어, 다양한 교류유형을 인지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농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자치단체가 도농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농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 농촌체험 및 기반, 숙박시설 부족, 교류 및 체험지도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농교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농촌 및 도시주민간의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역할주체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도농교류 프로그램중 활성화해야할 유형으로 농산물의 직접 판매 및 구입, 마을축제 및 행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농촌 및 도시주민의 인식전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 역할에 대해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들에 비해 충남도와 시군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3) 인터뷰결과**

### **(1) 개요**

조사결과 도출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공주시 5도2촌마을 마을대표자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시기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이고, 총 5개 마을 대표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2) 인터뷰결과

인터뷰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요내용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시설, 휴식휴양시설, 농산물직거래 시설 등은 마을방문객을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정비 및 확충할 필요가 있음</li> <li>○ 도시방문객들을 위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나 계절별로 방문객의 차이가 있어 기반시설의 관리에 어려움</li> </ul>
주민소득증대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자연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숙박을 유도하고 농외 소득향상이 필요</li> <li>○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노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ul>
전문인력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법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주민교육 필요</li> <li>○ 도농교류 교육 및 선진지견학을 리더그룹과 함께 마을주민 단위 교육 및 견학에 중점을 둬으로써 마을주민의 역량강화가 요구</li> <li>○ 도농교류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발적이고 주민주도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li> <li>○ 마을사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도농교류사업도 보다 전문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함</li> </ul>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나, 고령화와 농사일에 바빠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li> </ul>
갈등의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마을사람들 의견을 서로확인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러한 소통이 부족함</li> <li>○ 청장년층과 노년층간, 마을대표자와 주민간의 골 깊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농교류 전문가 채용 및 분쟁조정위원회(가칭)의 운영이 필요</li> </ul>
홍보 및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전체 지도 및 체험프로그램 홍보안내 광고판을 마을입구에 설치</li> <li>○ 마을홍보를 위한 홈페이지가 있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지원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도2촌주말도시 시책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공주시청의 5도2촌팀 공무원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심사숙고해야 함</li> <li>○ 고령화 등에 따른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 사업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절차이행을 위한 지원필요</li> <li>○ 공주시의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시 애로사항이나 5도2촌 주말도시 시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가칭) 도농교류센터 설치 필요</li> </ul>

## 2. 쟁점사항 도출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조사, 농촌도시 주민의식 조사, 농촌체험마을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도농교류 추진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

첫째,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 숙박, 편의시설, 판매시설 등의 물리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활용도도 높으나 실질적으로 연중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마을마다 1개 이상의 기업체, 교육청 및 학교, 공공기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 주민소득 증대 방안

첫째, 상당수의 농촌체험마을에서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개최시기 및 테마는 적정한가? 또한, 마을축제 개최를 통해 마을주민, 방문객, 마을이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도농교류를 통한 방문객의 증가로 농산물판매소득이 증대하고 있는데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판매소득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농특산물판매방식을 통한 마을소득과 마을공공기금 확충방안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바람직한 것인가?

### 3)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첫째, 마을내 사무장 채용이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둘째,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들의 도농교류 교육 및 연수, 마을주민들의 도농교류 교육이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셋째, 마을주민들의 선진마을 견학이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 4) 차별화된 도농교류 프로그램

첫째, 다양한 도농교류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타 마을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있는가? 도농교류프로그램중 활성화해야할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둘째, 농촌체험마을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마을에 어떤 점들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5) 갈등의 효율적 관리

첫째,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주체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도농교류사업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

둘째,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갈등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6) 도농교류 홍보 및 마케팅

첫째, 상당수의 농촌체험마을이 도농교류홍보수단으로 마을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마을홈페이지가 실질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아울러 마을홈페이지가 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인터넷판매 즉, 온라인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 7)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첫째,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사업을 위한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둘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되면 지금보다 도농교류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 제5장 충남도 도농교류 정책의 발전방안

충남도 도농교류 정책의 발전방안에서는 도농교류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방향과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주요변인을 중심으로 농촌체험마을 실태분석,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및 농촌-도시주민의식 조사 결과, 농어촌체험마을 대표자·사무장 등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 제1절 기본방향<sup>31)</sup>

#### 1. 도시와 농촌의 공생

도농교류는 도시민의 일방적인 농촌돕기 차원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공생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농교류가 추구하는 가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도농상생이다. 최근 도농교류 사업은 그린투어, 즉 농촌체험관광 및 이를 통한 농산물 판매수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소비와 판매의 관계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교류라고 볼 수 없으며, 농촌체험관광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는 도농교류활동의 한 분야인 1사1촌 운동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농촌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의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주고받는 교류가 아니라 소비·판매나 지원 등 일방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관심·환기나 붐 조성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기 힘들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쌍방방적인 도농교류가 필요하다. 쌍방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때 도농교류는 지속가능할 것이다.

---

31) 민승규, 농촌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7 ; 박종유,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 방안, 농어촌과 환경, 통권 94호,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07를 정리하였음

## 2.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박용순(2008)의 연구<sup>32)</sup>에 의하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간의 신뢰나 마을의 공통적인 규범인식 등과 관계가 있는 인지적 사회적 자본은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이 주민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민주도형 농촌관광마을의 경우 사업추진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이나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의 구조적 사회적 자본은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 의한 참여, 주민에 의한 의사결정, 우리 마을이라는 공동체의식과 마을에 대한 자부심 등 기본적으로 마을의 단합과 협동, 그리고 주민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주민의 권한강화, 연대감, 장소애착성과 같은 주민통합이다. 이는 곧 농촌관광의 추진주체로서 주민에 의한 참여, 주민에 의한 의사결정,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문화적 동질감과 공동체 복원 등 마을 내부적인 역량의 강화를 의미한다.

도농교류 역시 궁극적으로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자리잡고 하나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한다.

## 3. 도농의 균형발전

도시민이 농촌을 여가선용이나 돌봐주어야 할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맘 놓고 정주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여김으로써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농촌을 교류하는 도농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시민의 농촌관광이 농촌정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이 도시민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신기하고 새로운 체험이나 이벤트를 만들어 내어 도시민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도농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32) 박용순, 사회적 자본의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8, pp.129-132.

## 4. 마을 독자적 문화구축

도농교류는 각 마을에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충남에는 수많은 농촌체험마을이 있고, 향후에도 그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촌체험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는 한정적이다. 한정된 수요에 공급은 증가할 경우 체험마을 간에 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한다면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다. 마을의 독자성을 창출하는 것은 단순히 체험행사의 수를 늘리거나 질 좋은 체험관광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독자성은 문화의 독자성에서 비롯된다.

농촌마을의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한다면 그 문화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5. 도농교류의 주체별 역할

### 1) 농촌

도농교류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수혜대상은 농촌주민이기 때문에 농촌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과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이 없고 주민의 열정과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농촌주민은 도농교류를 생활 환경 정비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류사업 및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류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정주 및 귀농자를 유치하고, 주민의 책임의식과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기업 및 단체

기업과 단체가 보유한 경영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협력이 용이한 방식을 선택하여 자선

및 자원봉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적 내용을 가미하여 농촌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도 일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도농교류는 시혜적 활동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동안 1사 1촌 자매결연 등 기업의 도농교류 참여는 사회적 투자이기 보다는 기업 소유주의 시혜적 활동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나 기업의 사회공헌으로서 도농교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인 신뢰를 창출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기업핵심역량과 연관된 부문에서 활동을 펼침으로써 기업경영에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도농교류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농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최고경영층의 의지와 기업내부의 제도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업과 단체는 직원 및 가족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정시간 자원봉사 휴가를 인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도시민

도시민은 도농교류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업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민은 농촌을 방문하여 휴식,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영농활동을 돕거나,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업생산활동의 지원과 농특산물 구매뿐 아니라 농촌체험을 포함한 농촌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농촌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된다.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도농교류기반, 제도, 자원배분 등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과 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농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도농교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도농교류기반 조성, 농촌주민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도시민의 귀농, 귀촌 유도에 힘을 쏟는 것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 제2절 주요변인별 발전방안

### 1.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

#### 1)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정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농촌다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선 방문객들을 위한 경관정비가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위한 정비가 되어야 하며 주민들을 위해 정비된 쾌적한 환경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을의 농업, 문화, 생활환경의 주체가 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될 때 지속적이고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때 방문객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농촌 모습과 농촌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연출해내는 실제적인 농촌 모습과의 접점을 찾아 정비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의 주체는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임을 고려할 때 생산과 생활의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경관과 환경 등을 배려한 농업·농촌 정비가 요구된다.

농촌체험마을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분석하여 다른 마을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매력을 찾아내고 사업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닐 지라도 도시민들에게는 특별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아이디어로 연결 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원 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원까지 조사하고 외부인의 의견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을별로 양호한 경관요소와 불량한 경관요소를 파악하여 정비하며 이때 마을의 생태적 환경에 적합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경관정비사업은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컨테스트 등 시민운동적 성격, 하천, 도로, 농업기반정비 등 토목사업 성격, 경관조례, 계획수립, 주민조직, 심의회 구성 등 제도적 성격의 사업이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인 것을 기본으로 시민운동, 토목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에서는 투자비가 소요되는 토목사업보다는 수목 식재, 미관정비, 꽃길 가꾸기 등 시민운동적인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한계농지 경작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마을별로 테마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여 경관형성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sup>33)</sup>

33) 강신겸, 도농녹색교류사업의 정책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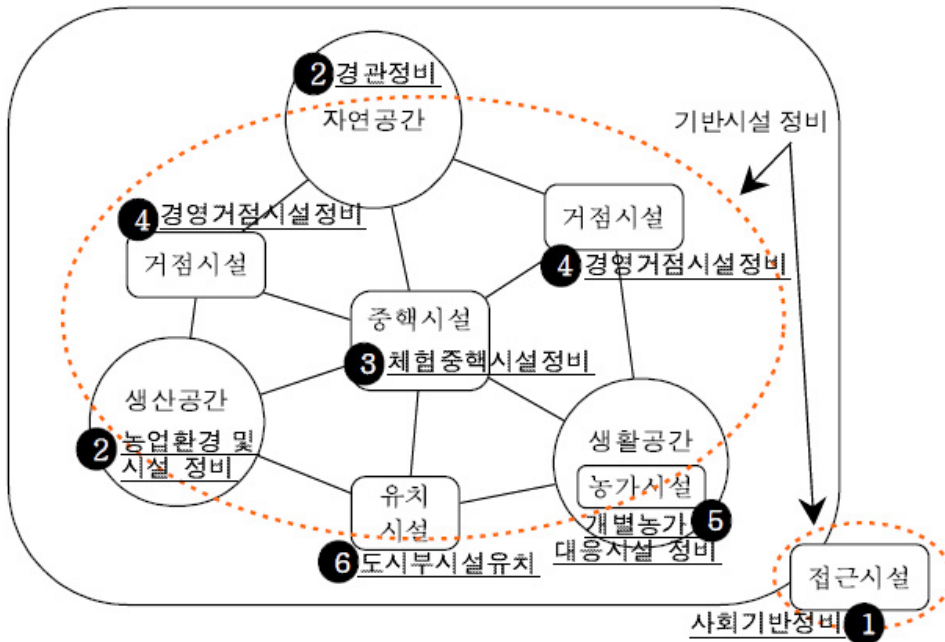
## 2) 농촌체험마을 정비

농촌체험마을의 고유성과 차별성은 도농교류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농촌체험마을 정비도 필요하다. 이는 방문자를 받아들이는 각 시설과 공간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을정비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아이템을 반영해야 한다. 즉, 다른 마을을 모방한 시설이나 마을정비는 마을의 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체험마을 공간정비의 기본방향은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농촌으로의 접근성 등 사회기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도로 등의 교통시설, 지역내 접근로 주변이 교류시설 정비, 접근로 주변 자연환경정비, 수리시설 및 생활편리시설의 정비 등이 해당한다. 둘째, 농업·농촌환경 경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농업공원 등 교류공간의 정비, 친수공간의 정비, 농업생산·가공 등 부가가치시설의 정비 등을 의미한다. 셋째, 체험 중핵시설의 정비는 기본적 요소이다. 농업 및 농촌문화를 학습·체험 또는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류거점 중핵시설의 정비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농업경영과 관련한 지역경영 거점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숙박, 장기체재, 식사, 농산품, 가공품 등의 판매시설 정비를 의미한다. 다섯째,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필요한 개별농가 대응시설인 민박시설, 식사, 관광농원, 농촌문화공예 등 체험시설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도시층의 공적 휴양 및 연수시설 또는 민간시설의 유치를 통해 상시적인 도농교류연결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공주 선학리 지계마을 정비



자료 : 농어촌연구원, 농촌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연구, 2002.

[그림 5-2] 농촌체험마을 공간정비 기본방향

### 3) 도농교류기반 확충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체험마을에 필요한 기반으로서는 농촌체험시설, 숙박시설, 방문객 편의시설, 도농교류시설, 농산물 판매시설 등이 있다. 이중 충남의 농촌체험마을은 농산물판매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농촌 및 도시주민 모두 농산물 직접 판매 및 구입을 통한 농가 및 농촌마을 소득향상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농특산물 판매소, 구판장, 인터넷 쇼핑몰 등의 확충이 요구된다.

〈표 5-1〉 공간적 범위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관련 시설

구분	시설유형	시 설
마을 단위	숙박시설	민박시설, 공동숙박시설
	음식제공시설	전통·향토음식 판매시설, 공동 음식제공시설
	편의시설	축제장, 공용주차장, 공동화장실, 방문자 센터, 안내판, 길찾기 표지판, 가로등, 방송시설 등
	체험시설	농사체험 : 농기구 등 체험기구, 체험장소 및 농장, 주말농장, 원두막 농산물가공체험 : 지역농산물 가공체험시설 문화체험 : 농촌체험학교(폐교활용), 민속문화공간(도자기제작실, 전통가옥, 박물관), 전통놀이기구 자연생태체험 : 자연관찰지, 삼림욕장, 생태체험 관련안내시설(안내판), 별 자리관측장비(망원경, 쌍안경), 자연탐방로 등 모험체험시설 : 레포츠활동(MTB, 낚시, 승마, 암벽등반, 서바이벌, 동굴탐험 등), 체험공간과 장비 등
	운동·휴양시설	운동공간과 기구, 휴양공간(건강지압 황토길, 찜질방, 산책로, 물레방앗간, 자전거 쉼터, 낚시터 등)
	판매시설	농산물 판매장(가판대 포함), 무인판매대 등
	기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정보화시설, 쓰레기 분리시설, 마을내 도로 시설 등
지역 단위	편의시설	주차장, 관광안내센터, 지역종합안내판, 화장실, 휴게소 등
	체험시설	농사체험 : 환경농업지구, 과수원 등 농장, 목장 등 농산물 가공체험 : 농산물 가공체험실, 지역산업체험장 문화체험 : 도자기 공예장, 명승지, 사찰 자연생태체험 :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자연관찰지 등의 관련 시설물 등 모험체험 : MTB, 승마장, 래프팅 시설, 암벽등반, 서바이벌 등 운동 및 휴 양시설 운동공간 : 다목적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운동시설 : 모험놀이시설, 운동기구 등 휴양공간 :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 삼림욕장, 자연동굴, 공원, 야생화단지, 온천, 해수욕장, 놀이공원 등
	판매시설	농특산물 직판장, 기념품점 등

자료 : 농어촌연구원 :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 표준화·등급화방안, 2003참조.

물론 농촌체험마을의 기반시설은 도시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핵심적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시설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도시민의 특성으로는 연령, 직업, 가족생활주기, 경제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등이 있다. 연령층을 중심으로 체험장 시설의 중요도를 판단해보면, 유년층은 농사 및 문화체험 시설과 자연생태 체험시설, 청년층은 레포츠 체험시설, 야영장 등을 다른 연령층보다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레저체험, 노년층의 경우

삼림욕장, 산책로, 의료 및 휴양시설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sup>34)</sup> 따라서 핵심체험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주요 수요 연령층을 고려하여 도농교류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마을체험관



[그림 5-4] 마을회관



[그림 5-5] 마을숙박시설



[그림 5-6] 체험장

#### 4) 자매결연제도의 실질적 운용

농촌체험마을은 민간기업체, 교육청 및 학교,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매결연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농산물수확 등 농촌일손돕기, 농촌체험 등에 한정되어 하나의 행사차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매결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농촌과도시의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34) 전영미, 농촌관광을 고려한 마을정비방안, 새국토연구협의회 세미나자료집, 2003, p.125.

줄 수 있는 방안과 자매결연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1사 1운동을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1사1촌 운동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발표 하여 추진중에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2010년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한 1사1촌 자매결연 선도마을 102개 가운데 충청남도는 모두 10개의 마을이 선정되었다. 이중 공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의 마을이 선도마을로 선정되었다. 선도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공주시 자연애 마을(정안면 산성리), 풀꽃이랑 마을(정안면 고성리), 우렁이 마을(유구읍 만천1리), 무르실 고추마을(신풍면 대룡1리), 버글미 마을(계룡면 유평1리), 유구읍 노동리,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논산시 부적 충곡리, 서산시 대산희포마을, 당진군 석문 푸레기마을 등이다.

이와 같이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농촌체험마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기업과 마을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1사 1촌은 공동농작업을 통한 유대감 증진, 농특산물 구매와 음식물 제공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공유, 농촌 및 도시주민 자녀들의 공동체험학습을 통한 교류, 농촌마을 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 도시-농촌주민들과의 인간적 유대 강화 등을 통해 농촌주민과 도시주민들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림 5-7] 공주시 농촌체험마을과 자매결연

## 5) 농촌체험마을 규약 제정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주민 스스로 정하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에 대한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정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부터 마을의 수익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도농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간의 규약 및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표 5-2〉 태안 뱃가리마을 규약

구분	장	조	내 용
운영 원칙	제1장 (총칙)	제4조 (운영원칙)	마을 및 운영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운영기금은 수입금의 일부를 적립시킨 자금으로 운영
공간	제4장 (재정 및 자산관리)	제22조 (자산관리)	마을의 체험시설은 뱃가리마을 운영위원회가 관리
사람, 조직	제2장 (회원 및 운영위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 마을발전에 적극 협조
		제10조 (임원의 임무)	위원장 : 모든 업무 총괄 사무장 : 본회의 재정 및 일반사무 맡음
소득, 수입	제3장 (회의 및 운영)	제14조 (운영예산)	전체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 운영하며 사무장이 주관
		제15조 (이익금분배)	공동사업 이익금 배정은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합의후 조정
	제4장 (재정 및 자산관리)	제21조 (재정)	운영회의 재정은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 금융기관에 마을회명으로 유치 사무장이 관리 입출금시 위원장의 결재

이러한 주민들간의 약속인 마을규약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되 도농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을 규약에 대한 사례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활용하여 마을에 적합한 규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 태안군 뱃가리 마을은 2003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으로 마을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을 규약을 제정하였다.

## 2. 주민소득 증대방안

### 1) 주변지역과의 연계

문옥표(1998)는 농촌관광이 투자한 만큼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유지나 관리에 대한 부담은 결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안겨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에는 농산물 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등 다양한 주민소득시설물이 조성되었으나, 목적대로 운영 및 관리되는 곳은 드물다. 이는 각종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설물과 관련된 계획된 프로그램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농촌체험마을의 소득기반은 농특산물 가공시설과 체험시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농특산물 가공시설물은 생산한 이후 판로개척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주변 관광지나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일한 지역내 관광지나 상업시설, 민박시설을 연계하여 마을특산물이나 농특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고, 인근 지역에 산재한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상품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마을특산품 직거래 장터 정례화

마을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농특산품 판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내 농협,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마을특산물 장터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협 충남지역본부에서는 1992년부터 주차장에서 18년째 ‘금요장터’를 열고 있다. 충남도청에서는 1998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충남도청 후생관 뒤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직거래 화요장터’를 개설하고 있다. 대전농협지역본부는 탄방동지점 주차장에서 매주 화요일 ‘화요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운영중이다.

이와 같이 화요 및 금요장터는 농업인에게는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제공과 직판을 통한 제값 받기를 보장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하고 신선하며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이 차츰 주목을 받으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장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 직거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아닌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마을축제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 모색

농촌체험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체험마을이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의 '성장'의 책임을 맡게됨에 따라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경영논리를 차용하여 농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sup>35)</sup>

특히 농촌체험마을은 각종 축제와 이벤트 활동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활동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이는 농촌체험마을이 기업주의적인 새로운 경영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농촌체험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농촌체험마을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농촌체험마을에는 축제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이 축제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마을의 역사와 전통, 생활과 문화, 자연환경, 농특산물을 고려한 마을정체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기회가 필요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농촌체험마을 축제가 가시적 마을소득증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농촌생활, 문화 등이 상품화될 수 있어야 하고, 방문객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또한 접근성, 음식, 숙박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농촌체험마을 축제는 단기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촌문화와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35) 안덕초, 장소자산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축제 계획에 관한 연구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7, p.64.

#### 4) 농촌체험마을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농촌커뮤니티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즉, 농촌체험관광은 지역농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의미와 같다.

농촌지역사회에서 관광을 통해 얻은 소득증대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라져가는 농촌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주민주도의 관광산업을 통한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지역활성화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주장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기대효과와 같으며, 영국과 일본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체험관광사업을 커뮤니티비즈니스 분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을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에 역량을 갖춘 리더 필요, 공정한 분배와 사업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의 활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예약이 가능하며, 마을주민 모두가 체험사업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 검색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주민들의 평생학습, 다섯째, 외부 네트워크 활용이다. 반면, 재무적 자본의 자금은 한국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sup>36)</sup>

### 3.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육성 아카데미 개설

현재 농촌체험마을은 고령화와 부녀화 되어 있어 도농교류를 주도해 나갈 능력있는 리더가 부재하고 마을주민의 주체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의 성패는 전문인력의 집중육성에 달려있다. 즉, 농촌체험마을 전문인력의 도농교류 운영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도농교류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 대표들은 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농촌사랑연수원,

36) 김영수·박종안, 한국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9집 2호, 2009, pp.193-194..

농어촌공사, 지역대학의 농촌관광아카데미 등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3일 이내 단기간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체계적인 연수 및 교육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및 연수회수도 대부분 2회 이하로 단발형 교육 및 연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도농교류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도농교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농교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소재 대학 등에 도농교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하며,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전문가 초빙 등의 방법을 통해 도농교류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 [공주시 농촌관광지도자반 교육]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촌체험관광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관광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농촌체험관광 교육을 실시

- 교육생은 약 60명이었으며, 교육목표는 리더십 함양과 조직적 사고능력 향상을 통해서 농촌체험관광을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
- 교육내용은 농촌체험관광기초, 서비스능력 및 운영실무, 견학 등으로 농촌체험관광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지도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전문기술 교육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

#### 교육일정

회 수	프로그램	
	강의명	교육방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농업과 가치혁신전략</li> <li>● 충남의 농촌관광 체험 추진사례</li> <li>● 우리지역의 어메니티자원 알기</li> </ul>	강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관광마을 이미지가 중요하다</li> <li>● 지역이미지를 고려한 농촌건축</li> <li>● 실천가능한 체험프로그램 짜보기</li> </ul>	강의/ 실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진행의 실제</li> <li>● 농촌관광 사업상의 갈등 이해와 대책</li> </ul>	강의
4	<도·농 교류를 위한 지역향토자원발굴과 농가민박 운영·마케팅 벤치마킹>	현장학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관광관련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의무</li> <li>● 들꽃이용 압화기술 소개</li> </ul>	강의실습
6	<관내지역체험마을 현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은 고객만족 경영시대, 고객 감동 서비스</li> <li>● 마을자원이용 천연비누 만들기 원리 소개 및 실습</li> </ul>	강의실습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 Agri-Life 지향과 국민농장 갖기</li> <li>● Wellbeing 상품체험실습</li> </ul>	강의실습
8	<농촌관광 신생마을과 교육농장 견학>	견학

### [공주시 농업대학 농촌관광체험학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8년 6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농촌체험관광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을 희망하는 자 30명을 대상으로 공주시 농업대학의 농촌관광체험학과를 위탁하여 운영

공주시 농업 및 농촌관광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있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임

- 농촌관광체험과정을 통해 공주시 농촌관광서비스의 개념 이해와 조직화를 바탕으로 공주시 농촌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
- 본 과정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농업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전문 강의와 토론 및 실습 중심으로 진행

#### 교육일정

구 분	강의내용
농촌관광 아이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강식/오리엔테이션</li> <li>●공주시 농촌관광 트렌드 분석 및 진단</li> <li>●농촌관광서비스개발 나도 할 수 있다</li> </ul>
과제실습	●나의 농장 아이템초안 작성해 보기
농촌관광 아이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관광 유형 분석과 적용</li> <li>●농업 농촌의 교육적 가치의 이해</li> <li>●농업자원과 주제중심통합접근</li> </ul>
현장 실습	●백제문화자원과 농촌관광
창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정책 지원제도의 이해와 활용</li> <li>●도농교류촉진법의 이해</li> <li>●농촌관광 경영자의 자기관리</li> </ul>
과제실습	●내 손으로 작성하는 사업(운영)계획서
현장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관광의 성공과 실패/진안군 사례</li> <li>- 서비스 유형별 현장사례 탐구</li> <li>- 농촌관광경영체의 성과와 과제</li> </ul>
창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중심 풍수지리로 본 시설입지와 공간</li> <li>●농촌관광 환경 조성 원리와 실제</li> <li>●휴건축의 가치</li> </ul>
운영실습과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동서비스를 통한 고객사랑법</li> <li>●농촌관광 홍보 마케팅 전략</li> <li>●공주시 농촌관광 네트워크 전략</li> <li>●농촌관광 강령 및 품질관리 규약 준비</li> </ul>
현장필드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관: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의당전통손메주, (주)참사랑식품)</li> <li>●교육체험: 농촌교육농장의 현황과 운영(상보안농원, 아이러브 벅스)</li> <li>●음식체험: 음식체험 서비스 개발의 방향(엔젤농장)</li> </ul>
종합평가	●공주시 농촌관광 발전방향 심포지엄

## 2) 사무장제 확대운용

사무장제도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녹색농촌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한 혜택으로 사무장 제도는 마을당 3년간 1회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어 3년 후가 되면, 대부분 마을은 수익의 대부분을 사무장에게 월급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의 발전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농촌체험마을 60% 이상이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마을들은 사무장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의 상당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의 도농교류 업무를 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도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농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제도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사무장은 해당마을의 도농교류사업 관련 기록 및 시설물 관리, 마을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매지원, 마을소식지 등 마을내 의사소통 구조 지원, 각종회의, 교육 참가 및 서류발급 지원, 마을축제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3) 농촌주민의 교류역량 배양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의 첫 단계는 농촌체험마을 주민 개개인이 도농교류가 마을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도농교류가 농촌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인식을 지양하고, 도시-농촌의 상생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체험, 친환경농업, 농촌관광 등 각종 도농교류 사업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농촌주민 스스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비전과 행동계획 등을 만들어 내어 지역적인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이다.<sup>37)</sup>

장기적으로 농촌이 도농교류 기회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 스스로가

---

37) 민승규, 농촌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7.1.11, p.56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영마인드와 혁신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주민의 교류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도농교류를 위한 조직화 및 마케팅, 프로그램개발, 도농교류 성공 및 실패사례, 이벤트, 관광경영, 서비스마인드와 자세 등에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주민 교류역량 배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주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치되고 교육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가능한 상설전담 교육기관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학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마을주민의 동기를 유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수자에게 적절한 혜택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료증과 같은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기관별로 프로그램을 특화하거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바람직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역여건이나 교육대상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넷째, 마을주민에게 알맞은 교육기반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교육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교육에 대한 세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경비 조달, 표준교과과정과 교재개발 등을 위해 행정기관의 정책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농촌마을 주민들의 도농교류 역량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도농교류를 위한 도시민 교육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를 위한 도시민 교육은 크게 3개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한다. 첫째, 시민 농촌이해로 농산물 고르기나 기초정보, 교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시킨다. 둘째, 귀농대상자 교육으로 귀농을 원하거나 은퇴 후 귀농을 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교육한다. 셋째, 도시학생 농촌체험교육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촌이해와 도농상생방안에 대해 교육한다. 도시민과정은 앞으로 도농교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도시와 농촌의 공생공영을 주지시키면서 농촌의 협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귀중한 활동이다. 따라서 도시민 교육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sup>38)</sup>

38)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방안 연구, 2004, p.185.

도시민교육과정은 농촌의 지역지도자를 육성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이들의 역할이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도농교류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93%가 되는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비교역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먼저 귀농대상자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이들이 농촌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마련이 요구된다. 이후 이들이 정착한 다음 주민들과 친교하고 경제적인 활동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교육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 4.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 마을별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촌체험프로그램이란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해당 활동 또는 행사의 취지를 느끼고 진행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시간대별 진행계획을 말한다. 도농교류는 방문자가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자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며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이러한 농촌체험활동이 일어나도록 계획된 진행계획을 말한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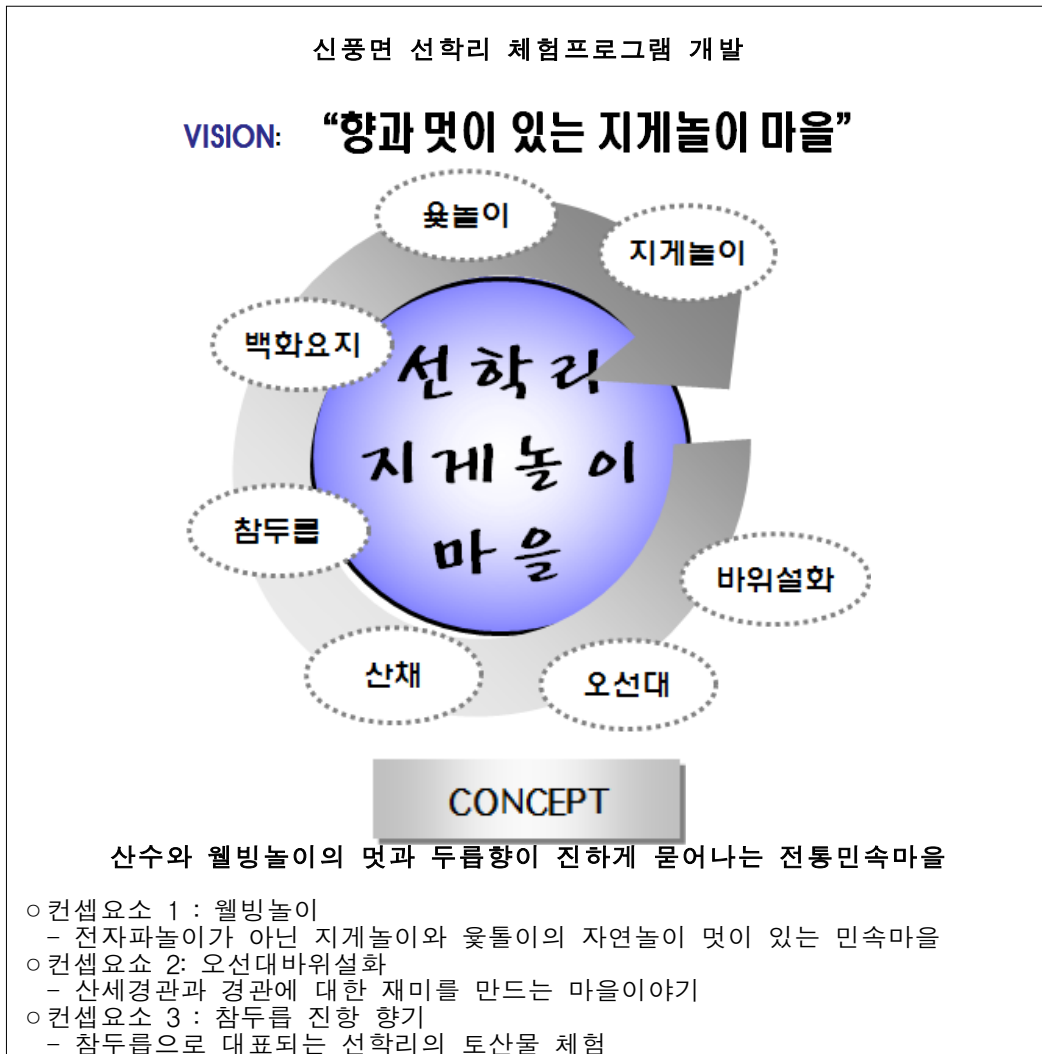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단순히 체험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박, 농산물 판매, 식음, 체험, 휴양 등과 연계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민박도 단순한 민박이 아니라 체험프로그램에 덧붙여질 때 가치를 발휘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은 이용객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을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테마가 수요자인 방문객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사업성과가 양호한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아름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문화역사마을 등 각 사업간은 물론, 동일 사업내에서도 유사한 테마와 프로그램 양산으로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sup>40)</sup>

39) 안종현, 농촌관광마을 만들기과 주민참여 : 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의 사례,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p.160.

40) 국외예산정책처,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2006, p.34

특히, 농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의 관광매출액 구성비중, 체험소득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8.7-24.5%, 20.2-26.4% 수준인 반면, 농산물판매, 숙박 및 음식비 등 간접소득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80% 수준이며, 어촌체험마을의 경우에도 간접소득의 매출액 비중이 70%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의 미비가 그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 : 공주시, 공주 5도2촌 주말도시 농촌체험실용프로그램, 2009, p.125.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도농교류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요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 음식만들기, 전통염색, 공예체험 등 지역과 마을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체험, 농사체험 등의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프로그램성격이 서로 유사한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즐기러 가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의 취사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sup>41)</sup>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은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가치를 발굴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현 외(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sup>42)</sup>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은 농촌생활과 관련된 체험이거나 자연생태와 관련된 체험이다. 따라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프로그램은 농촌생활과 관련 체험프로그램과 자연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다.

농촌체험마을에서는 농사체험, 농촌토속음식제조, 농가생활풍습 등 농촌생활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과 자연생태체험 등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마을의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자원, 영농조건 등 해당마을의 특성을 고려하되 타 마을과 차별화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 다양한 소규모 축제의 개최

소규모 축제는 적은 예산으로 마을주민이나 개별 농가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마을주민 및 개별농가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주민간의 유대증진과 정체성 형성 등의 효과가 있다. 더불어 마을 및 농가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된다. 또한, 소규모 축제가 활성화되면, 방문객에 의해 농촌마을에 대한 이해와 지역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도농교류로 이어질 것이다.<sup>43)</sup>

방문객들은 농촌체험마을의 추구편익에 대해서 마을이나 농가의 특산물과 음식을 즐기

---

41) 김명룡,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완주 디지털 산내골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5권 3호, 2008, p.516.

42) 이해현 외, 농촌관광 방문객의 선호체험프로그램 분석, 문화관광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문화관광학회, p.322.

43) 안중현, 마을축제를 통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 못생긴호박추게 방문객을 사례로, 문화관광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8, p.128.

고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경관을 만나며, 가족 및 친지들과 가족애를 돈독히 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수확 및 직거래와 저렴한 구입이 가능하다.

[공주시 풀꽃이랑 마을축제]

공주시 5도 2촌 시범마을인 정안면 고성리에서는 벚꽃이랑 풀꽃이랑을 테마로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꽃마차타기, 할미꽃 심기, 페이스페인팅, 추억의 책받침 만들기, 떡매치기 등이다. .



▶ 일정표

공 식 행 사	10:30~11:30	개막전 행사 - 풍물놀이	
	11:30~12:00	제3회 벚꽃이랑 풀꽃이랑 공식행사	
	12:00~13:00	중식	
	13:00~13:30	내빈 축제장 안내	
	13:30~14:30	오후 공연 - 기타 연주	
	14:30	공식 행사 종료	
체 형	10:00~18:00	꽃마차 타기	1가족(2인기준)당 1,000원
		할미꽃 심기	1화분 심기 - 3,000원
		페이스 페인팅	1회 페인팅 - 500원
		추억의 책받침 만들기	사진 또는 풍경사진 인화후 코팅 - 2,000원
		떡 매치기	떡 매치기 무료, 인절미 1,000원
공 연	10:30~11:30	개막전 행사 - 풍물놀이	
	13:30~14:30	오후 공연 - 기타 연주	
기 타	10:00~18:00	풍경사진 경진대회	

### [논산시 해오름농원 사과문화축제]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해오름농원(대표 : 정태하)에서는 매년 농장에서 도시민들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따기 체험,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 사과문화축제를 200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 사과문화축제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10시~10시30분	등록 및 시식
10시30분~12시	사과따기 체험 및 장작불에 고구마 굽기
12시~1시30분	시골 점심 먹기/ 탑정호 바라보며 차한잔의 여유..
1시30분~3시	공연(라이브공연,섹스폰,오카리나, 밴드연주등 )
3시 이후	사과따기 체험



[그림 5-8] 농가단위 축제

소규모 축제는 마을이나 농가의 특징적 자원을 소재로 하거나 인위적인 주제를 내걸고 비교적 단기간에 새롭게 도시민을 불러 모아 주민의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로부터 주목을 끌 수 있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규모 축제는 기존 하드웨어 구축에 따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마을주민의 참여가 실체요소라는 점에서 주민간의 협동심 고양과 네트워크 강화라는 측면에서 마을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높다.

따라서 소규모 축제는 단순히 농산물 판매와 체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도농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화 및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농촌체험마을에서 1년 사시사철 마을 주도의 소규모 축제가 끊이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 자발적 축제가 많이 생기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면에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5-3〉 공주시 마을축제 개최현황

마을명	축제명	개최시기
계	11개 축제	
유구읍 동해리	제3회 동해동산수박 축제	8.14
이인면 구암2리	건강보감 구난이 약나무 축제	4월 하순
반포면 상신리	주민예술제	8.14
반포면 온천1리	물놀이 축제	7.17~8.15
의당면 두만리	제3회 예하지서당골마을 김장축제	11.20
정안면 고성리	벚꽃이랑 풀꽃이랑 축제	4.10
우성면 내산1리	제4회 부전전통매실꽃축제	4.10
우성면 봉현리	제3회 농경문화교육한마당	6.20
신평면 대룡1리	제3회 김장김치축제	11.19~20
신평면 선학리	제3회 참두릅축제	4.30~5.1
상항 1.2통	아삭이 양파 자장면 축제	6.5

### 3) 농촌체험교육의 확대 추진

농촌체험교육이란 자연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체험하는 자연체험, 농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인식하는 농업체험, 농촌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농산어촌의 향토문화를 중심으로 한 농촌생활체험 등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학교의 교과과정 중에서 현장 중심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sup>44)</sup>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간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체험과 학습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정상적인 수업의 일환으로나 대체과목으로 수업이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외현장 교육을 총칭한다.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승

44) 김용근, 농산어촌체험교육과정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 국회, 2009, pp.7-8.

격시켜 의무화함으로써 현장교육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산어촌의 경제적 활력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 제14조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농산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교육과정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즉, 도농교류체험확인서 발급 및 이에 대한 수업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4조(농산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산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농산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에는 초·중·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농산어촌체험교육에 대한 활성화계획수립,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산어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산어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및 조례에 규정된 초·중·고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활성화 및 지원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교육청-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농촌체험교육협의회(가칭) 등의 구성이 요구된다.

#### [참고] 청양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학습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중우)가 청양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유아,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촌체험현장탐방 및 체험학습이 폭 넓은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는 15·24일 청양유치원, 청송초등학교 등 6개교 학생 360여명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실시한 체험학습은 농업기술센터와 체험마을, 체험농장을 방문, 견학하고 구기자 초콜릿만들기, 김장담그기, 천연염색하기, 누에고치공예, 산양비누만들기, 식물키우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농업과 연계된 폭 넓은 교육 성과를 거뒀다.

센터 생활지원담당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체험학습을 시작했는데 학교와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청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올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해 달라는 요청으로 추진하게 됐다” 며 “청양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체험학습을 온 지도교사는 “요즘 농촌학생들도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런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2010.11.24)

#### 4) 농촌유학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상당기간(통산 6개월 이상) 농촌학교(주로 초등학교, 대안학교)에 전입하여 재학하면서 방과 후에는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유학은 농촌학교의 학생수를 늘려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반면, 도시학생들의 농촌유학은 어린 시절 농촌생활의 귀중한 경험을 통하여 인성과 감성을 기르고 농촌지역을 이해하는 원만한 인품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의 단초를 형성한다. 농촌유학은 학생증가를 통한 학교 활성화 이외에도 인구구조 개선, 주거시설 개선, 귀농 촉진,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구매력 확대와 지역경제 효과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농촌유학은 2006년 경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등의 주도로 시작되어 현재 전북 완주, 경남 함양, 충북 단양, 강원 양양, 경북 상주·예천·경주, 울산 등에서 주로 귀농자들에 의해 소규모로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지역사회(지역기업, 기관, 단체, 지역주민 등)의 농촌유학에 대한 확대에 관심과 협력 등이 요구된다. 즉, 도시학생농촌유학 지원조례, 재정지원, 농촌유학지원센터 설치,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 농촌유학 추진, 농촌유학축진을 위한 단기농촌체험 캠프 등이 요구된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아산시 거산초등학교는 2001년 34명에 불과했던 학생수가 2009년 현재에서 117명이며 이중 거산에 위치한 학생은 23.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아산(57.3%), 천안(18.8%)에서 농산촌유학을 온 학생들이다.



[그림 5-9] 아산거산초등학교 체험학습

또한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에 위치한 도령서당(명덕제) 대안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6개월 이상 산촌유학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그림 5-10] 공주 도령서당 대안학교

## 5. 갈등의 효율적 관리

### 1) 갈등원인의 명확한 파악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지역주민과 추진위원회간의 갈등, 행정과 주민의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갈등 양상 특히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농촌체험마을의 주민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사업에 발생하는 주민갈등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 유발요인 외에도 내재되어 있는 갈등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체험마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조직·구조적 요인, 사회적요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갈등요인을 보면, 개인적 요인은 목표와 인식의 차이, 리더십의 문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직·구조적 요인은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사회적 요인은 농촌사회의 폐쇄성 등을 들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의 행동주체에 따른 갈등은 지자체담당공무원과 주민, 마을지도자와 주민, 마을지도자간, 마을주민간 갈등 등 네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원천에 따라서 목표와 인식의 차이에 의한 갈등,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갈등,



리더십의 문제로 인한 갈등,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갈등,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문제로 인한 갈등, 농촌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갈등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갈등원인과 유형, 원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5-4〉 농촌관광마을의 갈등원인

구분	갈등요인	세부내용
개인적요인	목표와 인식의 차이	-사업의 목표에 있어서의 차이 -사업추진과 운영과정에서의 인식의 차이
	리더십의 문제	-지도자로서의 역량 미흡 -지도자의 독단적 사업추진 -사업운영상의 투명성 결여 -지도자의 과도한 책임과 희생요구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타인에 대한 반감이나 오해 -타인의 소득, 지위획득 등에 대한 시기
조직·구조적요인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문제	-마을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추구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형평성 결여 -무임승차의 발생
	의사소통의 문제	-주민간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부족 -의견 조정과정의 부재
사회적 요인	농촌사회의 폐쇄성	-타마을과 외지인에 대한배타적 인식/ 차별적 행동

자료 : 조중현, 마을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간 갈등의 근거이론적 해석 : 농촌체험마을 주민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7, p.32.

## 2) 사업수입 및 혜택의 고른 배분<sup>45)</sup>

마을공동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혜택이 마을 주민들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촌체험마을에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수익배분의 문제’이며, 이는 사업의 추진 및 운영으로발생한 수익과 외부지원이 특정주민에게 편중되고 대다수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따라서다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45) 조중현, 마을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간 갈등의 근거 이론적 해석 : 농촌체험마을 주민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7, pp, 171-174에서 요약 정리.

부여하고 마을기금의 조성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도 사업으로 인해 파생된 수혜의 일정부분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간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권한견제를 위한 조직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확립

마을 공동사업이 지도자나 소수의 주민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조직체계와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마을지도자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시 농촌체험마을의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점을 들어 자신을 비롯한 소수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도자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사업추진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각종 의혹과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주민갈등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마을지도자에게 집중된 사업추진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주민간 갈등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리더십 정립

마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바람직한 리더십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농촌체험마을 주민간 갈등의 핵심주체가 마을지도자였고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가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마을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Labich(1988)와 Steers(1991)가 제시한 주민의 신뢰획득, 솔선수범하는 자세, 충실한 자기계발, 반대세력의 포용,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농촌상황을 고려할 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매우 드물고 이를 갖추어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도자 스스로 리더로서의 자질과 바람직한 리더십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마을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로 인한 갈등은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5) 실효성 있는 마을규약 및 정관 제정

실효성 있는 마을규약이나 정관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을규약이나 정관 등 주민들이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의 유무가 농촌체험마을 주민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업의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업의 이권과 관련된 각종 문제와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동시에 실효성 있는 마을규약이나 정관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간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6)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행정기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농촌체험마을 주민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상향식 사업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에도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따라서 상향식 사업방식의 근본 틀 안에서 마을 주민들의 수준과 역량에 따라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각화·세분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화해 가는 것이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7)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농촌체험마을 주민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주민 상당수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와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사업과 관련된 주민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마을내 교육이나 주민회의, 토론회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마을 공동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주민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8) 마을여건을 고려한 사업운영 방식 채택

농촌체험마을의 사업운영방식에 따라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을의 사업운영 방식은 크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특정 주민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개별 운영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운영방식의 한계와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최근에는 공동운영방식의 범주 안에서 사업의 일부분을 개별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공동운영방식과 개별운영방식의 장점만을 혼합한 방식으로 주민간 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위탁운영방식 등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에서 어떤 운영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갈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마을의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에 적합한 사업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 또한 주민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9) 갈등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

도농교류사업 추진과정의 주민갈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체험마을의 주민갈등양상을 종합해보면 각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갈등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갈등원인이 내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심각한 수준으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사업 추진과정의 주민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관리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1) 차별화된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강화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마을의 홍보활동이나 마을 방문객의 마을정보 수집이 주로 마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강화와 함께 방문객들과 유대강화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1]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마을홈페이지

마을별 홍보활동이 마을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듯이 방문객의 경우도 깨끗한 자연환경과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마을운영자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마을이미지 강화와 아울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의 정보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을홈페이지의 외부사이트 링크홍보 강화와 마을 안내책자, 마을내 안내판 등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2) 마을브랜드 개발과 운용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를 실시하는 인근지역과 차별화된 도농교류를 위해서는 마을브랜드의 개발 및 운용이 필요하다. 마을의 통일된 이미지 제공과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마을브랜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 및 마을기념품, 축제, 주요시설 등에 폭넓게 활용하며 응용매뉴얼에 따라 통일되게 적용하여 마을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포장패키지를 개발하여 상품의 차별화, 시장의 차별화, 가격의 차별화 전략을 펼침으로써 농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을축제 및 행사시에도 사용함으로써 마을을 홍보하고 정체성을 확립토록 한다.



자료 : 공주시, 공주주말도시 마을브랜드매뉴얼  
[그림 5-12]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마을브랜드

## 3) 지속적인 도시방문객 관리

농촌체험마을은 아직까지 비즈니스마인드가 미약하기 때문에 도시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지속적인 도농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이나, 다양한 체험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타 마을에 비해 차별화된 환대와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도시방문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객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되, 잠재적 방문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방문객들의 특징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안내와 제공, 연령별, 기타 특성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마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도입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회원들의 예약이나 서비스 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안내와 관리를 제공하고, 잠재적 고객이나 현재 고객들에게 메일이나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에 반영하는 등의 체계적,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4)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케팅 전략

농촌체험마을을 통한 도농교류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로움, 경제적 요건보다는 문화적 요건을 우선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농교류는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마케팅과 입소문에 의한 마케팅이 소규모 경영에 적합하며, 방송과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마케팅 전략도 효과적이다. 도농교류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여 감동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은 도농교류를 추진할만한 내부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유치를 위하여 외부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은 대부분 마케팅, 경영, 회계, 시설계획 등 핵심역량이 부족하므로 사업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평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농교류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소비자 및 각종 단체와 도농교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의미있는 인연을 만들어 고정 고객을 확보한다. 또한, 타 지역의 마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시 행정지원을 획득하도록 한다. 농산물을 파는 도시의 시장과는 달리, 도농교류사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쌍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46)

## 7.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 1) 행정관리조직의 단순화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은 몇 개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업정책과, 어촌체험마을은 수산과, 산촌생태마을은 산림녹지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추진 및 관리하고 있다. 이와같이 농촌체험마을을 관리 및 지원하는 부서가 다양함에 따라 마을대표자에 대한 업무 및 교육이 반복되면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농산어촌간 업무협력이 있을 경우 업무부서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등 활동반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통합적 행정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 업무가 이루어지고 정부정책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의 경우 '5도2촌팀'을 신설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와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2) 도농교류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농촌체험마을의 독자적인 도농교류사업으로는 체계적인 도농교류추진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이 연계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협력방안의 하나로 도농교류 조직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체험마을 간의 조직화를 통해 방문객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간 시설, 프로그램, 농특산물, 인력 등을 교류하고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상품구색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안군의 도농교류센터, 평창군 그린투어 사업단, 장수군의 도농교류협의회 등과 같은 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

46) 김명룡,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완주 디지털 산내골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5권 3호, 2008, p.527.



## 진안군 도농교류센터<sup>47)</sup>

### (1) 설립배경 및 목적

2005년부터 시작된 진안군 산활력사업은 ‘경제살리기’ 정책과제에서 미래지향형 중추산업으로서 ‘도농교류, 직거래’ 분야를 설정하였다. 전국 최초로 농촌형 ‘도농교류박람회’ 개최라는 목표설정을 통해 주민주체의 민간전문조직 결성과 혁신체계 구축, 나아가 농특산물 고급화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다. PAS방식에 따라 행정의 예산지원을 토해 진안군 도농교류, 농촌관광, 생태관광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민간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2) 설립경과

- 2006년 4월-10월 :도농교류활성화전략수립 연구용역추진(주민참가형연구용역방식)
- 2006.11.6 : 연구용역 후속으로 ‘도농교류연구모임’ 발족
- 2006. 12. 26 : 도농교류센터 설립을 결의하고 회칙(안)검토
- 2007. 2. 23 : ‘도농교류센터 설립준비위원회’ 정식발족
- 2007. 7 : 사단법인 형식의 도농교류센터 설립 결정
- 2007. 10-12 : 도농교류센터 사무실 입지검토 현장 확인 실시(3회)
- 2008. 1 : 센터상근인력 2명 공개심사, 채용, 이후 농촌관광사무국역할 수행
- 2008. 6 : 센터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완료

### (2) 주요성과

-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학습활동으로 도농교류 전문가 육성
- 관련사업과의 적극적 연계로 지역협력체계 구축 : 농업기술센터, 체험지역네트워크 구축과 농촌관광대학, 마이숲 사랑, 문화원, 귀농인, 마을간사 및 마을만들기 주민리더 등
- 민간중심의 도농교류 전문조직 설립 : 행정과의 긴장된 균형관계 유지,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상근구조 확립등

### (3) 기대효과

- 진안알리기 : 도농교류의 선진지로서 진안군 농산물 및 지역이미지 제공에 적극기여
- 경제살리기 : 정예화된 가이드의 활동과 차별화된 체험마을 운영으로 농촌관광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농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안정된 소비처확보기반 구축 등
- 인재만들기 : 도농교류 전문가이드의 체계적 양성과 민간 전문단체 정착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등

47) 진안군마을만들기 홈페이지(<http://www.jinanmaeul.com>)

### 3)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계적인 도농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농교류촉진법 제12조 1항에서는 이 계획의 수립 및 시행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계획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계획내용은 도농교류프로그램,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어촌축제, 도시민의 농어촌정주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도농교류교육, 홍보,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도농교류 5개년(‘10~’14)계획」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의 하위계획으로서 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어촌교류촉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남도내 농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도농교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도시-농촌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도농교류정책의 정책방향과 발전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농교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통해 7개 주요변인을 선정한 다음 분석을 틀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도농교류 정책과 제도적 기반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시군의 도농교류 시책은 공주시 “5도2촌주말도시”를 사례로 분석한 다음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실태·문제점·성과 분석과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충청남도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90개 마을, 도시 및 농촌주민 각 90명을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한 다음,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를 대상으로 5명의 마을대표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의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시책

첫째, 충남도의 도농교류 정책은 본청 및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농교류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충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및 운용 중에 있다. 시군 역시 중앙정부 주도사업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도농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관광 개별경영체, 체험마을,

농촌교육농장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도 팜스테이, 1사1촌, 1교1촌 등의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청양군, 아산시, 금산군, 논산시 중심으로 체험마을이 분포하고 있고,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왔다. 다양한 체험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마을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셋째, 시군의 도농교류시책은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5도2촌 주말도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도2촌 주말도시팀과 같은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마을 주민교육을 위해 대학 및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성공사례 도출을 시도한 점 등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반면, 주민의 자발적 투자미흡, 하드웨어중심의 지원, 마을이기주의 발생, 마을주민간 갈등 내재, 사무장 부재, 수익분배에 따른 의견차이, 체험프로그램의 유사중복, 숙박 및 음식시설 증개축 제한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2) 농촌체험마을 대표자 및 주민의식 조사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 도시 및 농촌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마을대표자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

충남도내 대부분의 농촌체험마을에는 농촌체험시설, 숙박시설, 방문객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농교류시설 및 농산물 판매시설은 상대적으로 보유비율이 낮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농교류기반시설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농촌체험마을은 평균 1건 이상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민간기업체와 가장 많은 결연을 맺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청 및 학교,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의 순으로 결연을 맺고 있다. 1990년대부터 자매결연이 시작되지만,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인 결연을 맺고 있다.

둘째, 주민소득 증대 방안

마을축제는 봄, 여름, 가을에 집중 개최되며 2000년 중반 이후 본격 개최되고 있다. 축

제에 참여한 도시방문객 수는 500명 이하가 과반 수 이상으로 마을축제는 비교적 소규모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축제는 마을의 농특산물, 전통문화 및 놀이, 꽃 등을 테마로 개최되고 있다.

조사대상 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수는 2009년 평균 4,170명이지만, 1,000명 이하를 방문한 마을수가 과반수 정도(47.8%)를 차지하고 있다. 도농교류 이후 농촌체험마을에서는 마을 방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소득이 증대하고, 이는 마을 전체소득과 마을공동기금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셋째,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도농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3.3%의 마을에서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고,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들은 연1회 농촌사랑연수원 등에서 도농교류 교육 및 연수를 받고 있다.

도농교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은 주로 3일 이하의 단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나, 주로 1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교육기관 등에서 도농교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 주민들의 선진마을 견학회수는 마을당 연간2회 정도이고, 마을당 평균 34명이 견학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마을보다는 도외 마을을 더 선호하고 있다.

#### 넷째, 차별화된 도농교류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은 농촌체험 및 관광, 숙박시설 제공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절별로 보면, 봄에는 농작물심기, 나물캐기, 전통음식 체험, 여름에는 농작물 수확 및 농사체험, 가을에는 농작물 수확, 음식만들기, 겨울에는 문화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대상 마을 과반수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향후 발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다섯째, 갈등의 효율적 관리

농촌체험마을의 갈등은 마을주민간, 마을대표자와 마을주민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운영과정상 장애요인으로 인력부족 및 주민비협조, 홍보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여섯째, 도농교류 홍보 및 마케팅

조사대상 마을의 80%가 도농교류 홍보수단으로 마을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고, 마을축제, 홍보팸플렛 등을 부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홈페이지에 대한 마을주민의 만족도

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홍보 이외 도농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 일곱째,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농촌체험마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인 중장기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이 70.0%에 달한다. 대부분의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는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규상에 규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신청할 의향이 있어 도농교류사업의 지속추진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및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이 도시주민에 비해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도농교류 필요성, 도농교류 필요 정도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농교류의 필요성으로 농산물 직접 판매 및 구입, 영농활동 공동참가, 도시민휴가 및 농촌주민 도시방문 등을 들고 있고, 도농교류는 도시-농촌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가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는 대부분 농산물판매로 인한 소득 증대를 들고 있으나, 도시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는 신선한 먹거리로 도시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농촌체험학습으로 도시학생의 인성교육에 도움, 농촌에서 휴양 및 휴식으로 도시민의 여가증진, 농촌의 전통문화 체험으로 문화욕구 충족 등 다양하다.

둘째, 도농교류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농촌 및 도시주민간의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은 도농교류 유형 중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및 관광, 주말농원 등 다양한 교류유형을 인지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가 도농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농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 농촌체험 및 기반, 숙박시설 부족, 교류 및 체험지도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역할주체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인식하고 있고, 농촌 및 도시주민의 인식전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지가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농교류 프로그램중 농산물의 직접 판매 및 구입, 마을축제 및 행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결론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 도농교류 정책방향과 발전과제를 결론으로 대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본방향

충남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이 공생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농교류는 인간적인 신뢰 즉 사회적 자본에 기초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정주로 연결되어야 한다. 도농교류는 마을 독자적 문화구축을 통해 고객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도농교류는 농촌, 기업 및 단체, 도시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주체별로 적극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변인별 발전과제

첫째, 체험마을 정비 및 교류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정비, 농촌체험마을의 사회기반, 농업농촌경관정비, 체험중핵시설, 지역경영거점시설 농촌체험마을 정비, 농특산물 판매소, 구판장, 인터넷쇼핑몰 등 도농교류기반 확충, 1사1촌, 1교 1촌 등 자매결연제도의 실질적 운용, 농촌체험마을 규약 제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소득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변관광지나 상권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 농협의 요일장터 등과 연계한 마을특산물 직거래 장터 정례화, 차별화된 마을축제를 통한 소득증대방안 모색, 농촌체험마을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도농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육성 아카데미 개설, 도농교류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사무장제 확대 운용, 농촌체험마을 주민 개개인의 교류역량 배양, 농업농촌의 이해를 위한 도시민 교육 등이 필요하다.

넷째,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가 및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의 개최,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교육의 확대, 농촌유학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원인의 명확한 파악, 사업수입 및 혜택의 고른 배분, 권한전제를 위한 조직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확립,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리더십 정리, 실효성 있는 마을규약 및 정관제정,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강화,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마을여건을 고려한 사업운영 방식 채택, 갈등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이 강화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강화, 마을브랜드의 개발 및 운영, 지속적인 도시방문객 관리, 도시소비자 및 각종단체, 자매결연, 회원제사업, 이벤트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일곱째,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농교류 담당 행정관리조직의 단순화, 진안군의 도농교류센터, 평창군 그린투어 사업단, 장수군의 도농교류협의회 등과 같은 지원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통합계획 수립도 요구된다.

## 제2절 정책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내에 산업단지나 주거단지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내 종사자 및 거주민의 증가를 통한 지역활성화도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매력물을 발굴,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자를 유치하는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도농교류는 교류자의 증가를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일 뿐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간 협력 및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예비사업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농교류를 바라보는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농교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10~14)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도농교류시책 추진이 요구된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도농교류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단위의 도농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 도농교류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조례 제정 및 도농교류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도농교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도시-농어촌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각 시군에도 “(가칭)도농교류촉진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질적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농교류관련 기관간의 협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주시의 ‘5도2촌주말도시팀’과 같이 행정기관에도 도농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도농교류시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농교류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코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민들은 도농교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단계마다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코칭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연스러운 학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주시 5도 2촌 주말도시 사례와 같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여섯째, 도농교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우수마을에 대한 견학, 현장방문 등은 도농교류에 대한 확신 및 창의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국내에 머물지 말고 해외의 성공사례를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도농교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농어촌교류 촉진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도농교류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등에서는 한시적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평생교육원내 상시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

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농교류가 상당한 성과를 내어 상당한 수준이 도달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시작단계에 있는 마을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를 추진하면서 마을내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중단된 마을도 있다. 따라서 마을이 처한 여건과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평가된 마을수준에 적합한 코칭, 컨설팅 등의 지원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에 대한 공간적인 한계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경제적인 한계로 인하여 조사의 범위를 충청남도에 소재한 농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90개 마을과 농촌과 도시주민 각각 90명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선정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7개의 주요변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변수선정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도농교류를 너무 농촌중심의 시각으로 본 한계이다.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농촌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도농교류를 통한 도농상생이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교류의 양상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여 향후 다양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사례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결과를 통해 도농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촌마을 잠재자원의 효율적 발굴, 주민역량의 강화, 마을간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효과 증진 등 내발적 개발 원리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부가가치가 마을주민에게 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승진, 제주지역 농업·농촌체험장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9-2, 제주발전연구원, 2009.
- 강신겸·김정연, 녹색관광, 일신사, 1997.
- 강신겸, 도농녹색교류사업의 정책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2002.
-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연구, 농촌진흥청, 2008.
- 강원도농업기술원, 전통테마와 녹색체험마을 : 강원도 농촌관광, 2007.
- 강원발전연구원, 도농교류와 농촌지역발전, 2003.
- 고병갑, 농촌관광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2007.
- 국외예산정책처,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 2006, p.34
- 금차용,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방안, : 안동시 가송리 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2005.
- 김경리, 국내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2008.
- 김명룡,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완주 디지털 산내골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5권 3호, 2008.
- 김명룡,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대학원, 2008.
- 김병률 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C20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1.4.
- 김병률 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0-9, 2000.
- 김영수·박종안, 한국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9집 2호, 2009.
- 김용근, 농산어촌체험교육과정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 국회, 2009.
- 김점수,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인접지역 주민소득 증대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07-07, 2008.

김희수, 농산어촌 체험마을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 정부지원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극동대 산업정보대학원, 2009.

김희승, 전남 녹색체험관광 현황과 활성화방안, 전남발전연구원, 2009.

김희향, 도·농교류를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2006.

농림부, 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 2001.

농림부,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2004.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1사1촌운동을 통한 농촌활성화방안 연구, 2004.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방안 연구, 2004.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공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8.7.

농림식품부·한국농촌공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8.

농어촌연구원·농어촌연구원,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2008.

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도농교류 기반정비를 위한 전원공간정비 방안 연구, 2005.12.

농촌진흥청,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기본이념과 실천방안 : 새로운 농촌 정신문화 운동의 전개, 2009,

농촌진흥청,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연구, 2008.

농촌진흥청, 농촌마을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 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2009.

농협, 삼성경제연구소, 농촌사랑운동 발전전략, 2006.

유정아,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문영섭, 농촌의 어메니티자원 활용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 대학원, 2007.

민승규, 농촌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7.1.11.

박대식 외, 삶의 질 향상 기본 및 실행계획 추진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박종유,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과 환경, 통권 제94호, 2007.3.

- 배중남,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08-23, 강원발전연구원, 2009.
-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모델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세대간 교류프로그램 개발, 2008.
- 송두범, 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기본연구과제 2003-01, 충남발전연구원, 2002.
- 송두범·정환영,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충남리포트 제36호, 충남발전연구원, 2010.
- 송두범, 도시-농산어촌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충청남도 및 공주시 5도2촌시책을 중심으로, 행정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공공행정학회, 2010.
- 송미령,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형성방안,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세미나, 2003.
- 송영호,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 국제경영대학원, 2005.
- 송완구, 농촌관광 체험요인이 지속교류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대학원, 2009.
- 안덕초, 장소자산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축제 계획에 관한 연구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7.
- 안종현, 농촌관광마을 만들기과 주민참여 : 광양시 산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의 사례,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대학원, 2008.
- 안종현, 농촌체험마을 만들기과 주민참여 : 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의 사례,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 안종현, 마을축제를 통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 못생긴호박추게 방문객을 사례로, 문화관광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8.
- 오내원 외, 농가계층별 소득증대방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오현석·최동주·김정섭·오형은, 도농교류활동의 유형화와 발전방향, 농촌관광의 이론과 실제, 명진씨앤피, 2004.
- 유정규,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의미와 활성화 전략, 지역재단 창립2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6.
- 유정규,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도농교류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2007.
- 윤두용, 우리나라 도농교류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용산구 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6.
- 이 샘,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선호형태분석, 석사학위논문, 강원대 대학원, 2008.
- 이용대,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주대학교 대학원, 2007.
- 이인배 외,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체험프로그램 과제의 도출을 중심으로, 기본연구과제 2005, 충남발전연구원, 2005.
- 이현희, 정부지원 농산촌 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대학원, 2006.
- 임경수, 도농교류의 현황과 과제, 계간 농정연구, 통권제14호, 농정연구센터, 2005.
- 임상봉,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공사, 2007.
- 전영미, 농촌관광을 고려한 마을정비방안, 새국토연구협의회 세미나자료집, 2003.
- 전준현 외, 산촌체험관광 발전방안, 국립산림과학원, 2008.
- 전희향, 도농교류를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농업개발대학원, 2006.
-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정지영, 농촌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시책, 경기도인재개발원, 2009.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 조중현, 마을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간 갈등의 근거 이론적 해석 : 농촌체험 마을 주민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7.
- 진안군마을만들기 홈페이지(<http://www.jinanmaeul.com>)
- 최성준, 농촌체험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평군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 하재정, 협동조합법인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8.
- 한국관광공사, 농촌관광 지원체계개선 및 상품선진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200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농업 비전과 전략, 2009.
-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2008.12.



## 부 록

1. 도시-농산어촌교류에 대한 조사표(마을대표)
2. 도시-농산어촌교류에 대한 조사표(주민)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4.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1. 도시-농산어촌 교류에 대한 조사표(마을대표)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청남도과 시군의 도시-농산어촌 교류활성화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님과 농촌,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은 도시-농산어촌교류를 위한 정책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을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조사가 농촌, 도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6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리서치센터

1. 귀하의 마을에 도농교류시설에 있습니까? 해당란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존재여부		활용여부	
	있다	없다	활용	미활용
농촌체험시설(영농체험, 생활체험, 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숙박시설(농가민박, 마을회관, 펜션, 황토방 등)				
방문객 편의시설(주차장, 아영장, 쉼터, 정자 등)				
도농교류시설(도농교류센터, 방문자 센터, 교육관 등)				
농산물 판매시설(특산물 판매소, 구판장, 인터넷쇼핑몰 등)				

2. 귀하의 마을은 도시 기업, 아파트 단지, 도시학교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사 업 명	결연단체수	최초 자매결연 연도
민간 기업체		
소비자 단체(아파트 부녀회 포함)		
공공기관 및 연구소		
농협		
교육청 및 학교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		
기타(무엇: )		

3. 귀하의 마을에 마을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면 다음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이름	
개 최 월	
최초개최년도	
축제에 참여한 도시 방문객수(2009년)	

4. 귀하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존재여부	
		있다	없다
농촌체험 및 관광	영농체험, 농촌생활체험, 자연생태체험, 공예체험, 전통놀이체험, 레포츠체험, 관광연계체험		
마을행사 & 이벤트	마을축제, 농촌문화행사기획, 마을행사 초청, 농산물 품평회 개최		
농산물직거래판매	직거래장터운영, 선물용 농산물판매, 계약재배		
마을교류시설 제공	주말농장 분양, 워크숍장소 제공, 자매결연 기업 및 가족위한 휴양공간 활용		
숙박시설 제공	농가민박, 펜션, 마을회관, 황토방 등에서 숙박		
음식물제공	민박, 펜션, 마을회관 등에서 음식물 제공		

5. 귀하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도농교류 세부사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세부 도농교류사업
(예시) 봄	친환경농업 오리방사 행사, 모심기, 고기잡기 등
봄	
여름	
가을	
겨울	

6. 귀하의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주요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마을홈페이지                      ② 시청, 군청 홈페이지                      ③ 홍보팜플렛  
 ④ 지역신문이나 TV                      ⑤ 출향민에 대한 서신                      ⑥ 축제개최  
 ⑦ 기업체, 학교 등에 대한 홍보    ⑧ 마을안내 홍보판 설치  
 ⑨ 기타( 무엇 :                      )

7. 귀하의 마을은 마을홈페이지를 운용 중에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현재 없지만 계획중이다

8. (있다면) 마을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도농교류 운영성과

9. 최근 2년간 귀하의 마을을 방문한 도시주민 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방문인원(총인원)
2009년	
2010년	

10. 귀하의 마을이 도농교류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항 목	감소	변함없음	증가
마을전체 소득			
마을 공동기금			
정부나 행정기관 지원금			
마을방문자 수			
농산물판매 소득			

11. 귀하의 마을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① 수립되어 있다                      ② 수립되어 있지 않다



17.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지역대학에 주민교육프로그램 설치  
③ 전문가들이 마을에서 교육                ④ 농촌체험 교육기관에서 연수  
⑤ 시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                ⑥ 기타(무엇 : )

18. 귀하는 2008년부터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19. 귀하의 마을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신청 또는 신청할 예정입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농어촌체협 · 휴양마을사업자 성격
  - 마을협의체이며 국세기본법에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 지정요건
  - 마을전체 가구의 과반수 동의,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

20. 귀하의 마을에서 이루어진 체험·봉사활동 과정에서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외체험학습 인정근거를 위해 도입된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발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발급한 경험		
발급할 계획		

21.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를 골라 주세요)

- |                           |                    |
|---------------------------|--------------------|
| ① 마을내 갈등 해소               | ② 주민의 선진지 견학 및 교육  |
| ③ 도농교류 시설 확충(체험, 숙박시설)    | ④ 행정기관의 사업비 지원     |
| ⑤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컨설팅         | ⑥ 마을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
| ⑦ 도농교류 사업 홍보              | ⑧ 농특산물 판매지원        |
| ⑨ 행정기관-마을대표-마을주민간 연계체계 구축 |                    |
| ⑩ 체험마을-교육농장-개별농가간 연계체계 구축 |                    |
| ⑪ 기타 ( 무엇 : )             |                    |

□ 일반사항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 령	① 30세 미만    ② 30~4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9세                      ⑥ 70세 이상
3. 마을직책	① 추진위원장                      ② 개발위원장                      ③ 사무장 ④ 마을이장                      ⑤ 기타(                      )
4. 마을유형 (복수기입 가능)	① 녹색농촌체험마을    ② 농촌전통테마마을    ③ 산촌생태마을 ④ 어촌체험마을                      ⑤ 자연생태우수마을    ⑥ 팜스테이마을 ⑦ 농촌마을종합개발    ⑧ 정보화시범마을 ⑨ 기타(무엇 :                      )
5. 마을위치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금산군    ⑨ 연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⑯ 당진군
6. 직 업	① 벼, 과수원 등 농업                      ② 축산업                      ③ 어업                      ④ 제조업 ⑤ 서비스업                      ⑥ 주부                      ⑦ 무직 ⑧ 공공근로, 취로 및 자활사업                      ⑨ 기타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도시-농산어촌 교류에 대한 조사표(주민)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충청남도과 시군의 도시-농산어촌 교류활성화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님과 농촌,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은 도시-농산어촌교류를 위한 정책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학술연구 목적만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을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조사가 농촌, 도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6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리서치센터

1. 귀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② 알고 있음  
③ 모르고 있음                              ④ 전혀 모르고 있음

2. 귀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필요하지 않음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3. 귀하는 다음에 제시한 도농교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류형태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농산물의 직접 판매 및 구입	①	②	③	④	⑤
마을축제 등에 공동참가	①	②	③	④	⑤
영농활동에 공동참가(일손돕기 등)	①	②	③	④	⑤
도시학생의 농촌체험 및 유학 농촌학생의 도시학교 체험	①	②	③	④	⑤
도시민의 휴가 및 휴양 농촌주민의 도시방문	①	②	③	④	⑤
도시가족 및 직장단위 농가숙박 농촌가족의 도시 홈스테이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도농교류의 성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농교류 성과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매우 중요함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농촌 및 도시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투자 증진	①	②	③	④	⑤
도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도농교류를 위해 다음의 시설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류형태	전혀 불필요 ⇐ ⇨			매우 필요	
농촌체험시설(영농체험, 생활체험, 문화체험, 농촌생태체험)	①	②	③	④	⑤
숙박시설(농가민박, 펜션, 향토방, 마을회관 등)	①	②	③	④	⑤
방문객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정자, 아영장 등)	①	②	③	④	⑤
도농교류시설(도농교류센터, 교육관, 방문자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농산물 판매시설(특산물 판매소, 구판장 등)	①	②	③	④	⑤

6.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농촌과 도시 어느 쪽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 (7번으로 가시오)
- ② 도시 (8번으로 가시오)
- ③ 농촌과 도시 모두 같은 도움을 받음

7. (농촌에 응답한 분만) 농촌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는?

- ① 농산물 판매로 인한 소득증대                      ② 농촌의 부족한 일손돕기
- ③ 도시자본의 농촌유치가 가능                      ④ 농촌생활을 알리고 이해시킴
- ⑤ 농촌인구의 증가효과                              ⑥ 도시민의 방문으로 농촌이 활력
- ⑦ 도시주민들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⑧ 기타(무엇 :    )

8. (도시에 응답한 분만) 도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유는?

- ① 농촌에서 휴양 및 휴식으로 도시민의 여가증진
- ② 농촌체험학습으로 도시 학생의 인성교육에 도움
- ③ 신선한 먹거리로 도시주민의 건강증진
- ④ 농촌의 전통문화 체험으로 문화욕구 충족
- ⑤ 농촌주민과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⑥ 기타 (무엇 : )

9.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도농교류 유형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사 1촌, 1교 1촌 자매결연      ② 농촌체험 및 관광  
③ 농촌마을 축제참여      ④ 주말농원  
⑤ 농산촌 유학      ⑥ 농촌체험교육 농장  
⑦ 농산물 직거래      ⑧ 농협 팜스테이  
⑧ 기 타( 무엇 : )

10. 도농교류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는 기관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중앙정부                  ② 충남도, 시군 자치단체  
③ 농협                        ④ 민간기업체  
⑤ 종교기관                 ⑥ 학교  
⑦ 소비자 단체              ⑧ 기타(무엇 : )

11. 귀하께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에서 추진하는 도농교류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② 긍정적으로 평가                      ③ 보통으로 평가  
④ 부정적으로 평가                      ⑤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12. 귀하께서는 도농교류에 대한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촌의 체험 및 기반, 숙박시설 부족
- ② 농촌마을의 고령화로 인한 교류 및 체험지도 인력 부족
- ③ 도농교류가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침
- ④ 도시주민들의 방문에 따른 영농불편 및 농작물 훼손
- ⑤ 도시민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부족
- ⑥ 도농교류가 실제 주민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음
- ⑦ 도농교류에 대한 정보 및 홍보부족
- ⑧ 기 타( 무엇이 : )



###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27, 2009.6.9>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삭제<2009.5.27>
3. 삭제<2009.5.27>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둘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5.27>

1. 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수산물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5.27>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7>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5.27>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9.5.27>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제11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7>

제1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실태, 시설·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사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7>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7>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

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7.23>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5.27>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7>

제18조 삭제<2009.5.27>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5.27>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 제6장 보칙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3.31>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개정 2009.5.27>)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5.27>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7>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09.5.27>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

##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5.27>

⑤ 삭제<2009.5.27>

⑥ 삭제<2009.5.27>

⑦ 삭제<2009.5.27>

## 부칙 <제875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715호,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인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⑰부터 ⑤③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 「지방세법」 ”을 “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한다.

⑧부터 ④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386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 4.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09-10-30 조례 제 3444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정책과, 연 락 처 : 0422512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충청남도 농산어촌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충청남도 시·군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산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포함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충청남도 농산어촌 체험 관광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활성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농산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산어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산어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 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로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산어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산어촌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산어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농 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산어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감독 및 평가하게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정환영 공주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 주형로 도농상생연대 대표  
이흥숙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김경래 충청남도 수산과  
송재길 충청남도 산림복지과  
구동관 충남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  
오병철 농협충남지역본부  
윤석기 공주시 5도2촌주말도시텃  
최위호 공주시 5도2촌주말도시텃  
이경학 청양군 문화관광과

기본연구 2010-12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글쓴이 · 송두범 외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00(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19  
ISBN · 978-89-6124-146-5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